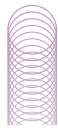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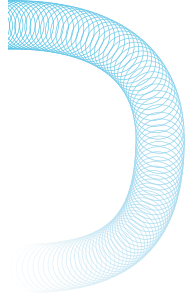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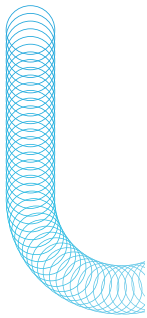


중등 교육학 논술  
직강 모든 강의 마감 2023년, 2022년,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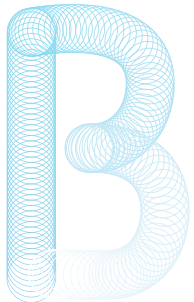
2025  
학년도



구조화와 인출로 만점 적중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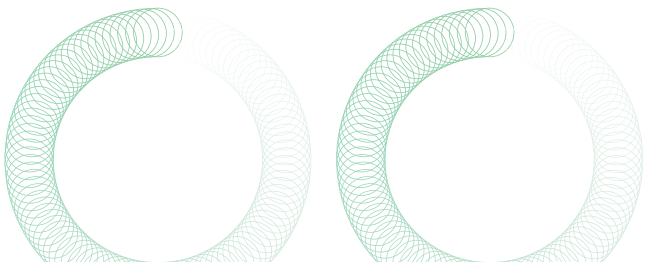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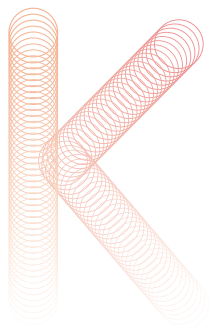


# 이선화 교육학



합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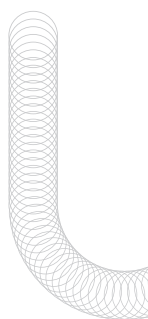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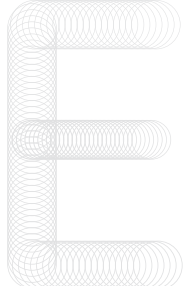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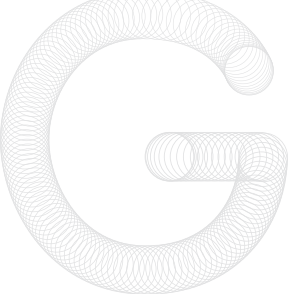
## Guide



- 중등 임용 교육학 논술 시험 안내
-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 최근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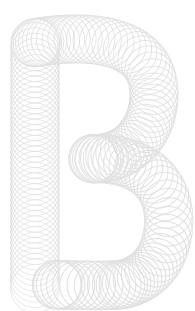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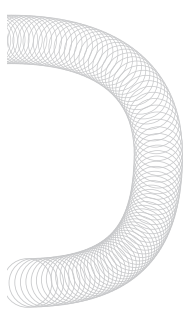
- 교육학 논술 작성의 기초
- 교육학 논술 공부 계획
- 교육학 이론의 기초

- 감사 말씀 & 합격 후기 과목별 수록
- 2025학년도 대비 이선화 교육학 연간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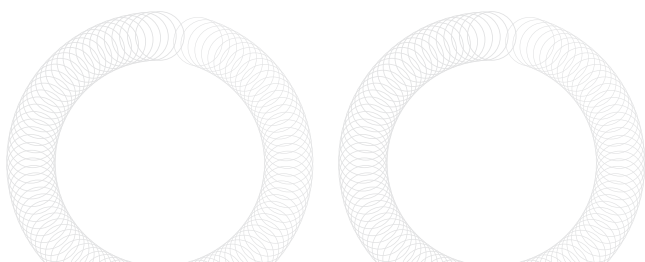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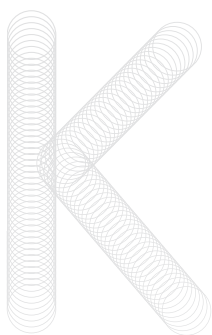


구조화와 인출로 만점 적중 강의

# 이선화 교육학



Guide



# Contents

합격 가이드 차례

<b>01. 중등 임용 교육학 논술 시험 안내</b>	
1. 교육학 논술의 목적 .....	6
2.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	7
<b>02.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b> .....	10
<b>03. 최근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b>	
1. 2024학년도 기출문제 .....	14
2. 2023학년도 기출문제 .....	25
3. 2022학년도 기출문제 .....	37
<b>04. 교육학 논술 작성의 기초</b>	
1. 논술문 작성의 기초 - 형식 .....	44
① 개인정보(성명, 수험번호) 기입 .....	44
② 논술문의 기본 형식 : 서론, 본론, 결론 .....	44
③ 표현의 수정 .....	48
④ 내용의 추가 .....	49
⑤ 맞춤법 .....	49
⑥ 기타 주의사항 .....	51
2. 논술문 작성의 기초 - 내용 .....	52
① 문제 요구사항 파악하기 .....	52
② 제시문 정확히 읽기 .....	52
③ 개요짜기 .....	53
④ 본론 서술 주요 사항 .....	57
⑤ 기타 내용 관련 고려 사항 .....	58

<b>05. 교육학 논술 공부 계획</b>	
1. 연간 수험 계획을 잡는 것부터 시작 .....	60
2. 1월, 2월 .....	60
3. 3월, 4월 .....	60
4. 5월, 6월 .....	61
5. 7월, 8월 .....	61
6. 9월, 10월, 11월 .....	61
<b>06. 교육학 이론의 기초</b>	
1. 교육학의 영역 .....	66
2. 교육학 영역별 대표 용어 정리 .....	67
<b>07. 합격 시기</b>	
1. 강의를 수강하신 선생님들의 감사 말씀 .....	76
2. 전공별 합격 시기 .....	83
국어·83 영어·85 수학·88 역사·93 도덕 윤리·99 지리·102 화학·105	
미술·106 음악·108 체육·109 특수·112 보건·114 상담·116 영양·126	
<b>08. 2025학년도 대비 이선화 교육학 연간 계획서</b>	
• 연간 강의 계획 - 상반기 .....	129
• 연간 강의 계획 - 하반기 .....	131
• 이선화 교육학 수강생 특전 .....	132

이선화 교육학  
GUIDE BOOK 합격가이드

이선화 교육학  
합격 가이드

# 01

## 중등 임용 교육학 논술 시험 안내

1. 교육학 논술의 목적
2.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 중등 임용 교육학 논술 시험 안내

## 1)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구성

- 1차 : 교육학(논술), 전공(서답형)
- 2차 :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

## 2) 2차 전형의 경우, 지역 교육청에 따라 세부 전형 절차와 구성 상이

### 1 교육학 논술의 목적

- \* 단편적 지식의 암기에 대한 확인이 주를 이루었던 객관식 시험의 한계를 넘어 보다 심층적인 교육학 지식과 그에 대한 실질적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보다 질 높은 평가를 지향
- \* 분리된 교육학 세부영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고등사고능력 평가
- \* 기존의 객관식 시험의 단편적 암기를 넘어선 사고력, 종합적 이해력을 교육학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도입

#### 논술시험의 목표

논술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고등사고능력은 교육학의 지식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적용능력, 논리적 사고력, 교육현상에 대한 분석적이고 통합적인 이해 능력, 쟁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검토한 후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논술의 장·단점

장점은 반응의 자유, 고등정신능력의 측정, 문항제작의 상대적 용이성, 학습자의 학습태도 개선 등 단점은 채점자의 일관성 부족, 문항표집수의 제한, 채점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 논술의 유형

순수이론형 문항 : 교육학의 이론이나 지식 습득 및 이해 수준을 평가

이론적응형 문항 : 실제 또는 가상의 상황에 대한 이론의 적용을 통해 이를 설명·분석하도록 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와 현실 적용능력을 평가

문제해결형 문항 : 실제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 정의 및 원인 분석, 대안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

- 중등임용고시제도 개편과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개선방향 자료집(2012) 중

## 2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 교육학 지식
- 비판적 문제인식 능력
- 이론의 실질적 활용능력 확인
- 글쓰기 능력을 통한 사고력 평가

기존의 객관식 평가가 다양한 교육학 영역 전반에 걸친 전반적 지식과 세부적 사항의 정확한 암기와 활용을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지식의 명확한 인식 및 논리력, 문제 인식 능력,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춘 심화된 평가 방식이다.

교직과목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교육학 이론의 지식과 교육현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현상들을 이론을 통해 아우를 수 있는 논리력이 함께 필요한 평가이다.

때문에 교육학 이론에 대한 공부, 교육적 현상과 이슈에 대한 관심, 문제를 통한 연습이 지속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교육학 논술 준비의 기초

1. 교육학 이론은 꼼꼼히!
2. 교육 현장의 문제, 즉 교육관련 이슈에도 관심을!
3. 이론과 현실의 관련성 탐색

열린 교육학의 올바른 해법 강의

# 이선화 교육학



이선화 교육학  
GUIDE BOOK 합격가이드

이선화 교육학  
합격 가이드

# 02

##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2024학년도 중등

2023학년도 중등

2022학년도 중등

2021학년도 중등

2020학년도 중등

2019학년도 중등

2018학년도 중등

2017학년도 중등

2016학년도 중등

2015학년도 중등 추가

2015학년도 중등

2014학년도 중등 추가

2014학년도 중등

#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p>2024학년도 중등</p>	<p><b>[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의 교육과정 유형(잠재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 교육과정</li> <li>-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 3가지와 유형별 서로 다른 기능 : 교수이론 및 공학</li> <li>- 제시문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제시된 능력참조평가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2가지,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적응검사의 특성 2가지 : 교육평가</li> <li>-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위원 3주체, 이러한 3주체 구성의 의의 1가지,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각 1가지 : 교육행정</li> </ul>
<p>2023학년도 중등</p>	<p><b>[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교수전략, 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의 지원 방안 : 교육심리</li> <li>- 형성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된 타당도 명칭과 이 타당도의 확보 방안 : 교육평가</li> <li>- 제시된 교육과정 이론(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제시된 교육과정 이론(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 방안 : 교육과정</li> <li>- 관료제 이론 특징 중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미치는 순기능, 역기능 : 교육행정</li> </ul>
<p>2022학년도 중등</p>	<p><b>[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사례와 관련된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 방법 : 교육과정</li> <li>- 총평의 관점으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제시된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 교육평가</li> <li>- 딕과 캐리의 교수체제개발 모형에 근거한 교수전략 개발 사항, 온라인 수업 중 학생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과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제시 : 교수이론 및 공학</li> <li>- 제시된 학교 중심 연수 종류 확인, 학교 중심 연수 활성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 교육행정</li> </ul>
<p>2021학년도 중등</p>	<p><b>[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운영 관점 장점과 구체적 운영 방안 : 교육과정</li> <li>- 자기평가의 효과와 실행 방안 서술 : 교육평가</li> <li>-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생 특성 및 학습환경 파악, 자기주도학습을 토론 게시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교수이론 및 공학</li> <li>- 의사결정 모형 단점 확인 및 구체적 의견수렴 방안 제시 : 교육행정</li> </ul>

<p>2020학년도 중등</p>	<p><b>[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고츠키 지식론, 그에 따른 지식의 성격, 교사와 학생의 역할 제시 : 교육심리, 교육철학, 교수이론 및 공학</li> <li>- 영 교육과정의 시사점, 중핵 교육과정 명칭 확인 및 토의식 수업에서의 장·단점 확인 : 교육과정</li> <li>- 정착수업의 원리, 위키 활용 시 문제 제시 : 교수이론 및 공학</li> <li>-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문화 분류 유형 확인 및 개선 방안 제시 : 교육행정</li> </ul>
<p>2019학년도 중등</p>	<p><b>[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지능 종류 파악 및 관련되는 과제 유형 제시 : 교육심리</li> <li>- 타일러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와 만족의 원리,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사례 : 교육과정</li> <li>- 척도법 유형 확인, 신뢰도 추정방법 확인 : 교육평가</li> <li>- 바스의 지도성 명칭 및 동료교사와의 신장방안 제시 : 교육행정</li> </ul>
<p>2018학년도 중등</p>	<p><b>[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커의 교육과정 개발모형 확인 및 이 모형의 적용 이유 : 교육과정</li> <li>- PBL에서 학습자 역할, 문제의 특성, 특성의 학습효과 : 교수이론</li> <li>- 평가유형의 명칭 및 해당 평가의 개인차 의미, 구체적 평가유형 개념 제시 : 교육평가</li> <li>-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및 활성화 방안 : 교육행정</li> </ul>
<p>2017학년도 중등</p>	<p><b>[2015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획의 개념과 효용성 : 교육행정</li> <li>-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원리 : 교육과정</li> <li>- 조나센의 구성주의적 학습환경 설계 모형 확인 : 교수이론</li> <li>- 내용타당도 확인 : 교육평가</li> </ul>
<p>2016학년도 중등</p>	<p><b>[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및 문제점 : 교육과정</li> <li>- 형성평가의 기능과 효과적인 시행전략 : 교육평가</li> <li>-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과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이론의 주요 개념 : 교육심리</li> <li>- 비공식 조직이 학교 조직과 구성원에 미치는 순기능 및 역기능 : 교육행정</li> </ul>
<p>2015학년도 중등 추가</p>	<p><b>[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를 중심으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배치 기능 한계 : 교육사회학</li> <li>- 학교 조직의 관료제 특징과 이완결합체제 특징 : 교육행정</li> <li>- 일반적 교수체제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과정의 주요 활동 : 교수이론</li> <li>- 준거지향평가의 개념과 장점 : 교육평가</li> </ul>
<p>2015학년도 중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교육 관점에서의 교육 목적 : 교육의 개념</li> <li>-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 교육과정</li> <li>-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 제시 방안 : 교육심리, 교수이론</li> <li>- 학습조직의 구축 원리 : 교육행정</li> </ul>

<p>2014학년도 중등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비행이론 확인</li> <li>- 행동중심 상담 관점에서 행동수정기법 확인 : 교육심리 및 상담</li> <li>- 인간중심 상담의 기법 확인 : 생활지도 및 상담</li> <li>- 학문중심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 교수이론</li> <li>- 교사 전문성 개발 위한 장학 활동 : 교육행정</li> </ul>
<p>2014학년도 중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적 교육과정 : 교육과정</li> <li>- 문화실조 : 교육사회학</li> <li>- 협동학습 : 교수이론</li> <li>- 형성평가 : 교육평가</li> <li>- 교사지도성 : 교육행정</li> </ul>

열린 교육학의 올바른 해법 강의

# 이선화 교육학

이선화 교육학  
합격 가이드

# 031

## 최근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1. 2024학년도 기출문제
2. 2023학년도 기출문제
3. 2022학년도 기출문제

## 2024학년도 기출문제

다음은 20○○학년도 중등신규임용교사 연수에서 신임 교사와 교육 전문가가 나눈 대담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전략, 교육평가, 교육행정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상략)…

사 회 자 : 지금까지 세 분의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최근 동향과 정책을 들어 봤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해당 교육 전문가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 사 A : 제가 교육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했어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 학생은 교우 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는 반면, 일부 학생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중략)…

교 사 B : 강연 중에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도 강조하셨는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실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할 때 교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점을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 C : 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야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 사 D : 강연을 듣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 E : 네. 예를 들어, 평가 유형으로는 능력차조평가를, 검사 방법으로는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omputer Adaptive Testing : CAT)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능력적응검사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방법에서 더 발전된 특성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오늘 소개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교 사 F : 그렇다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면 학교 내에서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전문가 G :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략)…

## 배점

###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교사 A의 궁극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각 1가지 [3점]
-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1가지,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 3가지와 유형별 서로 다른 기능 각 1가지 [4점]
- 전문가 E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2가지,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omputer Adaptive Testing)의 특성 2가지 [4점]
- 전문가 G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위원 3주체, 이러한 3주체 위원 구성의 의의 1가지,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각 1가지 [4점]

###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할'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 출제경향

- 전반적으로 개념의 활용이 중심이 되는 문제
- 익숙한 개념을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접근하여 현장에서의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었음
- 일부 영역은 제시문 내용과 배점 발문의 모호함으로 인해 문제 해석과 접근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음
-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채점 방향에 따라 점수대가 결정될 수 있음
- 교육과정 : 잠재적 교육과정을 찾고, 개념을 활용하여 목표, 내용구성, 평가계획의 방안을 서술. 잠재적 교육과정을 찾는 것과 개념을 연계하여 서술하면 되는 항목
- 교수이론 및 공학 : 제시문 내용과 배점 발문 자체에 모호함이 있어 채점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일반적 사항으로 접근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 유형 확인은 이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 부분이나, 발문 자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채점 변수가 높음
- 교육평가 : 능력차별평가와 컴퓨터 능력적응검사의 개념을 활용하여 유의점과 특성을 서술하는 항목. 각 평가 유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
- 교육행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세부 요소와 의의, 활용을 확인. 이번 시험에서 가장 쉽게 출제된 항목
- 영역별로 채점 방향이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해당 개념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였는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듯. 이런 경우, 개념 연계 서술이 중요. 채점자 변수가 생각보다 클 수 있음
- 큰 공부 방향은 주요 영역 전반의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도 병행해야 함



<p>서론</p>	<p>학생들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교육에 대한 요구도 다채로워지고 있는 지금, 개별 학습자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필요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수전략,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p>
<p>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각 1가지 [3점]</p>	<p><b>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b> : 잠재적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와 다른 결과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당함          - 잠재적 교육과정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을 뜻함</p> <p><b>잠재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 설정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1가지[1점]</b>          - 교육과정이 의도와 다른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주의해야 함          -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함</p> <p><b>잠재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 구성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1가지[1점]</b>          - 교육 내용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여러 관점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교육 내용을 조직해야 함          - 특정 내용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적게 가르치는 등의 교육 내용 구성 방식 자체가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 내용을 균형적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해야 함</p> <p><b>잠재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1가지[1점]</b>          - 의도하지 못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해 탈목표평가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기는 규준참조평가와 같은 평가방식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평가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준거참조평가나 성장참조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p> <p><b>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b>          - 교사가 모든 학습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잠재적 교육과정까지도 신경쓸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한다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p>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1가지,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 3가지와 유형별 서로 다른 기능 각 1가지 [4점]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1가지[1점]**

-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대면적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즉각적인 피드백, 동기유발을 시행하기 어려움
- 온라인 수업에서는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온라인 수업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수업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
-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 정도에 따라 수업 참여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상호작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 유형 3가지와 유형별 기능 1가지**

-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1점] : 동료학습자와 수업 내용 및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 동료학습자와 학습활동에 대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음. 동료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음. 동료학습자의 수행과 자신의 수행을 비교하여 자신의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할 수 있음
-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1점] : 교수자를 통해 수업 내용 및 진행에 대한 안내 및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음. 교수자가 수업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음
- 학습자-내용 상호작용[1점] :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활동이 가능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할 수 있음

**(고려사항)**

- 실시간/비실시간, 쌍방향/단방향(일방적) 온라인 수업 형태에 대한 고려
- 줌(zoom), 온라인 게시판, 패들렛(padlet), 메타버스(metaverse) 등과 같은 여러 온라인 수업 기술에 대한 고려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기른다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가 E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2가지,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omputer Adaptive Testing)의 특성 2가지 [4점]

**능력참조평가**

-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느냐에 초점을 두는 평가

**능력참조평가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2가지[2점]**

-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 능력참조평가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된 후 능력참조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사전 능력측정을 정확히 해야 능력참조평가가 의미를 가지므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
- 능력참조평가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능력의 정확한 측정치에 의존하게 되므로 해당 능력에 제한되어 학습자의 수행을 해석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의 결과를 다른 부분에 까지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됨

전문가 E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2가지,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적응검사 (Computer Adaptive Testing)의 특성 2가지 [4점]

- 평가결과가 민감하게 활용되는 고부담평가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부적합하므로, 평가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함
- 능력참조평가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한 정도를 측정하여 개별화된 평가가 가능하나, 그러한 능력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칫 학생의 능력을 고정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함

#### 컴퓨터 능력적응검사

-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생의 수준에 따라 치르는 검사의 난이도가 달라져서 각 개별 학생의 능력 수준에 맞는 문제로만 구성된 검사

#### 컴퓨터 능력적응검사의 특성 2가지[2점]

- 학생 개인의 수준에 따른 문항으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어 개인별 맞춤형 평가가 가능
- 피드백 역시 학습자 수행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피드백 제공이 가능
- 측정의 정확성 : 컴퓨터 능력적응검사는 피험자에게 의미있는 문항을 선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모든 피험자의 능력을 같은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측정의 효율성 : 피험자에게 의미있는 문항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거사를 실시할 수 있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검사 실시에 따르는 경비절감에도 기여
- 측정 오차 감소 : 피험자의 능력에 맞는 문제를 제시하여 동기를 유발시키고 사기를 높여 검사상황에서 유발되는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음

#### (고려사항)

- 컴퓨터 활용검사의 장점을 서술한 경우, 채점 방향에 따라 점수 부여 여부가 결정될 것

####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 개별 학습자의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능력참조평가와 학습자의 수행 수준에 따라 평가 문항이 개인화되는 컴퓨터 능력적응검사를 활용한다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평가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 G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위원 3주체, 이러한 3주체 위원 구성의 의의 1가지,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각 1가지 [4점]

####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위원 3주체[1점]

- 학부모 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사람 중,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해 선출
- 교원위원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당해 학교 재직 교원 중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 학교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람 중 선출

#### 이러한 3주체 위원 구성의 의의 1가지[1점]

-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포함된 위원 구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천이 가능
- 학교교육 및 경영의 관련자가 모두 학교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학교 경영의 민주화에 기여

<p>전문가 G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 위원 3주체, 이러한 3주체 위원 구성의 의의 1가지,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각 1가지 [4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포함된 위원 구성을 통해 보다 책무성 있는 학교 교육 구현이 가능</li> <li>- 다양한 입장과 각각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결정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li> </ul> <p><b>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 1가지[1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의 핵심적 주체인 학생의 의견을 학교교육 전반에 반영할 수 있어 학생 중심적 교육 실천이 가능/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구현이 가능/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음</li> <li>- 학생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통해 창의적인 학교 경영이 가능</li> <li>- 학생들의 민주적 태도, 참여적 시민의식 향상이 가능</li> <li>- 민주적 학교풍토 형성 가능</li> </ul> <p><b>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역기능 1가지[1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생의 의견이 무분별하게 반영될 경우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됨</li> <li>- 다양한 학생 의견 반영에 따른 학교 행정 및 경영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간 및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음</li> </ul> <p><b>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학교경영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다양한 교육적 주체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i> </ul>
<p>결론</p>	<p>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먼저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주제로 잠재적 교육과정의 여러 측면과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구체적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능력참조평가와 컴퓨터 능력적응검사의 세부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요소를 정리하였다. 모든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이 중요한 최근 교육 환경에서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여러 방면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 \* 잠재적 교육과정의 세부 요소, 의의 등은 7~8월 문제풀이 강의, 9~11월 모고에서 확인하였고, 전체 강의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 \* 이러닝(블렌디드 러닝)의 상호작용 유형은 이론 교재와 9~11월 모고 자료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 \* 능력차조평가는 1~2월 모고, 7~8월 문제풀이 강의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 \* 컴퓨터 능력적응검사는 7~8월 모고, 9~11월 모고에서 컴퓨터 기반평가 / 컴퓨터 이용검사를 확인하며 두 검사 개념을 비교 설명하며 여러 번 강조하였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꾸준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1~2월 형성평가를 통해 확인하였고, 의의는 7~8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확인하였고, 전체 강의에서 강조한 사항입니다.

## 1 교육과정

### 잠재적 교육과정 관련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최 교사 : (전략)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생활 중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요소들이 소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최 교사의 발언을 참고하여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학습경험 선정 원리를 2가지 설명, 잭슨(Jack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체적 사항을 2가지 제시** [4점]
- 잠재적 교육과정 세부 사항 확인

#### [7~8월 실전모의고사반 '논술완성' 문제 중]

B 교사 :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지만, 그러한 운영 과정 속에서도 **원래 의도와 다르게 좋지 못한 것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와 다르지만,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배우는 경우도 있겠지요.** 교사 입장에서는 원래 의도한 교육과정과 그렇지 않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B 교사의 발언에 근거하여, 원래 의도한 교육과정의 특징을 2가지 서술하고, **그와 반대되는 교육과정을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서술** [4점]
- 잠재적 교육과정 실천 방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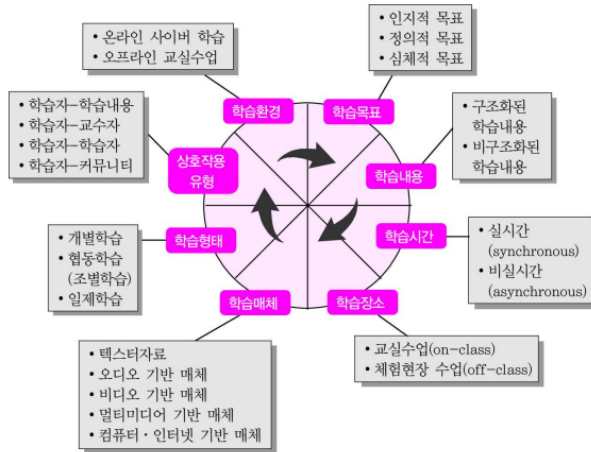
## 2 교수이론 및 공학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자료 중 / 이선화 교육학 기본서 하권]

<관련자료>

### 블렌디드 러닝 (계속)

④ 블렌디드 러닝의 영역과 요소(임정훈 외, 2003)



3

→ 이러닝의 상호작용 유형 자료 확인

## 3 교육평가

### 능력참조평가 관련

[7~8월 실전모의고사반 '논술완성' 문제 중]

#### [상찰일지]

평가 역시 관점을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기준이 학생 개인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면 교육을 통한 성장과 **학생 개인의 노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서열이나 목표 중심의 평가가 아닌 **개인의 능력 수준이나 시작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에서 강조한 **평가유형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점 하나씩 제시** [4점]

→ 능력참조평가의 개념과 장점 확인

## [1~2월 기본이론반 모의고사 중]

(전략) 최근 상대적 서열보다는 교과목의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학생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진 평가를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평가방식이 가진 장점 1가지와 단점 2가지를 설명하고, **김 교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1가지 제시** [4점]
- **규준참조평가의 대안으로 능력참조평가 확인**

### 컴퓨터 능력적응검사 관련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교사 B : 평가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자주 시행하는데요, 여러 장점이 있는 평가인 만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요. **종이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서 화면에 제시된 문제에 반응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 교사 B가 강조한 수행평가의 장점 2가지, **컴퓨터 이용 검사(Computerized Testing)의 장점 2가지** [4점]
- **컴퓨터 이용 검사의 장점을 확인하며,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AT)와 비교하여 강조**

## [7~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중]

B 교사 : (전략) 그리고 최근 국가 수준의 성취도평가를 종이 평가지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방식이 기존의 평가와 비교하여 가지는 여러 특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B 교사가 언급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신뢰도 향상 방안 2가지, **컴퓨터 기반 평가의 장점 2가지** [4점]
- **컴퓨터 기반 평가의 장점을 확인하며, 컴퓨터 능력적응검사(CAT)와 비교하여 강조**

## [이선화 교육학 기본서 하권]

### 컴퓨터이용 개별적응검사(CAT :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 ①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생의 수준에 따라 치르는 검사의 난이도가 달라져서 각 개별 학생의 능력 수준에 맞는 문제로만 구성된 검사
- ② 문제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우수한 학생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이 문제를 맞히면 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틀리면 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함. 이런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대체로 어려운 문제들만을 풀게 되고, 능력이 낮은 학생은 대체로 쉬운 문제들만을 풀게 됨
- ③ 장점
  - ㉠ 측정의 정확성
  - ㉡ 측정의 효율성
  - ㉢ 수시 평가 가능
  - ㉣ 동일한 오차 수준으로 측정이 가능
  - ㉤ 검사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검사 전략 채택이 용이
- ④ 제한점
  - ㉠ 초기에 많은 비용이 필요
  - ㉡ 공학적 기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 ㉢ 화면에 제시하는 것이 제한됨
  - ㉣ 컴퓨터 채점의 제한성
  - ㉤ 새로운 오차 발생 가능성



→ 1~2월, 3~4월 이론 강의에서도 컴퓨터 능력적응검사 개념 및 관련 사항 확인

## 4 교육행정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 [7~8월 실전모의고사반 '논술완성' 문제 중]

마지막으로 개별적 학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보다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학교 경영풍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증진 유도가 필요하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2가지 서술**하고,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제시 [4점]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확인



[1~2월 기본이론반 형성평가 16회차 문제 중]

41.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모두 쓰세요.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3주체 확인



[이선화 교육학 기본서 하권]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구성

학부모 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사람 중,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해 선출	40~50%
교원위원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당해 학교 재직 교원 중 투표로 선출	30~40%
지역위원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 학교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중 선출	10~30%

㉡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

학생 수	학운위 정원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200명 미만	5~8명	2~4명	2~3명	1명
200~1,000명 미만	9~12명	4~6명	3~4명	1~3명
1,000명 이상	13~15명	6~7명	4~6명	2~4명

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권한, 임무

㉠ 자격

- ㉡ 학부모 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가 재학하고 있어야 함
- ㉢ 교원위원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누구든 선출을 통하여 위원이 될 수 있음. 기간제 교사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음
-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⑥ 교육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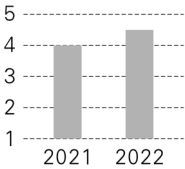
- ㉠ 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 ㉡ 학교운영주체들의 책무성 강화
- ㉢ 학교교육의 효율성·전문성 증진
-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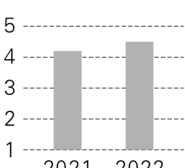
## 2023학년도 기출문제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작성한 ‘학교 운영 자체 평가 보고서’ 중 전년도에 비해 학교 교육 만족도가 높아진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의 일부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서술식 응답, 분석 내용을 읽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이라는 주제로 교수전략, 교육평가, 교육과정, 학교 조직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내용						
<p>Q. 수업 내용과 과제의 수준이 적절하다. (* 5점 리커트 척도)</p> <table border="1"> <caption>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Q. 수업 내용과 과제의 수준이 적절하다.)</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만족도</th> </tr> </thead> <tbody> <tr> <td>2021</td> <td>3</td> </tr> <tr> <td>2022</td> <td>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자신이 생겼어요.</li> <li>• 공부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는 연습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li> </ul>	연도	만족도	2021	3	2022	4	<p>수업 내용과 과제의 수준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는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자기조절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를 실행하도록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향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적절한 교수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자기조절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로 나아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연도	만족도						
2021	3						
2022	4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내용						
<p>Q. 학교에서 시행하는 평가는 적절하다. (* 5점 리커트 척도)</p> <table border="1"> <caption>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Q. 학교에서 시행하는 평가는 적절하다.)</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만족도</th> </tr> </thead> <tbody> <tr> <td>2021</td> <td>3</td> </tr> <tr> <td>2022</td> <td>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중 퀴즈, 질문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어요.</li> <li>• 시험 문제가 수업에서 배운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li> </ul>	연도	만족도	2021	3	2022	4	<p>수업 진행 중에 퀴즈, 질문과 같은 형성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한 점이 학생들의 평가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이 이러한 평가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성평가에 대해 잘 설명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한편 학생 의견 중 검사의 타당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기고사에서의 평가 방법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평가 문항 개발 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점검하여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p>
연도	만족도						
2021	3						
2022	4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내용
<p>Q. 학교 교육과정이 잘 편성·운영된다. (* 5점 리커트 척도)</p>  <p>2021 2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아이가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어요.</li> <li>• 학문적 지식을 좀 더 많이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li> </ul>	<p>우리 학교에서는 듀이(J. Dewey)의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하여 과목을 다양화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점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학생들이 지식에 더 중점을 두고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교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학년도에는 학문적 지식을 강조한 브루너(J. Bruner)의 교육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방안을 보다 체계화하여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할 것이다.</p>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내용
<p>Q. 학교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5점 리커트 척도)</p>  <p>2021 2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학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li> <li>• 학교 구성원 간의 약속이 더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li> </ul>	<p>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학교의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루어낸 성과였다. 이는 교사의 서술식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에 충실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고, 학교 구성원 간 공동의 약속이 준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중 하나인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잘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칙과 규정’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여야 할 것이다.</p>

## 배점

###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평가 보고서에서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교수전략 2가지, 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의 지원 방안 2가지 [4점]
-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형성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평가 보고서에서 제안한 타당도의 명칭과 이 타당도의 확보 방안 1가지 [4점]
- 평가 보고서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2가지,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의 교육내용 선정·조직 방안 2가지 [4점]
-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중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미치는 순기능 2가지, 역기능 1가지 [3점]

###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 출제경향

-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 확인 중심의 약한 활용 문제
- 주요 영역의 주요 사항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확인하고, 가볍게 활용하는 문제
- 제시문 형태가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제시문 내용과 요구 사항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았음
-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으며, 채점 방향에 따라 점수대가 결정될 수 있음
- 교육심리: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사항을 정확히 연계하고, 반두라의 자기조절능력 구성 요소의 구체적 활용 사항을 제시해야 함. 두 사항 모두 반두라의 이론에 근거하여 활용 방안을 서술해야 함
- 교육평가: 교사 입장에서 형성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결국 형성평가의 기능, 역할을 활용하여 서술할 수 있음. 타당도 확인 쪽은 학생의 의견에 근거하여 사례 분석 필요
-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점은 기본 사항 인출. 브루너의 학문중심 교육과정 역시 내용 선정 및 조직 원리의 인출에 해당함
- 교육행정: 관료제 전반의 순기능, 역기능이 아니라 관료제 특징 중 '규칙과 규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명확히 서술해야 함. 인출 성격의 문제
- 키워드 중심의 채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키워드가 애매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충실하면 점수 부여 가능성 있음
- 문제에서 의도한 이론에 맞게 접근하였는가가 중요할 것
- 큰 공부 방향은 기본적으로고도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잡아야 함

<p>서론</p>	<p>학교의 역할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도 점점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의견을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면 학교 교육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이라는 주제로 교수전략, 교육평가, 교육과정, 학교 조직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p>
<p>평가 보고서에서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교수전략 2가지, 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의 지원 방안 2가지 [4점]</p>	<p>평가 보고서에서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요인 : 숙달 경험, 대리 경험</p> <p><b>숙달 경험에 따른 교수 전략 1가지[1점]</b> : 자신의 성취경험(과거 수행) 연계          - 학생이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과제난이도나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함</p> <p><b>대리 경험에 따른 교수 전략 1가지[1점]</b> : 대리 경험(본보기 보이기) 연계          - 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 모델들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를 제공하여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도록 함</p> <p><b>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의 지원 방안 2가지[2점]</b> : 진행점검(자기관찰), 자기평가(자기판단), 전략사용(자기반응) 연계          - 진행점검 지원 방안 : 목표 도달을 위해 필요한 세부 활동들을 학생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돕거나, 체크리스트 작성 방안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음          - 자기평가 지원 방안 :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 방안을 안내해야 함. 성찰노트 작성과 같은 자기평가 도구를 안내할 수 있음          - 전략사용 지원 방안 : 학습목표 도달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전략을 안내해야 함</p> <p><b>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b>          - 논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을 증진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p>

<p>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형성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평가 보고서에서 제안한 타당도의 명칭과 이 타당도의 확보 방안 1가지 [4점]</p>	<p><b>형성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가지[2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성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알려주어, 학생이 자신의 현재 성취 사항과 장·단점 등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음</li> <li>- 형성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곤란 사항을 확인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음</li> <li>- 형성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 개인별 학습능력에 따른 개인별 학습 진행을 조력할 수 있음</li> <li>- 형성평가의 효과를 학생들이 느끼며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음</li> </ul> <p><b>보고서에서 제안한 타당도 명칭[1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성 요소 중 교수타당도</li> <li>- 교수타당도는 평가가 교수-학습 중에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포함하고 있는가를 뜻하는데, 시험 문제가 수업에서 배운 것과 약간 다른 것 같다는 학생의 의견은 교수타당도와 관련되어, 내용타당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li> </ul> <p><b>내용타당도 확보 방안 1가지[1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원분류표를 작성하고 이게 근거하여 문항을 출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목표를 기초로 이원분류표를 만들거나, 검사문항에 기초하여 이원분류표를 만들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음</li> </ul> <p><b>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학교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형성평가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고, 타당도 높은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li> </ul>
<p>평가 보고서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2가지,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의 교육내용 선정·조직 방안 2가지 [4점]</p>	<p>평가 보고서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 :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p> <p><b>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2가지[2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촉진할 수 있음</li> <li>- 생활의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음</li> <li>- 협동학습 속에서 대인관계 능력, 민주적 태도,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음</li> <li>-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분석력, 문제해결력 함양 가능</li> </ul> <p>학교 교육과정 보완을 위해 제안한 브루너의 교육과정 이론 : 학문중심 교육과정</p> <p><b>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교육내용 선정 방안[1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의 구조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해야 함 :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아이디어, 기본 개념, 원리 등에 해당하는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당 학문의 중요 내용을 교육내용을 선정해야 함</li> </ul>

	<p><b>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교육내용 조직 방안[1점]</b></p> <p>-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내용을 조직해야 함 : 연령에 상관없이 지식의 구조, 즉 교과와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되, 그것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번역하고 계열적으로 조직하여, 동일한 교육내용이 학교와 학년에 따라 깊이는 깊어지고, 폭은 넓어지는 교과 조직 형태로 교육내용을 조직해야 함</p> <p><b>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b></p> <p>- 학생들의 활동과 참여가 많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았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다양하고 균형잡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교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p>
<p>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중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미치는 순기능 2가지, 역기능 1가지 [3점]</p>	<p><b>관료제 이론 특징 중,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미치는 순기능 2가지[2점]</b></p> <p>- 계속성 확보 : 의도적으로 확립된 '규칙과 규정'을 통해 활동이 계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음. 과업수행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p> <p>- 안정 및 통일성 제공 : 구성원들의 행동에 있어 통일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p> <p><b>관료제 이론 특징 중,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미치는 역기능 1가지[1점]</b></p> <p>- 조직의 경직성 : 규정에 따른 복종은 조직을 경직되게 하여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함. 융통성이 없음</p> <p>- 목표 전치(전도) : 지나치게 규칙에 집착한 나머지 규칙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목적보다 규칙을 더 중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p> <p><b>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b></p> <p>-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안정적인 학교 조직 운영은 교사들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두루 살펴 안정적이면서도 융통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p>
<p>결론</p>	<p>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을 주제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수전략과 자기조절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피고, 형성평가 활용 방안과 타당도 확보 방안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 방식을 파악하고, 관료제 이론의 규칙과 규정이 지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p>

# 교육학 논술 적중자료

- \*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와 자기조절 세부 활동은 9~11월 모고에서 문제로 확인하였고, 그 외 전체 강의에서도 모고 문제를 통해 꾸준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 \* 형성평가 활용, 가치, 필요성 등도 9~11월 모고에서 문제로 확인하였고, 그 외 전체 강의에서도 모고 문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 타당도, 내용타당도도 9~11월 모고에서 문제로 확인하였고, 그 외 전체 강의에서도 꾸준히 다루었으며, 교수타당도는 원데이 특강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 \*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세부 사항 역시, 9~11월 모고 문제로 확인하였고, 나머지 강의에서도 모고 문제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 관료제 이론 특징 중 '규칙과 규정'은 9~11월 모고에서 동일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규칙과 규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술하는 문제를 그대로 연습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 강의에서도 꾸준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3

## 1 교육심리

### 자기효능감 관련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 학생심리 이해 및 지도

- 학생의 전 인간적 성장을 위해 학업과 생활 측면을 모두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학업 동기 측면에서 주어진 과제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후략)

- 학생심리 이해 및 지도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두라(Bandura)의 학업동기 개념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동기 개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1가지 제시, 이어서 언급된 상담이론 활용 시 사용 가능한 기법을 2가지 제시[4점]

→ 반두라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 확인



## [1~2월 기본이론반 모의고사 중]

(전략) 그리고 학습 동기와 관련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활용하려고 해.

- 김 교사가 언급한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한 좋은 학습과제의 성격을 설명하고, 반두라(Bandura) 이론에 근거한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 2가지 설명[3점]

→ 반두라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 확인

## [7~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중]

(전략)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동기가 낮은 편이었는데, 특히 자신이 공부를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나 믿음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겠다.

-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부의 이유 2가지를 데시와 라이언(Deci & Ryan)의 동기조절 유형에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고, 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동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반두라(Bandura)의 동기이론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4점]

→ 반두라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 확인

### 자기조절 관련

## [9~11월 실전문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 C 교사

-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
  - 학생들은 학습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자기조절적 태도를 가지고 학습에 임해야 함
  - 자기조절적 태도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

- 반두라(Bandura)의 이론에 근거하여 C 교사가 제안한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을 학습에 활용하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을 2가지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의 특성을 2가지 설명[4점]

→ 자기조절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안내, 지원을 확인

## [5~6월 기출문제풀이반 모의고사 중]

학생 C : 수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고 다양하면 수업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특히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에 따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니,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할 때에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그러한 자기주도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해요.

- 학생 C의 의견을 읽고,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의 참여를 유발하는 주제의 특징을 2가지 설명, 반두라(Bandura)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이 궁금해 하는 자기주도적 능력의 구성요소를 2가지 제시[4점]

→ 자기조절 구성 요소 확인

## 2 교육평가

### 형성평가 관련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전략) 그리고 평가 방법 중에서 학생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 중 형성평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 김 교사의 평가에 대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스크리븐(Scriven)의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2가지를 제시하고, 형성평가 문항 출제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서술[4점]

→ 형성평가 활용 문제 확인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 <과정중심평가의 활용>

- 과정중심평가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여 계획, 실행하고 평가의 대상을 학습의 결과에 대비된 학습자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과정을 타당하고 의미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시하고, 평가 후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돕고 수업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형성적 평가 목적을 강조하는 평가를 뜻함
- 과정중심평가는 형성평가와 성장참조평가의 성격을 가짐

- 교육평가 정리 사항 중, 과정중심평가가 형성평가와 성장참조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를 각각 서술하고, 과정중심평가 시행 시 객관도와 실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각 1가지씩 제시[4점]

→ 형성평가 기능 활용하여 확인

### [7~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중]

다음 학기부터는 형성평가를 꼭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성평가를 잘 활용한다면, 학업성취도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후략)

- #3의 내용을 읽고, 형성평가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이유를 2가지 서술, 모둠활동에 대한 동료평가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2가지 제시[4점]
- 형성평가 기능 활용하여 확인

### 내용타당도 관련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박 교사: 그리고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나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가의 모든 양호도 측면을 살펴 봐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타당도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타당도 중에서도 특히 신경 써야 할 타당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수행평가의 장점 2가지, 박 교사가 강조하는 타당도의 명칭과 확인 방안 1가지[4점]
- 내용타당도 확인

### [7~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중]

박 교사: 교수활동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합니다. 최근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취목표의 달성여부, 달성정도를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정련된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연 문항 하나하나가 원래 평가하고자 했던 대상 자체를 충실하게 확인해주는 문항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도록 해야 합니다. (후략)

- 박 교사의 발언과 가장 관련되는 타당도의 유형을 찾고 구체적 증진방안 제시, 제시된 그림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과 변별도가 가장 낮은 문항을 확인하여 제시[4점]
- 내용타당도 사례 분석 및 증진 방안 확인

### 3 교육과정

#### 경험중심 교육과정 관련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전략) 이와는 다른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으로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는 교육과정 유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듀이(J. Dewey)는 경험, 특히 반성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학생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A 교사 발언에서 확인 가능한 과거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1가지씩 제시하고, 그와 다른 교육과정으로 언급된 교육과정의 실행방안 1가지[3점]

→ 경험중심 교육과정 사례 분석 및 활용

##### [5~6월 기출문제풀이반 예상문제 중]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장단점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시오.

→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단점 확인

#### 학문중심 교육과정 관련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용과 조직에 대한 관심〉

- 단순한 사실들이나 잡다한 현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과 현상을 관련짓고 체계화할 수 있는 개념과 원리를 가르쳐야 함. 이러한 교육내용은 각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와 관련됨
- 이러한 내용은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음

- 교육과정 정리 사항 중,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을 가르쳤을 때의 장점을 2가지 서술하고, 나선형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3점]

→ 내용 선정으로서의 지식의 구조, 내용 조직으로서의 나선형 교육과정 그대로 확인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먼저 교육과정에 있어 각 학교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실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학교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식의 구조(Structure of Knowledge)'를 중시하며, 보다 뛰어난 학업성취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성취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학생 학업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 방식을 2가지 서술하고, '지식의 구조'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사고 유형과 학습동기를 각각 설명[4점]

→ 지식의 구조 확인

## [1~2월 기본이론반 모의고사 중]

그리고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수업에서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구조' 이론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후략)

-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지식의 구조' 이론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했을 때의 의의를 2가지 설명, 행동목표 외에 아이즈너(Eisner)가 추가로 제시한 목표유형 2가지를 각각 설명[4점]

→ 지식의 구조 확인

## 4 교육행정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모의고사 중]

최 교사: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학교 조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학교 조직은 관료제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칙과 규정'이라는 관료제의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규칙과 규정'에 의한 조직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 최 교사의 발언에서 언급된 관료제적 특성 중 '규칙과 규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서술하고, 비공식 조직 활용의 장점을 1가지 제시[3점]

→ '규칙과 규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확인하는 출제 사항과 동일하게 확인

## 2022학년도 기출문제

다음은 ○○ 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한 교사가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연수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 김 교사: 송 선생님, 제 특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올해 우리 학교에 발령받아 오셨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 송 교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김 선생님의 특강을 들어 보니 이전 학습내용과 다음 학습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수직적 연계성도 중요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시는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김 교사: 그럼요. 제가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을 보내 드릴테니 보시고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육 활동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학기 초에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 송 교사: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총평(assessment)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 보려 합니다.
- 김 교사: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학기 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 송 교사: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전략을 개발해야 하는데 딕과 캐리(W. Dick & L. Carey)의 체제적 교수설계모형을 적용하려고 해요. 이 모형의 교수전략개발 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교수전략이 무엇인지 생각 중이에요.
- 김 교사: 네, 좋은 전략을 찾으시면 제게도 알려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 보니 일부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껴더군요.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를 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학습 활동을 정리해 올려 두었어요.
- 송 교사: 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활용할게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좋네요. 선생님들 간 활발한 정보 공유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 김 교사: 네.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해요. 이를 위해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 배점

###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2가지, 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2가지 [4점]
- 송 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제시, 송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2가지를 각각 그 이유와 함께 제시 [4점]
- 송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할 교수전략 2가지 제시, 송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2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 [4점]
-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1가지,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2가지 [3점]

###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 출제경향

- 교육학의 기본 개념을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며, 의미를 찾는 적용문제
- 특정 개념의 암기 인출이 주가 아닌,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분석 능력 및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화되고 있음
- 시험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며, 점수대는 채점 방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 교육과정 : 제시문에 기본 개념과 답안 작성의 방향에 제시되어 있어, 제시 내용과 조건에 부합하는 서술을 하면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교육평가 : 진단평가 자체가 아닌 총평의 실행 방안을 서술해야 하며, 학생 간 비교가 아닌 평가의 기준을 타당하게 제시하면 됨
- 교수이론 및 공학 : 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의 교수전략개발 단계의 세부 사항은 이론 인출에 해당하며 고립감 해소 방안을 조건에 맞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교육행정 : 학교 중심 연수 종류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 간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서술하면 되고, 이어지는 사항은 먼저 서술한 사항과 독립적으로 채점될 가능성 높음. 학교 중심 연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은 조건에 맞으면 됨
- 답안 서술 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술이 중요함
- 열린 답안이 가능한 항목들은 점수 부여의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문제의 조건이 명확한 항목들은 채점 기준이 엄격해지면 감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결국 채점 방향과 기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 이후 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학교 상황 및 문제 조건에 맞는 유연한 답안 서술이 중요한 공부의 방향이 되어야 함



<p>서론</p>	<p>학교 교육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커지는 최근,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인 만큼,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교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교원연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p>
<p>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2가지, 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2가지 [4점]</p>	<p><b>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2가지 [2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나중의 학습 출발점이 그 이전 학습의 종결점과 잘 맞물리도록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li> <li>- 후속 학습의 선행 요건이 되는 선행 학습을 보장할 수 있어 학생의 성취도 달성에 도움이 됨</li> <li>- 선행 학습과 후속 학습의 격차가 적어서 큰 난이도 차이 없이 학습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학습에 대한 동기가 올라간다)</li> <li>- 학습 결손을 줄일 수 있음</li> <li>-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 간 전이가 용이</li> </ul> <p><b>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2가지 [2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건 모두 고려 : 수직적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범위와 계열의 개념을 활용하여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위 : 적절한 수의 단원 선정 및 시수 배정의 문제. 이전 학기의 학습 내용과 자연스럽게 교과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충이 필요한 단원의 경우 추가자료를 보충하여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지도 시수를 늘리고, 과도하게 분량이 많거나 불필요한 사항이 많은 단원은 내용을 줄이고 지도 시수를 줄일 수 있음</li> <li>- 계열 : 단원 순서 조직의 문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뒤에 배열되어 있다면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앞으로 배치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단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li> </ul> </li> <li>2) 조건 일부 고려 : 수직적 연계성과 관련짓지 않고 범위와 계열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서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위 : 과도하거나 과소한 단원 내용과 시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li> <li>- 계열 : 학생들의 수준과 교과 내용의 구조에 근거하여 단원 순서를 재조정</li> </ul> </li> <li>3) 조건 고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참여 중심으로 단원을 재구성</li> <li>-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단원을 재구성</li> <li>- 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단원 시수 등을 재구성</li> </ul> </li> </ol>



	<p><b>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있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가능한 만큼, 여러 교사들이 가진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활발히 공유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li> </ul>
<p><b>송 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제시, 송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2가지를 각각 그 이유와 함께 제시 [4점]</b></p>	<p><b>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2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개인의 행동 특성을 특별한 환경, 과업,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의 전인적 평가</li> <li>- 관찰 :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모든 부분들을 교사가 관찰하여 학생의 전인적 측면을 진단</li> <li>- 구술 : 학생이 직접 학업성취와 관련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구술시험을 통해 지식과 그 외의 다양한 측면을 진단</li> <li>- 면접 : 학생과의 면접/면담을 통해 학업성취 외의 다양한 측면을 진단</li> <li>- 지난 학기, 지난 학년의 생활기록부 :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학생을 진단</li> <li>-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와 투사적 심리검사 : 학생의 심리적, 동기적 측면을 진단</li> <li>- (다양한 질적인 평가 방법)</li> <li>- (학교 상황과 학생이 가진 여러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학생 특성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확인)</li> <li>- (수행평가 : 실제적 수행과 과정, 태도 등을 전인적으로 진단)</li> </ul> <p><b>송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 해석 기준 2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시 [2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성취도와 과거 성취도 간의 차이,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의 정도 : 성장참조평가 연계. 학생 간 비교가 아닌 개인의 내적 기준에 근거하여 교육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여 성장하였는가를 확인한다면 기본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학습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음</li> <li>- 개인의 능력에 비추어 본 성취 수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의 정도 : 능력참조평가 연계. 개개인의 기본 능력 간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과의 비교나 목표와 비교가 아닌 개인적 능력에 기초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능력 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음</li> <li>- 학습목표에 대한 성취도/학업성취도, 학습목표 도달 정도와 여부 : 준거참조평가 연계. 통제할 수 없는 학생 간 비교가 아닌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목표 중심적인 학습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p><b>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평가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총평을 활용하여 학생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간 비교가 아닌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평가방법을 교사들이 서로 공유하여 실천한다면,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li> </ul>

송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할 교수전략 2가지 제시, 송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2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 [4점]

**송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 개발해야 할 교수전략 2가지 제시 [2점]**

- 교수 전 활동 전략/수업 전 활동 : 수업 전에 학생에게 제공할 활동에 대한 설계
- 정보제시 전략 :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학습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설계, 교수 방법에 대한 설계
- 연습 및 피드백 전략/학습자 참여/피드백이 있는 학생 참여/실습과 피드백
- 시험 전략/평가방안
- 후속 활동 전략/추후활동에 대한 전략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교수·학습 활동 2가지를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 [2점]**

- 웹기반(온라인) 협동학습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공동 작업이 가능한 패들렛(Padlet)/구글독스(Google Docs)를 활용하여 웹을 기반으로 학생 간 협동학습을 실시
- 웹기반(온라인) 팀프로젝트학습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공동 작업이 가능한 패들렛(Padlet)/구글독스(Google Docs)를 활용하여 웹을 기반으로 팀 프로젝트 진행
- 웹기반(온라인) 토론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등의 SN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토론 활동 시행
- 웹기반(온라인) 질의응답 활성화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등의 SNS 프로그램/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과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질의응답을 실시
- 온라인 성찰활동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등의 SNS 프로그램/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과 과제 활동에 대한 개인적 성찰을 서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상담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등의 SN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사가 학생과 개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논의**

- 교수방법과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급속한 최근 상황에서 이러한 측면의 교사 간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교수설계이론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 방안을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서로 나눌 수 있다면 학교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수 기술을 적용하여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p>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1가지,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2가지 [3점]</p>	<p><b>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1가지 [1점]</b>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협력적인 교사 전문성 향상 방안)  - 전문적 학습공동체(학습조직)  - 자율장학 : 동료장학, 컨설팅 장학, 임상장학</p> <p><b>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2가지 [2점]</b>  - 교사들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 경영 풍토 형성  - 학교 중심 연수에 대한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 학교 단위로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연수 방법을 개발하여 안내  - 학교 중심 연수 시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함  - 학교 중심 연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리더를 양성하고, 관련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교사 전문성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학교 경영자와 교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p> <p><b>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논의</b>  - 이렇듯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같은 학교 중심 연수가 매개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학교 중심 연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p>
<p>결론</p>	<p>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주제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의 의의와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살펴보고, 총평 실행 방안과 평가 결과의 다양한 해석 기준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설계모형의 교수전략을 찾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생 고립감 해소를 위한 학습 활동을 살펴본 후, 학교 중심 연수의 여러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학교 상황이 복잡해지고, 좋은 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 교사들이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p>

이선화 교육학  
합격 가이드

# 041

## 교육학 논술 작성의 기초

1. 논술문 작성의 기초 - 형식
2. 논술문 작성의 기초 - 내용

## 논술문 작성의 기초 - 형식

### 1 ★ 개인정보(성명, 수험번호) 기입

교육학 논술 형식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것이다. 아래는 교육학 논술 시험 답안지의 사례이다.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받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수험생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큰 문제 없이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시험을 치를 것이다. 그러나 시험이 주는 압박감 또는 긴장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를 기입하지 못하거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상황은 답안지 절반 이상을 채워놓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기입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경우이다.

개인정보 기입은 교육학 논술을 포함한 모든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답안 작성 전 필히 제대로 된 정보를 기입하였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2 ★ 논술문의 기본 형식 : 서론, 본론, 결론

논술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서론 : 주제 논의 필요성, 주제 논의 방향 제시
- 본론 : 문제 요구사항에 맞추어 각 단락별 답안 서술
- 결론 : 본론 주요내용 요약, 간략한 제언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락(문단)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한다.

#### 단락(문단)

한 편의 논술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구성되며, 이때 각 부분은 몇 개의 단락이 모여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 있는 덩어리가 된다. 보통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는 들여쓰기 및 줄바꿈을 사용하여 단락을 구분하면 된다.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하며 추가로 단락 간 1줄 비워서 글을 작성하는 것도 단락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보통 서론과 결론은 각각 하나의 단락으로, 본론은 문제 요구사항 개수에 맞추어 단락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논술문은 총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 들여쓰기와 줄바꿈

들여쓰기는 각 단락이 시작되는 첫 문장 앞을 비우는 것이고, 줄바꿈은 한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경우 새 단락의 첫 문장을 이어서 쓰지 않고 해당 문장의 우측 부분을 비운 후, 새로운 줄에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통한 서론, 본론, 결론 단락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논술문 - 서론, 본문, 결론 단락 구성 예시〉

교시		2025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1차 시험 답안지			
본인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	①②	※ 결사자 확인란(수험생은 표기하지 말 것)	
성명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 결사자 성명과 수험번호 기재 -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결사자 수험번호 쪽 번호와 우측란을 ●로 표기	
		험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 감독관 확인란(수험생은 표기하지 말 것)	
교육한 논술 전용 답안지	쪽 번호 ① ②	호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 본인 여부, 성명, 수험번호, 쪽 번호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 후 서명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 결사자는 위의 결사자 확인란에도 표기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	(서명 또는 날인)	
1. 수험번호와 쪽 번호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로 표기하시오. 2. 답안은 반드시 연필이나 사인펜이 아닌 동일한 종류의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3.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테이프(수정액)를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들어쓰기	<input type="checkbox"/> 사회 양극화 및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격차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격차란 개인의 유전적·환경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교육결과의 차이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격차를 가장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장이 학교인 만큼, 학교를 중심으로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의 노력을 주제로 교육평가, 학습동기, 교수이론, 교수평등, 학교경영의 사항을 논의하고 한다.				
서론	평가와 학생 이해는 교육의 기본적 접근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인 만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심있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다. ~~~~~ (중략) 기준참조평가 중심의 평가 환경을 변화시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를 활용하고, 학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 향상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면, 교육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input type="text"/> - 줄바꿈				
본문 단락 1	교실 수업 개선은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중략) 가네의 교수이론과 같이 효과적인 교수이론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교실 수업을 제공한다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줄어 전체적인 교육격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단락 2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중략) 학생 개인이 처한 환경의 차이도 교육격차의 큰 원인인 만큼, 결과적 평등과 같은 적극적인 평등관에				
본문 단락 3	입각하여 학교 교육을 실행한다면 교육격차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 단락 4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경영 방식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 ~~~~~ (중략) 학교 경영이 중요 사항들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경영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격차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의 노력을 주제로 기준참조평가의 한계와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을 살펴보고, 가네 교수이론을 활용하여 수업 효과성을 증진시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롤즈의 차등의 원칙과 결과적 평등의 활용 방안을 정리하고, 영기준예산제도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다. 교육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교육의 과제 중 하나이다. 교육의 여러 측면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결론					



## 들어쓰기와 준비품의 중요성

아래 네 가지 사례 가운데 누구라도 4번 사례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올 것이다. 논술문은 글을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 〈사례 1〉

먼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부터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에서 아동의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성장의 비유와 관련된다. 성장의 비유에서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의 비유는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과의 중요성을 자칫 과소평가하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발달을 중심에 둔 성장의 비유를 매개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 수준을 높여 우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합리적 정신의 계발과 자유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제시문의 내용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해당한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혹은 교육의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한다.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학습 자체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례 2〉

먼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부터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에서 아동의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성장의 비유와 관련된다. 성장의 비유에서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의 비유는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과의 중요성을 자칫 과소평가하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발달을 중심에 둔 성장의 비유를 매개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 수준을 높여 우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합리적 정신의 계발과 자유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제시문의 내용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해당한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혹은 교육의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한다.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학습 자체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례 3〉

먼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부터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에서 아동의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성장의 비유와 관련된다.

성장의 비유에서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의 비유는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과와 중요성을 자칫 과소평가하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발달을 중심에 둔 성장의 비유를 매개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 수준을 높여 우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합리적 정신의 계발과 자유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제시문의 내용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해당한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혹은 교육의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한다.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학습 자체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례 4〉

먼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부터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에서 아동의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성장의 비유와 관련된다. 성장의 비유에서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의 비유는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과와 중요성을 자칫 과소평가하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발달을 중심에 둔 성장의 비유를 매개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 수준을 높여 우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합리적 정신의 계발과 자유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제시문의 내용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해당한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혹은 교육의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한다.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학습 자체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 표현의 수정

생각대로 글을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논술문을 작성하다 보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논술문 작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깨끗하게만 수정하면 채점 시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자.

#### 수정의 기본은 두 줄 긋기

가장 간단하고 깨끗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로로 두 줄을 평행하게 긋고 그 위 또는 우측에 수정된 내용을 서술하는 방법이다.

보통 글을 쓰는 중에 수정하는 경우라면 우측에 새로운 내용을 계속 이어서 서술하면 된다. 글을 다 완성한 후 고치는 경우라면, 서술 공간의 부족으로 수정한 부분의 위쪽에 올바른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수정 방법 1 : 두 줄 긋고 옆에 내용 기입 / 문장을 써 내려가면서 바로 수정하는 경우〉

D교장의 발언내용에 해당하는 예산편성기법은 ~~기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이다.

〈수정 방법 2 : 두 줄 긋고 위에 내용 기입 / 문장을 완성한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

영기준예산제도이다

D교장의 발언내용에 해당하는 예산편성기법은 ~~기획예산제도~~이다.

#### 수정은 어절 단위로

한 음절 또는 한 단어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도 어절 단위로 두 줄을 긋고 내용을 수정해야 수정된 내용이 잘 보일뿐더러 평가자가 내용을 파악하기도 용이하다.

〈음절 / 단어 단위, ×〉

A교장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과정의

C교사가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평등관은 ~~결과~~의 평등이다.

〈어절 단위, O〉

A교장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에 ~~자기주도성을~~자기주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과정의

C교사가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평등관은 ~~결과~~의 평등이다.

## 4 ★ 내용의 추가

내용을 추가할 때에도 정해진 기호를 사용, 기존에 작성한 내용에 겹치지 않게 빈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이때 끼워 넣을 내용은 아래 사례와 같이 원 문장의 위쪽에 추가를 하는 것이 좋다. 아래쪽에 추가하게 되면 다음 문장 서술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먼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부터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에서 아동의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성장의 비유와 관련된다. 성장의 비유에서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의 비유는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과와 중요성을 자칫 과소평가하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학생의 발달을 중심에 둔 성장의 비유를 매개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 수준을 높여 우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합리적 정신의 계발과 자유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제시문의 내용은 교육의 다른 것의 내재적 목적에 해당한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이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혹은 교육의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한다.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학습 자체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 맞춤법

교육학 논술 답안지는 칸이 구분되어 있는 원고지가 아닌 줄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답안지 특성상 평가자가 띄어쓰기를 정확히 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눈에 띄게 틀린 맞춤법은 감점의 대상이 되기에 교육학 논술 공부를 하면서 수시로 자신의 맞춤법에 틀린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마다 맞춤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다른 만큼, 맞춤법은 수험생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인터넷 검색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애매한 맞춤법은 항상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은 논술문 작성 시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6가지 맞춤법 활용법이다.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숙지도도록 하자.

(1) '-던(지)'과 '-든(지)'의 구분

- '-던'은 과거를 의미하는 것
- '-든'은 선택을 의미하는 것

(가) 한 달 전 만났던 스티디원이 내 사촌의 친구였대.  
 지난 주 학원에 가면서 길에서 봤던 고양이 기억이 나?  
 슬픈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이나.

(나) 이 배에 타든(지) 내리든(지) 이걸 내가 결정할 일이다.  
 이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2) '맞추다'와 '맞히다'의 구분

- '맞추다'는 나란히 두 대상을 놓고 비교하거나 제자리에 맞게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 '맞히다'는 '올게 답을 하다', '쓰거나 던진 물체가 어떤 대상에 닿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찌르다' 등의 의미이다.

(가) 너와 나의 답안을 서로 맞추어 보자.  
 분해한 기계를 다시 맞추어 놓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나) 텔레비전 퀴즈쇼에 나온 문제를 맞히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이 돌로 전깃줄에 얹아 있는 저 새를 맞혀 보자.

(3) '-함으로(써)'와 '-하므로'의 구분

- '-으로(써)'는 '~을 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의미 / 수단인 의미
  - '-(으)므로'는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 / 이유나 까닭의 의미
- (가) 내 친구는 수험 기간 동안 운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 (나) 우리 누나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므로 꼭 성공할 것이다.

(4) '-로서'와 '-로써'의 구분

- '-로서'는 자격을 의미
  - '-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의미
- (가)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교사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다.  
 페스탈로치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도 훌륭한 분이다.
- (나) 튼튼한 나무라도 도끼로(써) 여러 번 찍다 보면 결국 넘어 간다.  
 ※ '로써'에서 '써'는 생략이 가능하다.

(5) '바람'인지 '바램'인지?

- '바람'은 생각한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을 의미
  - '바램'은 본래의 색이 얼어지거나 윤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
- (가) 나의 바람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 (나) 저 웃은 산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색이 바랬네.

(6) '다르다'인가, '틀리다'인가

- '다르다'는 어떤 점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
  - '틀리다'는 계산이나 사실 등이 맞지 않다라는 의미
- (가) 우리나라는 서양 나라들과 문화가 (틀려요 / 달라요)
- (나) 시험 문제에 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본 형성평가 시간에 두 문제나 틀렸어요.

## TIP

논술문 작성 시, 본인의 맞춤법이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들면 해당 표현을 바꿔서 서술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 예 상기 (3) 맞춤법 관련

- ‘-함으로(써)’는 수단을 나타내기에 ‘-를 통해서’ 등의 표현으로,
- ‘-하므로’는 이유를 나타내기에 ‘-하기 때문에’ 등의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예 상기 (4) 맞춤법 관련 : ‘-로서’와 ‘-로써’의 구분이 애매할 경우,

- 이런 표현 또한 의미가 통하는 다른 문장으로 바꿔본다.  
※ 교사로서 → 교사라면 / 학생으로서 → 학생의 경우에는

## 6 ★ 기타 주의사항

### 문장 종결어미

문장 종결어미는 ‘-(이)다’로 서술한다. 간혹 평가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논술문 답안에 존댓말로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입)니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논술문 답안의 종결어미는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닌, 평어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C 교사가 주장하는 교육관은 평등의 교육관입니다. (×)
- C 교사가 주장하는 교육관은 평등의 교육관이다. (○)

## 논술문 작성의 기초 - 내용

★ 내용 구성의 첫 단추는 주어진 문제와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1 ★ 문제 요구사항 파악하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험에 앞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다. 그만큼 어떤 시험이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학 논술은 보통 4개의 문제가 제시되고, 각 문제당 문장의 길이가 짧지 않다. 게다가 여러 문장으로 문제가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논술에서는 문제 요구사항 파악이 중요함을 항상 염두하도록 하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개인지,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를 여러 번 천천히 읽어보아야 한다.

#### 〈사례〉

#1과 관련하여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C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1가지

위 사례는 2019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내용 배점 1번 문제)이다. 명칭, 개념, 이론에 기반한 개별 과제 및 이유 등을 물어보는 기본적인 형태의 교육학 논술 문제이다.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총 4가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답안지에 풀어쓸 수 있어야 한다.

### 2 ★ 제시문 정확히 읽기

교육학 논술 시험의 제시문은 연설문, 노트/수첩 메모, 실제 대화 상황, 일기, 신문기사, 회의록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구성 또한 도표나 도형 등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 최근 시험에서는 이메일의 형식으로 출제되기도 하였다.

간혹 이런 제시문은 짧은 시간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소 길이가 길거나 구성이 복잡하여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정독하여 관련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거나 키워드 등을 써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시문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왕도(王道)가 없다. 다양한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를 통해 제시문 형태에 먼저 익숙해져야 하며, 그 다음으로 공부부를 통해 교육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본 책자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 연도별 교육학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교육학 논술 문제와 제시문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 3 ★ 개요짜기

좋은 논술문을 쓰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의 하나로 좋은 개요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개요는 전체 글의 뼈대이며, 이러한 개요를 짜는 과정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틀을 잡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긴 글이든, 짧은 글이든 논리적인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글을 쓸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틀을 잡고 글을 쓰게 된다. 개요짜기는 절대 어렵거나, 귀찮거나, 번거로운 과정이 아니다. 개요짜기를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개요짜기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실력 향상 방법이다.

#### 개요짜기 방법

문제 요구사항과 제시문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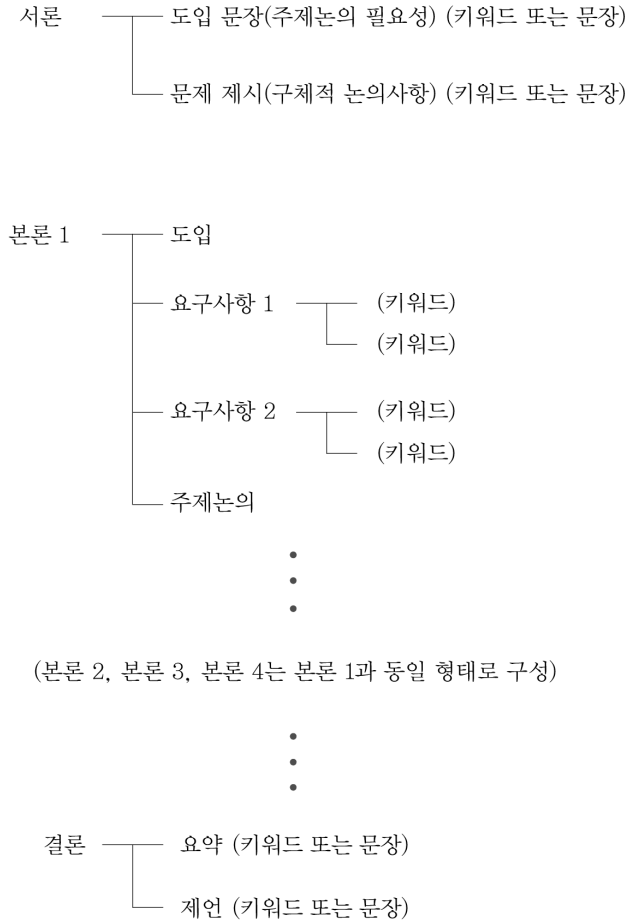
개요를 짜는 수준은 개인의 글쓰기 스타일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간략한 개조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과 문장형으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60분간 치러지는 교육학 논술 시험 시간을 고려하면 문장형보다는 개조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문제 및 제시문 파악 및 개요 작성까지 10분 내외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개요를 작성한다. 서론, 본론, 결론 각 단락별로 키워드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하되, 익숙해지면 서론과 결론은 문장으로 정리해도 된다.

※ 개요는 문제 요구사항 순서대로 구성해야 하며, 답안 작성 시에도 문제 요구사항 순서를 따라야 한다.



<개요짜기 예시 : 각 키워드(문장) 중심으로 작성>



## TIP

서론과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는지, 즉 만능 서론/결론 틀이 있는지 물어보는 수험생 분들이 많았다. 만능 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큰 틀을 머릿속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서론과 결론의 서술을 어려워하지 말고 본론 개요짜기와 서술에 집중하자.

### 서론 : 도입문장(주제논의 필요성) + 문제 제시(구체적 논의사항)

예시) 최근 ○○○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나온 주제)’

①에 대한 (교육계/사회/학교/학부모/우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는

②(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 ××××, □□□□, △△△△의 영역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 □□□□, △△△△ ← 이 영역은 문제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 됨)

사회 양극화 및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격차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의 노력을 주제로 교육평가, 학습동기, 교수이론, 교육평등, 학교경영의 사항들 논의하고자 한다.

### 결론 : 본론 주요내용 요약 + 긴박한 제언

예시) ‘○○○○○○○○○○(문제에서 나온 주제)’라는 주제로 ○○, ××, □□, △△

(각 영역별로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에 대하여 확인(살펴)보았다.

← 1~2문장으로 서술

‘○○○○○○○○○○(문제에서 나온 주제)’은

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계/사회/학교/학부모/우리) 과제이다.

②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이를 위해 (교육계/사회/학교/학부모/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의 노력을 주제로 규준참조평가의 한계와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을 살펴보고, 가네 교수이론을 활용하여 수업 효과성을 증진시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롤즈의 차등의 원칙과 결과적 평등의 활용 방안을 정리하고, 영기준예산제도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다. 교육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교육의 과제 중 하나이다. 교육의 여러 측면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인재상의 변화(창의융합인재) / 제4차 산업혁명 /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 학생 수 변화]

- 제시된 상황의 변화 요인에 집중하여,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또는 그러한 변화가 현재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를 서술
-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 부응하기 위해 /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 구체적 노력 사항으로 문제의 요구 사항을 순차적으로 제시
- ㉠ 제4차 산업혁명 :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끌었다. 초연결, 초지능을 특장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도 새로운 시대에 함께 달라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를 주제로 ~~, ~~, ~~, ~~의 상황을 논의하고자 한다.
- 예시도입) 급격히 달라지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역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 예시도입)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관, 인재상, 교육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중심적 교육 ·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 /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 교육에 있어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의 당위성, 중요성 등을 논의하며 학생중심적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논의하며 시작
- 학생이 행복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
- ㉠ 학생이 행복한 학교 :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 학생 하나하나가 학교의 주인으로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본 글에서는 ~~, ~~, ~~, ~~을 중심으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노력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예시도입) 수업을 비롯한 학교 생활 전반에 있어 학생은 항상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예시도입) 최근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사와 교수행위 중심에서 학생과 학습으로 이동하면서, 학생중심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 수준 향상** [학교 효과성 향상 / 교사역량증진]

-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 강조
- 변화하는 사회, 달라지는 인재상, 학교에 대한 요구 수준의 증가 등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노력의 이유가 될 수 있음
- ㉠ 학교 효과성 향상 :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에 한계가 없듯, 교육에 대한 기대도 끝이 없다. 이렇듯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보다 나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주제로 ~~, ~~, ~~, ~~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예시도입) 교육은 항상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 예시도입) 사회의 변화와 발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역시 항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특정 사안 중심의 접근** [STEAM 교육과정 실현 / 전인교육 추구 / 학교폭력 문제 해결 / 진로교육 / 자유학기제 / 새 교육과정 실천]

- 해당 사안의 논의 가치에 대해 설명. 보통 사안의 중요성, 의미에 대해 타당화를 하며 도입하는 것이 좋음

- 그러한 사안의 구체적 실천, 활용, 해결 등을 목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논의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 ㉠ 전인교육 실천 방안 논의 : 인간의 모든 잠재능력을 고르게 계발시키는 전인교육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자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생의 여러 측면을 충실히 발달시키고자 노력하는 전인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 ~~, ~~, ~~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예시도입) 창의융합적 인재 육성을 중시하는 최근 교육과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인 STEAM 교육과정은 융합적 인재 육성에 큰 의미가 있는 교육과정이다.
- 예시도입) 학교 교육이 공동체적 가치 회복의 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학생의 바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학교폭력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 예시도입) 학생들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예시도입) 학교를 보다 즐겁고 의미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시행은 우리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

#### 4 ★ 본론 서술 주요 사항

논술문은 일기처럼 혼자서 쓰고 혼자서 읽고 간직하는 글이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읽는 이로 하여금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하기에, 항상 읽는 이의 입장에서 내용을 충실하게 서술해야 한다. 즉, 논술문은 읽는 이를 배려하여 구체적이어야 하고, 주요한 내용이나 문장이 눈에 잘 보여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친절한’ 글이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론 서술 시에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① 각 단락별 도입은 필요한가?

도입 문장을 서술하라는 의미는 논술문의 분량을 억지로 늘리거나 특별히 세련된 글을 작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글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각 단락에서 논의할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고, 읽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의 도입 문장을 통해 이어지는 단락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주의 환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좋은 도입은 문제에서 제시한 큰 주제와 개별 단락의 논의 사항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보통 주제와 개별 논의 사항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성을 언급하며 도입할 수 있다.

도입 문장의 유무가 채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나,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한 문장 정도 작성하도록 하자.

##### ② 요구 사항에 대한 부연설명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연설명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읽는 이에게 ‘친절한’ 글이 되려면 부연설명을 통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단순히 명칭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에 본론 답안에 명칭만 쓰는 것과 명칭에 덧붙여 이와 관련된 부연설명을 서술하는 것은 읽는 이에겐 전혀 다른 수준의 답안으로 보여질 것이다.

최근 시험 경향이 단순 암기한 내용의 인출보다는 이를 활용한 방안 등을 서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답안 작성 시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덧붙여 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부연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감점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 중심으로 부연을 해야 할 것이다.

### ③ 주제논의는 필요한가?

논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쓴 글이다. 단순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서술만 하면 이는 논술이 아니라 설명글에 가까울 것이다. 현재 출제되고 있는 논술 문제의 경우, 분명한 논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완결된 한 편의 글로 서술하라는 조건을 주고 있으니, 매 단락 마무리 부분에 주제와 논의 사항을 의미 있게 연계한 논의 문장을 쓰는 것이 형식적으로 타당하다. 각 단락 마지막에 해당 단락에 서술한 주요 내용과 관련된 주제논의를 한 문장씩 서술하도록 하자.

## 5 ★ 기타 내용 관련 고려 사항

### 문제 요구사항 순서대로 내용을 기술할 것

평가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문제 요구사항 순서대로 정리된 채점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이에 논술 작성 시에는 네 가지 ‘내용 배점’의 순서대로 각 본론 단락을 차례대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론 각 단락 내용 또한 ‘내용 배점’에서 확인된 문제 요구사항의 순서대로 서술하도록 한다.

### 두괄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언급할 것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는 각 단락 앞에 배치하고 이어서 부연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 문장은 간결하게 서술할 것

교육학 논술시험은 세련되고 멋진 글을 쓰는 것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너무 세련된 문장을 지향한다거나 한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문장은 간결하게 서술하자.

### 적절한 답안의 길이는?

답안지는 총 2장 배부되는데, 정해진 답안의 길이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론, 본론, 결론의 총 6단락을 서술하게 되면 (원고지가 아니기에, 글씨 크기나 개인 서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장~1.5장 정도 분량이 나올 것이다. 답안의 길이보다는 정확한 키워드나 핵심 사항을 서술했느냐가 평가의 주요 포인트이기에 답안의 길이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자.

이선화 교육학  
합격 가이드

051

교육학 논술  
공부 계획

# 교육학 논술 공부 계획

## 1 연간 수험 계획을 잡는 것부터 시작

- 그대로 실천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교육학과 전공, 필요한 공부 사항을 연간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공부 계획은 크게는 두 달 기준으로, 세부적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 2 1월, 2월

- 이론의 기본적 토대를 다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 교육학, 전공 모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요약자료는 이 시점부터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만든다면 너무 완벽한 자료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구조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교육학은 짧은 글쓰기를 통해 가벼운 글쓰기 연습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니 작은 단위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학은 일주일에 이를 정도를 공부하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 조금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공부의 습관을 잡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을 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3 3월, 4월

- 이론을 다져나가고 **활용 연습**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 이론의 반복적 확인을 통해 이론에 익숙해지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서서히 정리와 암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1, 2월보다는 공부가 더 잘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역시 욕심은 금물입니다. 암기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잘못 이해한 사항이나, 잘못된 구조는 없는지 확인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확장해 나가며 공부하시면 됩니다.
- 짧은 글쓰기와, **활용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 공부 양이 조금씩 늘어도 좋습니다. 전공 공부 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방향성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 4 5월, 6월

- **기출문제와 영역별 문제**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키워드를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 전반부의 목표와 의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과 일정관리 등의 전반적 사항을 어느 정도 확정하면 좋습니다.
- 사람에 따라서는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될 수 있는 시점이나, 운동과 마인드 컨트롤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살려야 합니다.
- 이론을 다양한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활용하며,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쌓아 갑니다.
- **꾸준한 모의고사로** 교육학 논술에 서서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 5 7월, 8월

-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을 확인하고 문제 적용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 전공을 비롯한 전체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므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 지속적인 타인과의 비교는 스트레스만 증가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목표를 만들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학 공부 상황에 따라 교육학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 전공 공부 비중을 더 높여나가면 좋습니다.** 교육학 공부를 오전 시간대로 배치하고, 나머지 공부시간을 모두 전공 공부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점입니다.

## 6 9월, 10월, 11월

-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중심으로 시험문제와 시험 상황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 전공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전공 중심으로 공부가 진행되도록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 모든 사항들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항을 정리하고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부터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항들은 좀더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의고사 연습과 핵심 키워드 인출 연습,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확인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전체 영역을 확인하며, 중요 영역과 중요 사항에 대한 집중적 반복을 해야 합니다.

시험 공부는 **자신에 대한 긍정과 신뢰**를 통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매 순간 최선을 추구하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마음으로 **매일의 공부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험 이후 합격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루의 공부를 해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 교육학 논술 Q&A

### ❖ 어떻게 준비를 시작할까요?

논술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교육학 논술문을 써내겠다는 것은 자칫 부담 때문에 공부의 과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은 주제가 한정된 논술 평가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다루는 일반 논술은 주제의 범위가 워낙 넓어 막연한 독서와 막연한 글쓰기 훈련이 주를 이루게 되어 학습자들의 부담이 크지만, 교육학 논술은 출제 범위가 교육학으로 한정되어 비교적 다루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학 이론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글쓰기 연습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의 시작은 일단 내용의 준비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학개론’류의 교재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개론책들은 오랫동안 교육학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관련된 글을 여러 편 쓰신 연륜 있는 교수님들 여러분이 함께 쓴 결과물입니다. 글의 수준이 안정적이고 내용 역시 논리적으로 문제없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성건성 사실적 관계에만 집중하여 글을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차분히 정독하는 것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육학개론에 대한 읽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끝난 후, 다양한 이론이 집대성된 이론서와 수험서를 공부하면서 글쓰기 훈련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교육학개론 읽기부터 하세요.

### ❖ 글쓰기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논술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글쓰기입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교사로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논술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논술문을 쓰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글을 통해 잘 전달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긴 글을 연습하시기보다는 짧은 글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논술문은 명문(名文)을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명문(名文)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오류 없이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 ❖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교육학개론부터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교육학개론은 교직수업을 처음 듣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교육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전달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므로 커다란 흐름을 익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교직 수업에서 공부했던 교육학개론책은 제외하고 바로 수험서를 가지고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개론에서 시작해서 일단 가지고 계신 교육학 관련 서적들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이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때에는 순서에 맞추어 교육학 세부 영역의 이론서들을 영역별로 한 권 정도씩 읽으시면 좋습니다.

### ❖ 그 외의 유의사항

만약 글씨체 자체가 매우 나쁘다면 교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손글씨를 쓰는 일이 별로 없다보니 의외로 악필인 사람이 많습니다. 전공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최소한 채점자가 채점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주는 글씨로 글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논리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적인 오류 정도만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입 논술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다면 논술 준비를 하면서 논리학 공부, 맞춤법 공부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논술을 준비하는 것과 대학을 졸업한 후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입장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과제물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험과 다양한 전공, 교양 수업을 통해 다져진 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논술문을 쓰기 위한 논리적 사고의 기본은 갖출 수 있습니다.



### 1.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잡는다.

- 시험 일정과 다른 학습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6개월 단위의 학습 계획을 잡는다.
- 도입/학습/정리의 단계에 따라 계획을 잡는다.
- 도입단계에서는 교육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학 특유의 용어와 표현, 문법 등에 익숙해져야 한다.
- 학습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치밀한 학습이 필요하다. 자신 있는 분야와 취약 분야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정리단계에서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학습한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취약 분야와 중요 분야에 대한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노트 만들기

- 나름의 법칙과 원칙에 따라 노트를 만든다.
- 개념 위주, 관련 키워드 위주, 문제 위주, 학습순서 등
- 해당 부분의 노트는 수업 후 즉시 만든다.
-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하지 말고 핵심사항과 기억을 돕는 키(key)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 그림자료, 도표자료 등을 따로 모아두는 것도 좋다.

### 3. 분과학문 각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 반복 출제 영역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거나, 최근 교수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론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자주 출제되거나 중요한 이론들은 전공 수준으로 자세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 4. 교육학은 단순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암기만으로는 절대 고득점을 얻을 수 없다.
- 다양한 응용, 적용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요즘, 중요한 것은 각 이론과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의 활용이다.
- 단편적 지식의 암기는 위험하다.

### 5. 이러한 사항들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교육학 지식과 교육적 안목을 믿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새로운 유형과 친숙하지 않은 이론이 출제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교육적, 교육학적 맥락에 맞는 사고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 6.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선화 교육학  
합격 가이드

# 061

## 교육학 이론의 기초

1. 교육학의 영역
2. 교육학 영역별 대표 용어 정리

## 교육학의 영역

교육학은 아래와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다수 출제되는 영역들은 교육과정, 교육심리학, 교수이론 및 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학의 영역입니다.

### • 교육의 이해

- 교육 전반의 기초 사항 확인
- 교육의 개념, 목적, 유형, 교직원 등 확인

### • 교육사

- 한국교육사 : 조선시대, 근대, 일제 강점기 교육의 특성 확인
- 서양교육사 : 주요 학자 중심의 교육 변화 과정 확인

### • 교육철학

- 교육철학의 탐구 영역, 기능 확인
- 교육철학의 다양한 유형 확인

### • 교육과정 : ★ 중요 영역

- 교육과정 구성의 실제적 방안, 모형, 이론 확인
- 현행 교육과정의 특성 확인

### • 교육심리학 : ★ 중요 영역

- 학생의 발달적, 개인적 특성 확인
- 학습심리학 전반 확인

### • 생활 지도 및 상담

- 진로지도, 비행이론 등 생활 지도의 실제적 영역 확인
- 상담 이론 확인

### • 교수 이론 및 공학 : ★ 중요 영역

- 다양한 교수 방법 확인
- 교수이론, 교수설계모형 확인
- 매체 및 정보통신 기반 학습 방안 확인

### • 교육평가 : ★ 중요 영역

- 평가의 개념 및 목적 확인
- 평가 모형 확인
- 평가 유형 확인
- 검사 도구의 양호도, 문항 양호도 확인

### • 교육연구

- 교육연구의 유형 및 기본적 절차 확인

### • 교육사회학

- 교육의 사회적 기능
- 기능이론, 갈등이론, 신교육사회학 이론 확인
- 평등관 확인

### • 교육행정학 : ★ 중요 영역

- 행정이론 및 교육행정이론 전반 확인
- 직무동기이론, 지도서이론, 장학이론 확인
- 학교조직의 특성 이해

## 교육학 영역별 대표 용어 정리

### 제1장 교육의 이해

- **교육적 존재** : 인간을 교육적 존재라고 하는 까닭은 인간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고 실현해 나가기 때문
- **사회화** : 사회가 제시하는 기존의 문화나 가치체계를 개인이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수용하고 그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 **교육의 개념적 요소** : 교육의 개념 속에 논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요소. 피터스는 규범적 요소, 인지적 요소, 과정적 요소를 들고 있음
- **성향** : 인간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내적 조건, 신념, 가치관, 지식, 성격, 태도 등 인간의 제반 특성
- **교육과 훈련** : 지·정·의·체 등 인간의 전인적 특성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인 반면, 부분적인 지식이나 특정한 능력과 기술의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훈련으로 구분함
- **가치지향성** : 교육의 개념적 요소의 하나.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간변화를 추구함
- **교육의 기능과 목적** : 교육의 기능과 목적인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바람직한 개인의 형성이 개인적 측면의 목적인 반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기하는 것이 사회적 측면의 목적
- **교육의 내재적 목적** :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추구하는 교육활동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교육목적
- **교육의 외재적 목적** : 교육 외적인 사회적·경제적·물질적 결과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목적
- **전인교육** : 지·정·의·체 혹은 지적체의 다양한 인간 특성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달시키고자 하는 교육
- **형식교육** : 학교교육과 같이 교육의 과정과 내용, 방식 등이 제도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
- **비형식교육** :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같이 교육의 과정과 내용, 방식 등이 엄격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
- **학교교육** :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의 형태. 형식교육 또는 정규교육이라 함
- **교육현상** :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교육적 행위나 사건
- **교육의 3요소** : 교사, 학생, 교육내용. 의도적인 활동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교수자)와 교육을 받는 학생(학습자),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있어야 함

## 제2장 교육사

- **인문주의 교육** : 폭넓은 교양과 건강한 신체, 도덕심과 개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과 자유인의 육성을 강조하는 교육. 인문주의적 교육전통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으며, 15~16세기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 확고히 형성됨
- **실학주의 교육** :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직업적 기술의 습득을 위한 학습을 중시. '언어 이전에 사물'을 강조하며, 언어를 통한 지식교육보다 직접 경험을 통한 실제적 교육을 중시
- **자연주의 교육** :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을 교육의 과정에 적용하거나 교육에 있어서 인공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론
- **민족주의 교육** : 19세기에 전개된 민족주의 운동에 따라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교육이론
- **근대적 국민교육제도** : 공립, 무상, 의무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근대적 국민교육제도는 188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됨
- **일제강점기 교육** : 관학의 육성과 사학의 탄압, 초등교육의 확대와 고등교육기회의 제한, 일본어 중심 교육 등의 특징을 지님

## 제3장 교육철학

- **형이상학** : 존재와 실재의 본질을 다루는 연구영역으로, 실재론 또는 존재론이라고도 함
- **인식론** : 진리 또는 지식의 기준과 조건을 다루는 연구분야로, 지식론이라고도 함
- **가치론** : 가치와 규범, 도덕의 본질과 기준을 다루는 연구분야로, 윤리학이라고도 함
- **논리학** : 사고와 추론의 조건과 규칙을 다루는 연구분야
- **사변성** : 철학은 가치나 논리 또는 의미의 세계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이성과 사유(思惟)에 의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탐구해 들어가는 학문. 이와 같이 우리의 이성과 직관, 사유에 의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철학적 탐구방법의 특성을 사변성이라고 함
- **분석적 기능** : 교육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규정하는 교육철학의 기능
- **사변적 기능** :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설명체계를 구안하여 제시하는 교육철학의 기능
- **평가적 기능** : 주어진 어떤 기준 혹은 준거에 비추어 어떤 교육이론이나 설명체계 또는 교육현실이 만족스러운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교육철학의 기능
- **통합적 기능** : 여러 가지 측면과 차원에서 제시되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주장 및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합된 체계로서 통합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의 기능
- **관념론적 교육철학** : 관념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철학
- **실재론적 교육철학** : 실재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사물에 대한 지각능력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철학
- **유교적 교육철학** : 공자와 맹자에 의해 시작된 유교철학은 인(仁)과 예(禮)의 정립과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원리를 인격수양과 사회생활의 근본원리로 강조한다.
- **진보주의 교육철학** : 20세기 초, 미국의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전개된 교육철학, 생활중심교육, 활동중심교육, 경험중심교육, 아동중심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가짐

- **본질주의 교육철학** : 진보주의 교육철학의 상대주의적이며 아동중심적인 경향을 비판하고,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는 교육철학
- **항존주의 교육철학** : 진보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의 본질인 이성과 지성을 계발하고 연마해야 함을 강조하는 교육철학
- **실존주의 교육철학** : 인간의 존재와 주체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철학. 자아실현적이며 주체적인 인간의 형성을 강조함
- **분석적 교육철학** : 가치중립성을 강조하여, 교육철학의 역할과 내용을 교육적 언어의 의미분석에 국한시키는 교육철학
- **비판적 교육철학** :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의 형성을 억압하고 왜곡시키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약요인들을 분석·비판하며, 인간과 사회의 해방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규범적·실천적 교육철학
-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철학** : 공교육의 재개념화(대안교육, 열린교육), 전통적 획일적 지식관에서 탈피(영교육과정, 구성주의 학습), 교사중심의 획일적 교수방법에서 탈피(열린교육방법, '해석적 읽기'보다 '해체적 쓰기' 중시, 창의력 계발, 대화프로그램 중시, 협동학습), 학습자의 능동성 중시, 수행평가 중시(이론 + 실천)

## 제4장 교육과정

- **교육의 과정** :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의도적 활동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과 단계
- **교육의 4단계** : 교육의 과정을 나타내는 4단계는 ① 교육목적 설정의 단계, ②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단계, ③ 교수-학습의 단계, ④ 교육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짐
-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육활동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는 목적이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교육목적은 추상적·포괄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추구되는 질적인 것인 반면, 교육목표는 보다 구체적·특수적이며 단기간에 걸쳐 실현되는 양적 목표로 진술됨
- **교과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또는 '교수요목'으로 보는 관점으로, 세계의 영원한 것들, 즉 인류의 경험과 문화유산을 정리해 놓은 기본 교과목을 가르칠 것을 주장
- **경험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을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 보는 관점으로, 중요한 교육목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생활인을 육성하는 것
- **학문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을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동일 내용을 학년 수준, 발달단계 등에 따라 내용의 깊이와 폭을 달리하여 점차 심화, 확대시켜 나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주장함
- **인간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경험'으로 보는 관점으로, 학교의 의도와 지도하에 가지게 되는 경험인 '표면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경험인 '잠재적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 이 관점에서의 중요한 교육목표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것
- **잠재적 교육과정** : 학교의 상황을 통하여 학생들이 은연중(隱然中)에 가지게 되는 경험의 총체,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학습결과를 초래하는 교육과정
- **영 교육과정** : 학교에서 의식적·공식적·관습적으로 가르치지 않은(배제된) 것

## 제5장 교육심리학

- **행동주의** : 내성법을 비판한 왓슨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동물과 한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인간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하등동물을 연구대상으로 함. 우리 안에 내재하는 자아, 무의식 혹은 내면의 가상적 실체(욕구, 동기 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행동을 내적인 것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을 단호히 부정함
- **인본주의** : 1960년대 초, 그 당시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가지 심리학의 조류인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에 문제가 있음을 느낀 학자들이 매슬로우의 지휘 아래 결속하여 그 대안으로 내놓은 '제3세력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의 저변에는 유럽의 실존철학과 실존주의 심리학의 사고가 깔려 있는데,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기인식과 자유의지가 인간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
- **구성주의** : 전통적인 심리학파인 구조주의, 행동주의,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해 비판했던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연구에 기초하여 탄생한 것으로, 구성주의란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지식은 개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의해 '구성(構成)'되며, 지식의 구성과정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
- **정신분석학** : 프로이트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라는 것과 인간의 모든 심리적 사상(event)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인간행동의 원인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있다는 것.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적 사고라기보다는 무의식적 사고, 특히 원초적인 성본능과 공격본능이라는 것이 정신분석적 관점의 핵심 주장
- **다원적 지능이론** : 전통적인 지능이론들이 지능을 일반적인 학습능력이나 문제해결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다원적 지능이론의 골자는 '다방면에서 각기 머리가 좋을 수 있다'는 것. 종래의 지능이론들은 언어적 지능과 논리-수학적 지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만, 가드너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서로 독립적인 일곱 개의 분야로 나눈 후 각 분야에 대응하는 일곱 가지의 지능을 구분하고 있음
- **감성지능** : EQ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샬로비와 메이어에 의하면, 감성지능은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적 지능의 하위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정서적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
- **창의력** : 새로운, 보람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힘. 창의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천부론, 정신분석학, 심리측정론, 인지론, 사회체계론의 관점이 있음
- **성격, 기질, 인격** : 기질은 성격 중에서 주로 생물학적 배경을 더 강조한 용어이며, 인격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 도덕, 관습 등을 강조한 개념. 여러 학자들의 성격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성격은 가설적 조직체이자 고정적 조직체이고 개인차가 있으며, 개인의 생활사 또는 발달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동화, 조절, 도식** : 피아제의 지능발달이론에 의하면 지능은 기능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능의 기능적 측면은 적응기제로 이해되는 동화와 조절이 있음. 동화는 외부 요소들을 내부 구조 속으로 통합하는 것이고, 조절은 환경적인 영향의 결과로 개인의 조직이 수정되어 가는 과정. 지능의 구조적 측면은 도식(schema)과 구조(structure)가 있는데, 도식은 유기체가 외계의 사물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사용하는 '지각의 틀', '반응의 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함
- **인지발달단계** : 피아제에 의하면 아동의 지능발달 초기에는 조작적 도식에 머무르나 발달 후기에는 인지적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도식과 구조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질적으로 변화하며, 인지구조의 질적 차이

로 인해 발달단계가 구분됨. 피아제가 주장하는 인지발달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됨

- **도덕발달단계** :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이론은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관점 중 인지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콜버그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들려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여, 사람들의 응답을 여섯 가지 판단체계로 분류함. 이 여섯 가지 판단체계가 바로 발달단계인데, 크게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그리고 탈인습 수준의 도덕성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성격발달단계** : 프로이트의 성격발달이론에 의문을 품은 에릭슨은 인간발달의 전생애적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학자로 성격발달단계를 여덟 단계로 제시함. 그에 의하면 인생 주기의 각 단계는 각 단계가 우세하게 출현되는 최적의 시간이 있고, 모든 단계가 계획적으로 전개될 때 건강하고 원만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함
- **수동적 조건형성이론** : 파블로프에 의해서 주창된 것으로 행동주의 학습이론인 조건형성이 처음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었다는 점에서 고전적 조건형성이론으로도 불림. 이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적, 무의도적, 불수의적 반응의 학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
- **작동적 조건형성이론** : 수동조건형성이론이 주로 불수의적 반응의 학습에 관한 것이라면, 작동조건형성이론은 인간의 의지와 의도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수의적 행동의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 조작적 조건형성이론으로도 불림
- **형태주의** : 베르트하이머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과 자극을 지각하거나 학습할 때에는 단편적이고 무의미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과 자극의 전체적인 모양과 조직, 즉 '형태'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 인간이 사물을 지각할 때 작용하는 형태주의 법칙에는 근접성의 법칙, 유사성의 법칙, 폐쇄성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전경과 배경의 법칙 등이 있음
- **통찰학습** : 켈러는 학습이란 단 한 순간의 통찰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 통찰은 문제 상황과 그 해결에 열쇠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지각될 때 쉽게 이루어지는데, 통찰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학습은 상당기간 유지되고, 쉽게 반복될 수 있음. 통찰로 획득한 문제해결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음
- **장(場)이론** : 레빈에 의하면 학습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생활공간 내에 존재하는 여러 영역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에 의한 것이며, 그 결과 인지구조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함. 이 전체적인 생활공간을 장(場)이라고 부르는데, 생활공간은 환경과 개인으로 구성되며, 생활공간 내에서 개인과 환경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함. 인간 행동은 개인의 심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 이것과 관련
- **사회학습이론** : 반두라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고도 불림. 이 이론을 사회학습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 관찰학습은 '주의집중-파지-행동재생-동기유발'의 과정을 거침

## 제6장 교수이론 및 교육공학

- **가네의 아홉 가지 수업사태** : 학습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수활동을 순서대로 제안한 것으로, ① 주의 획득하기, ② 학습자에게 수업목표 알리기, ③ 선수학습 회상 자극하기, ④ 학습내용 제시하기, ⑤ 학습안내 제공하기, ⑥ 수행 유도하기, ⑦ 피드백 제공하기, ⑧ 수행 평가하기, ⑨ 파지와 전이 증진시키기 등을 포함
- **강의식 수업방법** : 사전에 계획한 강의안에 따라서 지식의 체계를 언어를 통해 전달하면서, 필요하다면 다양한 의사전달 방법이나 기법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수업방식



- **탐구식 수업방법** : 어떤 문제해결 또는 주제의 학습을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행위를 촉진시키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탐구식 수업방법의 목적은 고등정신 기능의 신장에 있으며, 인지적 학습활동을 통한 발견과정 및 탐구과정의 터득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토의식 수업방법** :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형태의 수업방법
- **협동학습** :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습자들이 학습할 내용을 서로 토론하여 계획하고, 학습할 내용을 서로 분담하여 구성원 각자가 부여된 몫을 다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학습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수업방법
- **교수매체** : 수업목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 수단. 교수매체는 다양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사전 경험들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보의 전달을 명료하게 해 주며,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교수의 질을 높여 주게 됨
- **경험의 원추** : 추상성과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교수매체를 분류한 모형. 경험의 원추의 맨 아래에는 가장 구체적인 '직접적이고 목적적인 경험'을 두고, 위로 올라갈수록 보다 추상적인 매체들이 제시되고, 가장 추상적인 것으로 '시각기호'와 '언어기호'를 들고 있음

## 제7장 생활지도 및 상담

- **수용, 공감적 이해, 일치** :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의하면 상담자가 제공하는 세 가지 태도 조건, 즉 수용, 공감적 이해, 일치는 특히 상담 초기에 효율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됨. 수용은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그의 감정, 사고,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공감적 이해는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상담자가 정확하게 읽어 내어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일치는 상담자가 자신의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일치되게 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REBT** : 인간의 정서적·행동적 장애는 비합리적·비현실적·자기파괴적인 인지체계(사고체계)의 결과이며, 치료는 이러한 잘못된 인지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ABCDE 모형 활용
- **인간중심 상담이론** :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 상담. 자아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내담자인 학생이 위주가 되며, 상담자인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조자(촉진자)의 역할만 수행. 진실성·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방법으로 활용
- **형태주의 상담이론** : 증상의 완화나 제거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추구함.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를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항상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지금 그리고 여기(Now & Here)'에 대한 자각 ⇨ 욕구 좌절에 대한 내담자의 자각과 상담자의 촉진 ⇨ 자아통합의 촉진과 실현(발견-조절-동화)
- **해결중심 단기상담** : 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상황을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상담. 첫 상담 이전의 변화에 관한 질문·대처질문·예외질문·기적질문·척도질문 등을 주요 기법으로 활용

## 제8장 교육평가

- **교육평가** : 교수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학습자의 행동 변화 및 학습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 일반적으로 교육평가는 크게 선발적 기능과 처방적 기능을 지님. 선발적 기능이란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파악하여 선발, 분류,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처방적 기능이란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학업과 일상생활의 개선을 지도하고 조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 **평가도구의 타당도 · 신뢰도 · 객관도** : 바람직한 평가도구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타당도란 평가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냐의 정도를 말하고, 신뢰도는 평가도구가 재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냐의 개념이며, 객관도는 검사의 채점자가 주관에 이끌리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뢰롭고 일관성 있게 채점하느냐를 말함
- **성취평가제** :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 성취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 목표 중심의 준거참조평가의 도입

## 제9장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 공공적 ·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을 대상으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제 조건을 정비 · 확립하는 한편,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도 · 감독하고 봉사하며 조성하는 작용. 이러한 의미의 교육행정은 개별 학교 수준부터 교육청, 중앙정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관료제** : 베버가 제시한 합리적 · 합법적 권위에 기반하고 있는 이상형 조직으로서 법규에 의한 직무의 배분, 위계, 문서주의, 공 · 사의 분리,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한 관료의 선발, 직업의 안정성 및 직위에 따른 보수 등의 특징을 지님. 관료제의 역기능으로서 과잉 동조에 의한 목표-수단의 도치, 일의 중요성과 상관 없이 서류만 쌓이는 번문옥례(繁文縟禮), 무사안일주의, 업무량과 상관없는 조직의 확장, 인간성의 상실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인간관계론** : 과학적 관리론과 달리 조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인간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조직 속의 인간은 메이요 등이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호손 연구를 수행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발견한 것. 인간관계론은 비경제적인 사회심리적 요인과 비공식적 조직을 중시하고, 개인을 수동적인 기계의 톱니바퀴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봄. 인간관계론은 동기이론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함
- **교육정책** : 사회적 · 공공적 그리고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에 관해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하는 기본 방침 또는 지침을 의미하며, 이것은 교육활동의 목적 · 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한 최최의 대안을 의도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 교육행정을 넓게 해석하면 교육정책은 교육행정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됨. 즉, 교육행정이 교육정책보다 상위의 개념이 됨. 반면에 교육행정을 좁게 해석하면 주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 정책이 교육행정의 기본 방침 또는 지침이 되어 교육정책이 교육행정의 상위 개념이 됨. 따라서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의 관계는 그 용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야 함.
- **교육정책의 과정** : 교육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교육정책의 의제설정 → 교육정책의 결정 → 교육정책의 집행 → 교육정책의 평가

- **교사양성제도** : 교사양성기관은 전통적으로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됨. 폐쇄형이란 교사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여기에 속함. 개방형은 교사양성을 전담하지 않는 기관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가리키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의 교직과정이 그 예가 됨.
- **단위학교 책임경제(SBM)** : 상급 교육관청의 의사결정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인사 운영, 재정 운영, 장학 등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영체제를 가리킴.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예산회계제도가 SBM의 기반 역할을 수행
- **교육재정** :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며 지출하는 일련의 공권력 작용을 가리킴. 교육재정은 일반재정의 한 분야로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며, 지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 제10장 교육사회학

- **사회적 현상** : '사회'라는 개념에 의해 포착되는 현상. 사회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체제이므로 이러한 관계체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적 현상
- **교육의 사회적 측면** : 교육이라는 활동을 '사회'라는 개념에 의해 포착할 때 나타나는 측면을 말함. 교육활동에 개입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체제에 따라 나타나는 측면이 교육의 사회적 측면이 됨
- **사회화** : 새로운 구성원이 사회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기성세대가 지도하는 과정. 여기서 기성세대는 사회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
- **사회적 선발** : 사회의 입장에서 적합한 사람을 뽑는 활동. 여기에는 선발을 위한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마련됨
- **교육과정의 평등** :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평등. 교육에 참여하면서 상대적으로 잘 가르칠 수 없거나 잘 배울 수 없어서 자기 성장을 하는 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교육과정이 평등하지 않은 것
- **교육결과의 평등** : 교육에 참여한 결과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 교육에 참여하여 이 지점을 통과하여 더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은 교육결과가 평등하지 못한 것
- **사회계층** :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체제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것이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 간에 구분 가능할 때 이를 사회계층이라고 함.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됨
- **사회계층 이동** :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계층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계층으로 이동하는 것. 사회계층 이동에 제도교육에 참여한 결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그것만이 갖는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음
- **사회계층 재생산** : 사회계층이 세대 간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 상류층의 자녀가 다시 상류층의 삶을 살고, 중류층의 자녀가 다시 중류층의 삶을 살고, 하류층의 자녀가 다시 하류층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계층이 재생산되는 것
- **유물론** : 물질 토대인 하부구조에 의해 정신적 층위인 상부구조가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 경제적 생산양식이 바로 물질 토대가 되면서 전체 체제의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봄

이선화 교육학  
합격 가이드

# 07

## 합격 후기

1. 강의를 수강하신 선생님들의 감사 말씀
2. 전공별 합격 후기

※ 더 많은 감사 말씀과 합격 후기는 저자 카페 <이선화 교육학>  
[cafe.daum.net/yeducation](http://cafe.daum.net/yeducation)에 있습니다.

## 강의를 수강하신 선생님들의 감사 말씀

**선생님** 규칙과 규정 너무 감사해요 ㅠㅠㅠㅠㅠㅠ 행정문제 베버 관료제이론 나올 줄 몰랐고 다 까먹고 있었는데 관료제이론 중 강조하신 두 개 중에 규칙과 규정이 나왔네요. 소름돋았어요.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초수 19.33 맞고 최합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작년에 교육학 13점 받고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번 교수님 모의고사에 자기조절 나왔던게 기억나서 작성할 수 있었고 베버 관료제론은 정해져 있는거니 그대로 외워라 했던게 기억나서 적었습니다. ㅠㅠ 18.67 정말 감사합니다.

**이선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듣고 이번에 1차 교육학 19.33점으로 최종합격했습니다 ㅠㅠ 학부 때 교직과목을 들으면 교육학 내용은 너무 어렵고 양이 너무 방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교수님 수업으로 더욱 재미있고 쉽게 교육학을 배운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ㅎㅎㅎ 교수님 수업 덕분에 1차 때도 2차 때도 자신감 가지고 교육학 내용을 언급할 수 있었어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

**이선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어과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기반으로 두 해 동안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덕분에 작년과 올해 교육학 고득점 받았고 올해는 최종합격했습니다 ㅎㅎ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1~4강의 듣고 하반기는 쌤이 주신 구조도랑 기본서로 내내 인출하고 모고연습해서 교육학은 19.33 받았어요! ^o^ 수기는 못쓰지만 여기다라도 자랑할게용 감사합니다 X)

**오늘** 최종합격했습니다ㅠ 교육학 18.33으로 만족스런 점수 얻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초수생이고 너무 힘든 1년을 보냈는데, 교수님의 위로와 유머 덕에 1년 참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 덕에 20점 만점으로 1차 합격했어요. 2차까지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저 초수에 9월 달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교육학 18.33 맞아서 1차 합격했습니다ㅠㅠㅠㅠ 정말 기적이에요! 3~4월 강의 + 모의고사 강의만 들었는데도 교수님 믿고 열심히 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교**수님 감사해요♡ 덕분에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20점 만점으로 1차 합격했습니다!!

**이**선화 교수님~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차시험 전에 8월에 아기 낳고 힘 얻어서 시험보러 갔던 학생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교육학 고득점으로 1차 통과하고 오늘 경기도 최종합격했습니다!!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었어요 ㅠㅠ 감사합니다!!!

**선**화쌤 강의 들으면 교육학 개념이 마인드맵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는 기분이예요. 꼭 초수합격해서 합격수기 올리고 싶습니다. 그 날까지 달려볼게요! 그리고 선화쌤 머리 위에 왕만두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이선화 교수님 강의 듣고 행복하게 수험생활 9개월 끝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교육학 18점으로 1차 합격하고 오늘 최종합격하였습니다. 1차 점수가 낮았는데 교육학을 18점 받아서 그나마 합격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육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재미있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긍정마인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전공을 공부하다가도 힐링 목적으로 교육학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꼭 교수님다운 선생님마인드를 갖춘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

**교**육학에 늘 자신이 없었는데 1월부터 선생님 강의 들어오면서 이해도 많이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선생님이 수업 시작마다 해 주시는 말 들으면서 늘 힘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초**수생이라 1년간 선생님 인강 커리 믿고 쪽 들었는데 덕분에 교육학 할 때만큼은 즐겁게 수업 들을 수 있었고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수업 때마다 항상 파이팅! 힘내세요! 응원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선화 교수님! 전 인강으로 듣고 있는 학생인데.. 어찌죠.. 교수님 얼굴만 봐도 좋아요^^ 항상 따뜻한 말과 웃겨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넘 좋아요~ 교수님 카페에 합격수기를 꼭 적고 싶어요^^ 감사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7월달부터 쭉 교수님 인강을 듣고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수였고 재작년에 교육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점이란 점수를 받아서 많이 좌절하였고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을 만나 뵈게 되어 18점이라는 나름의 고득점으로 최종합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운 적도 많았고 똑같은 일상에 지칠 때도 많았지만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것이 제 낙일 정도로 즐겁게 교육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끝까지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애쓰신 모습, 늘 좋은 이야기와 응원에 감동받아 혼자 운적도 많았었고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교육학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배운 사랑과 열정을 잊지 않고 교단에 서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마주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저**는 국어과이고 올해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은 항상 자신 있으면서도 불안한 과목이었어요. 올해는 18점대를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자체도 물론 이선화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것들과 항상 강조하시던 것들이 나와 당연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선화 선생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인상 깊었던 점은 다른 강사 분은 중강 후에는 다른 지도가 없는데 중강 후에도 그리고 시험 직전에도 항상 자료를 주시며 마지막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힘든 수험 생활에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라 이렇게 끝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제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신 이선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교육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반대하고 내용이 어려워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선화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설명해주시고 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교재들도 꼼꼼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내가 시험본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라는 마인드로 임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현**직 교사 동료의 추천을 받아 이선화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이선화 교수님은 인강생까지 칭찬을 해주신다고 했고 또 교육학 강사분들이 대체로 남성분이신데 저는 톤이 높은 목소리가 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선화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으니 좋은 선택이었네요.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작년 한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항**상 교직 수업 때마다 너무 지루하게 들어서 교육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선화 교수님 덕분에 교육학이 좋아졌어요!! 밝은 목소리, 유쾌한 농담, 따뜻한 격려 등 동영상 뽕고 교수님의 좋은 기운이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선생님!** 최종합격했습니다 ㅎㅎ 교육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면접도 무난히 보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임용**을 준비하고자 마음먹고 동료 교사쌤께 상의했을 때 교육학은 이선화 선생님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면접대비 특강을 초수 때는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신청할 생각도 없었는데 재수 때는 면접대비 특강을 1, 2차 모두 신청에 성공하였습니다. 어느 교육학 교수님도 면접을 이렇게 꼼꼼히 봐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면접은 ○○점을 받았고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선화쌤 강의를 듣는 시간은 항상 힐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게 알려주시는건 당연하고, 중간중간 지치지않게 해주시는 여러 얘기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화쌤께서는 원가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게 느껴져서 그런면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작년부더 항상 생각했던건데... 꼭 합격해서 두손 무겁게 선화쌤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더 올해까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시험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올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모교반 수강했던 인강생입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위로 많이 받았고 힘낼 수 있었습니다. 종강 때 눈시울을 붉히실 때 저도 감동받아서 울컥했었는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수험생 한명 한명 신경 써주시는 것 보고 선화쌤은 찐이다.... (대단하다는 뜻^^) 생각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임용판에서 인간미 느끼게 해주신..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신 선화쌤ㅠㅠㅠ 넘 감사해요. 직강으로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노량진에서 코로나 유행 중인데 꼭꼭 몸조리 잘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글 쓰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울컥하네요. 합격하면 수기 꼭 쓰겠습니다.

샘플강의 중 가장 이해가 잘되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선택했는데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들도 정말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인강생이지만 강의 밀리지 않고, 형성평가나 짧은 글쓰기도 성실하게 해서 꼭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020 서울 국어 합격자입니다.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남겨요^^

지금도 종종 노량진에 가는데 학원 근처 지나가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ㅎㅎ 건강하세요 선생님~!

**1**차 올었다고 글 남겨는데 최종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학 공부하기 참 싫었는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래도 교사가 될 사람이 교육학은 알아야지 하며 했는데 좋은 결실 맺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교육학 19점 받았고, 초시로 ○○○○ 합격했어요. 교육학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교수님의 1~2월 강의 듣고 올해 다시 3~4월 강의 듣고 있습니다.

늘 재미있는 수업 감사합니다.

사실 엄청 재미어요.. 교육학 대학에서 들을 땐 너무 재미없어서 늘 겨우겨우 듣고 이해도 못했는데 작년에 교육학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한 것은 탁월했습니다. 교육학은 샘플강의만 들어도 즐겼는데 교수님의 귀여운 말투와 유머가 즐리기는커녕 힘든 수험생활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8월에 개인 상담에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더욱 잘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좋으면 수업을 열심히 듣는 스타일인데, 수업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은 응원이 되어서 매일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ㅎㅎ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면 수업이 재미없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ㅠㅠ 수업 재밌으니깐 그런 말 하지 않으셔도 되요ㅠㅠ

시험준비를 하다보면 공부도 공부지만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이선화 쌤께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ㅠㅠ

시험 전에 힘내라는 응원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몇 번 봤는지 몰라요.ㅠㅠ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영상으로 면접 피드백을 받았는데, 피드백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화 선생님ㅠㅠ 감사드립니다♡

일하면서두 쌤의 화이팅!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좋은 교사, 따뜻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쌤들도 힘내세요!!

**이**선화 교수님께 정말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는 동안 정말 힘이 많이 되었고 교육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ㅎㅎ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모두모두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인**강생 육아맘입니다. 공부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수님 강의 들었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원시원한 강의력에 강의를 듣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하고 합격했다고 여기 또 남기고 싶네요.

**힘**든 시기 저를 응원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신 이선화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ㅎㅎ 초수라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안정을 찾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라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즐린 적이 없네요!!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재수지만 이번에 처음 이선화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올 인강) 정말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나너무 들어요 ㅠㅠ ㅎㅎ 왜냐면 저는 무조건 이해가 선행되어야 공부가 진행되는 타입이거든요.

**초**수 때 교육학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번 시험에선 교육학 점수를 꼭 올리고 싶었는데 18.67점 맞아서 너무 기뻐요 ㅠㅠ 교수님 기본이론이랑 심화강의 들으면서 강조하시는 핵심 키워드, 형성평가 중심으로 전화스터디도 하면서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중요 키워드는 시험 전날까지 반복했어요 ㅎㅎ 전공도 1년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어서 교육학 강의까지 병행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교수님 강의를 너무 유쾌해서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ㅎㅎ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을 마지막으로 공부한 지가 5년이 넘은 상태였기에 교육학의 이론을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가 2019년 1월부터 공부하여 초수로 교육학 18.33점을 받고, 이번에 서울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점수가 많이 높지 않았었는데 교육학 점수로 컷점수와 격차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 강의를 위해 진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선화 교수님께 감사하단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2년 동안 교수님의 강의와 교재로 이번 2020임용 평가원지역 최종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수석합격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모의고사하고 논술작성하는 강의가 대박이네요. 도움 많이 됩니다. ^^ 구조화도 짱이네요.

**이**선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 이번 2021학년도 임용에는 전공점수가 부족해 떨어졌지만... 교육학 20점 만점 받았어요 !! 초수에 학교 다니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선생님 인강 들으며 제 페이스대로 두려움 없이 쓰고 나왔더니 교육학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 불합격의 여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일 년 한 번 더 빠르게 도전해서 전공도, 교육학도 모두 잡아 합격할 거예요! 올 한해도 파이팅할 거예요! 파이팅!

**교**수님 :)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타민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많이 불안한 와중에 교수님 총정리강의 들으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비록 인강으로만 뵈지만 교수님 너무 좋으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물 영접하고 싶어요. 교수님 ^♡^ 너무 감사하고 교육학 꼭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4월 강의 인강생입니다~  
3~4월 강의 종강 기념으로 글 남겨요-^^  
선화쌤의 긍정적 에너지 덕분에 2달 동안 교육학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ㅎㅎㅎ♡이제 계속 반복 인출!!하면서 교육학 만점을 향해 열공 할게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ㅎㅎ 감사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300자가 모자라서... 사진으로 올립니다ㅠㅠ... 선생님 덕분에 교사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정말 활자로만 듣고 이해하려고 했던 교육학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생생하게 다가오고 제대로 배워서 임용 1, 2차 합격하여 정교사로 교단에 서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이선화 선생님 강의를 듣고 교육학 만점 받은 서울 합격자입니다. 2년간 이선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쉽게 이해시켜주셔서 매 강의를 재미있는(! ㅎㅎ)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ㅎㅎ 막연했던 교육학을 부담 없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수이고, 제가 본 샘플 강의에서 모두 웃으며 시작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귀에 쑥쑥 들리는 말투에 반해 인강 신청했습니다.  
선생님의 꼼꼼하고 적응률 높은 강의에 집중하며...그리고 장수생 공부방법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은 후에 다시 글 올릴게요.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전공별 합격 시기

01

국어

2022학년도 경기 국어 초수합격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재학 초수로 교육학 19.33점을 받아 2022학년도 중등임용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 <마음가짐>

#### 1. 교육학의 목표 점수는 무조건 20점

초수가 승부를 보려면 교육학에서 고득점을 해야 합니다. 초수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n수생보다 전공 공부 시간,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2차에서도 기간제 시간강사 등 경력 있는 다른 선생님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1차에서 점수를 벌려 놓아야 해요. 그러려면 교육학 고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또한, 전공 점수 1점 올리는 것보다 교육학 만점이 (목표를 설정할 때의 느낌상)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은 워낙 범위가 넓고 예측할 수 없지만, 교육학은 교재 내용 모두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주요 교과 분들은 최근 컷을 보면 교육학은 기본 18, 19점 이상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육학은 무조건 목표를 만점으로 잡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2. 그래도 달달 암기를 해야 한다.

교육학 시험 후기를 보면 적당히 비벼 썼는데 고득점했다는 글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달달 암기하는 공부에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달달 암기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 내가 적당히 비벼 쓰는 걸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요, 어쨌든 알고 있어야 논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교육학 내용이 2차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특히 면접 준비할 때 어? 교육학에서 본건데? 하는 것들도 많았고, 나만의 방안 마련할 때도 교육학 지식 잘 활용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부방법>

#### 1. 시기별 공부방법

저는 이선화 교수님의 1~2월, 3~4월 개념강의를 듣고, 9~11월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들었던 1~2월 강의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샤프로 밑줄 긋고 필기하며 들었어요. 이때는 다 외우려하기 보다는 대학교 교직 강의에서 봤던 내용이네~ 이걸 좀 어렵네~ 재밌네~ 하면서 가볍게 들었습니다.

복습은 밑줄 그은 부분 다시 읽고 강의 내용 떠올리고 하는 식으로 했고, 구조화 자료를 외우려 애를 썼습니다. 당연히 외우진 못했습니다. 이후 3~4월 강의 들으면서는 김정 불펜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 필기하고 밑줄 그으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영역별로 백지복습을 했어요. 백지복습을 할 때는 구조화 자료나 잇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5~6월에는 백지복습 계속하고 7~8월에는 백지복습하면서 혼자 기출을 풀었습니다. 기출 답은 이선화 교수님 교재나 합격자 복기들을 참고했습니다. 특히 합격자 복기를 본 게 좋았어요. 교재에 있는 지적인 말보다 더 쉬운 표현들도 볼 수 있거든요. 최근 기출은 논술을 다 했으나, 점차 손이 아파서 예전 기출은 답 문장만 쓰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백지복습은 몇 회독을 돌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전 영역 1회독은 했습니다. 약한 부분은 다음날 다시 하고 하기 싫은 날은 말로 하기도 하면서 꾸역꾸역 했습니다.

9~11월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2주에 1회독이 가능하도록 백지복습을 돌렸습니다. 양 많은 영역은 이틀, 적은 영역들은 합쳐서 하루에 복습했어요. 강의를 수강하되 시간상 강의는 듣지 않고 자료만 받아 모고를 풀었습니다. 가끔 해설을 듣고 싶을 때는 그 부분만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모고 문제를 논술하진 않았고 주 1회만 논술하고 나머지 회차는 간략하게 답 문장만 적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다 쓰진 못했어요. 이때 교육학 강사들의 모고 출제 내용 요소를 공유하는 스터디가 유행했어서 저도 들어갔는데,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이선화 교수님도 다 강조하신 내용이고 시험이 가까워오는데 다른 강사가 강조한 미이러한 것들이 늘어 가는 것 같아 딱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쪽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단권화를 하진 않았고, 백지복습만 열심히 했습니다. 기본서, 잇기, 구조화 자료를 많이 봤어요. 하반기 되어서는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잇기와 기본서를 많이 봤습니다.

## 2. 공부 팁 : 카페 활용하기

교육학 교재는 대부분 개론서 인용이 많습니다. 이선화 교수님께서도 수업 중에 이 표현이 어려운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교재의 말(표현)이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장점이나 의의가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걸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자기 말로 바꿔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반기 되어서는 암기 + 인출할 때 애매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있으면 여기 카페에 검색했어요. 예전에 올린 다른 질문글에 답변하신 교수님의 설명을 읽으면서 이해했습니다. 또 구글링해서 다양한 자료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교육학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논술 틀은 하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상반기에는 논술 쓰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용 공부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제 공부 방법은 저에게 맞는 방법이었을 뿐, 모두에게 맞는 공부법은 아닙니다. 각자가 잘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득점하시기를 바래요.

추가로, 이선화 교수님께서 2차 시험 때에 모의면접을 진행하십니다. 인강생도 무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줌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면접에 자신감이 없었던 상태였지만 선화쌤이 괜찮다며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자신감이 좀 차올랐었습니다. 덕분에 실제 면접에서도 웃으면서 자신 있게 말했고, 40점 만점에 39.73점을 받았습시다! 선화쌤 덕이에요. ㅎㅎ 다들 2차 시험까지 선화쌤 도움 많이 받으시면서 고득점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선화 교수님, 막막했던 임용 생활에서 정말 많이 의지했는데, 이렇게 수기를 쓰며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특히 1차 시험 전에 교수님께서 첨삭 게시판에 올려주신 문구들 덕에 1차 시험도 자신 있게 볼 수 있었어요. 비타음료도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02

## 영어

## 2023학년도 4~5개월 단기 초수 최종합격-교육학 20점 만점 합격

이선화 교수님 1년 커리를 들긴 했지만 상반기는 막학과 교생을 병행했어서 공부에만 올인한 건 8월 졸업 이후였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거나 1년 올인 초수이신 분들에게 도움 드리고자 연수 일정 때문에ㅠ 늦게나마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음 교육학을 시작했을 당시 저는 정말 노베 이었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로 교육학도 학부 때 배운 내용도 기억 안나는 마당에 정말 새로운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저는 여러 유명하신 강사분들 중 이선화 교수님 특유의 귀염귀염하고 친절하신 OT 보고 바로 의심 없이 이선화 교수님의 1년 커리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1~2월

이 때는 방학 때라 최대한 개념을 암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잇키 자료를 채우고 암기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교수님 형성평가도 모두 다 일정에 맞게 풀었구요! 저는 시험 직전까지 잇키 자료에 정말 크게 의존했는데 1~4월 잇키자료는 올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워져 있어요. 그 자료를 이쁘고 단정히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주요한 요점 위주로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존했던 잇키 자료는 이때 받은 자료가 아닌 3, 4월인가 5, 6월인가에 주시는 다 채워져 있는 자료였거든요. 저도 초반에 비워져 있는 자료를 무조건 모든 내용을 다 채우고 다 외우려고 하다가 점점 지쳐가는게 느껴져서 정말 핵심만 적고 반복해서 암기하는 식으로만 사용했습니다!

### 3~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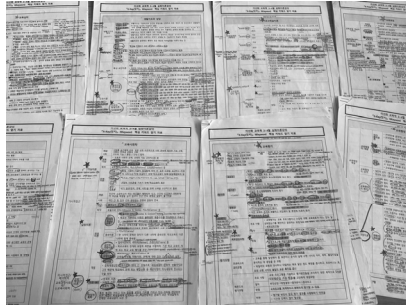
막학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올인을 하지 못하게 되니 정말 많이 흔들렸던 시점이었습니다ㅠ 또 4월엔 코로나에 걸려 거의 2주에서 3주는 아예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컨디션 매우 중요합니다.. 집, 스카만 반복했는데 학교 수업까지 병행하느라 새벽까지 밀린 교육학+전공 인강을 무리하게 들으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ㅠ 학기 병행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놓지 않을 정도로만 챙기세요! 충분합니다! 아무튼 1~2월과 마찬가지로 암기하려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안되다보니 워드로 교육학을 정리하는 식으로 시간을 날렸어요... 정리만 하면서 암기는 따로 못했는데 차라리 1~2월 때처럼 빈칸 잇키 채우고 조금이라도 암기하는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 같네요ㅠ 짧은 글쓰기는 이 때부터 학기 내내 거의 못했는데 어떻게든 형성평가는 항상 다 풀었습니다!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쌤들 인강들으면서 현강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꼭 풀어주세요!

## 5~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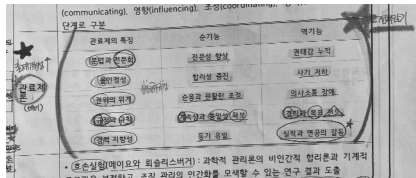
5월은 교생을 나가면서 아예 공부시간이 나지 않던 달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기출을 다루셨던 것 같은데 문제집도 너무 좋고 강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지라 생각했는데 한두 개 강의밖에 못들었습니다... 그래도 교육학 자체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교생 실습실에서 잇키 자료를 외우면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6월에는 밀린 강의를 다 듣는게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암기를 하고 밀린 형성평가라도 하자는 마음에 잇키 암기와 형성평가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 7~8월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던 커리였어요 ㅎㅎ 문제풀이 강의였는데 암기했던 내용들 토대로 실제로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 풀었던 문제들도 복습하면서 나날이 실력이 느는게 느껴졌던(?) 커리였습니다!! ㅎㅎ 이때부터는 거의 학기도 끝나던 때라 놓치는 강의나 형성평가나 모고나 짧은 글쓰기 등 모든 걸 다 놓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부터 잇키 자료에 추가로 정리도 하면서 암기에 더 박차를 가했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더러운데.. ㅎㅎ 잘 안외워지거나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형광펜을 칠하고 추가로 필기도 해주면서 거의 매일 반복하면서 암기했어요. 암기 방법은 음.. 아예 백지에 교육평가평가관: 모형: 등 큰 가지를 적고 이를 채우는 식으로 하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가려가면서 혼자 맞춰보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주에 한 번 쉬는 날을 제외하면 매일 아침 2시간은 교육학 암기에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부방법의 차이인데 저는 너무 비슷한 개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서 암기하기 힘든 것들이나 그냥 암기하기 힘든 것들은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관료제의 특징 중 규정과 규칙이었나요? 그 순기능, 역기능을 적었어야 하는 문제에 규·제·경으로 암기를 해줬어서 순기능은 계속성과 통일성 확보, 역기능은 경직과 목표전도로 완벽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11월

10월이랑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플래너 확인해보니 3째주부터는 하루에 3개씩 인출했네여(주요영역 2개 + 주변영역 1개).  
전화 스티디는 여유가 되신다면 상반기부터나 이른 하반기부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주변영역이나 사소한 내용 아니면 푼지르면 줄줄줄 줄 자동으로 나올 정도였어요..  
잇키에서 뭐가 어디에 어떤 형광펜이 쳐져 있는지까지도 다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 03

### 수학

안녕하세요~ 합격 수기를 적으려니 막상 할 말이 없어서 적지 말까 고민을 했는데, 2년간 이선화 선  
생님 강의 들으면서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한 마음에 합격 수기를 써봅니다. 우선 저는 재수 같은 삼수  
를 했습니다. 초수 때는 임용 준비 아예 안 보고 임용 보러 갔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2년을 공부했으니까, 재수라고 하고 쓰겠습니다^^;;

#### <2019학년도 임용시험 결과>

1차 시험 : 교육학 17점 / 전공 46점(63점 - 당시 서울 합격선 : 64점)

당시 참 멘붕이었는데요, 교육학은 꽤 잘 봤었던 편이더라고요. 떨어진 이유는 역시나 전공이었습니  
다. 교육학은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전공을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리커트 척도와 같은 디테일한 부  
분을 제외하면 거의 맞은 것 같았네요. 작년에 초반에 스티디하는 내내 '1점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위상을 포기했었는데요, '위상을 포기하지 말았다면...' 이라  
던가 기입형에서 '계산 실수 하나만 덜 해서 2점만 더 받았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었  
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다 해야겠다!'라는 마인드였습니다.

#### <2020학년도 임용시험 1차 시험 결과>

합산 : 89.33점 - 서울 합격선 81.67점

교육학은 물체의 영향도 있지만, 만점을 받았습니!

전공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학에 대한 자세한 애  
기는 아래 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학년도 임용시험 2차 시험 결과>

합산 점수 : 185.13점 - 서울 합격선 175.03점

2차도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뭐가 각각으로 보면 아쉬운가 싶었는데요, 점수를 다 합  
쳐놓으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에 관한 얘기도 차근차근 아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으시기 전에 저의 공부 스타일 자체가 매우 장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구조화가 안 되면 머릿속에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자신이 있는 영역은 혼자서 구조화하고 했

지만, 자신없는 부분은 구조화도 안 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들으면서 구조화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지랑 다른 장독립형 학습자들은 참고삼아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 교육학

우선 공부한 썰을 풀고 뒤에 공부할 때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을 테니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뒤쪽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 2019학년도

교육학은 19학년도에도 잘 봤던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합격자들이 15점 정도를 받았던 걸 보면, 교육학은 17점 맞았으면 잘 본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온도 작용했었는데요, 당시 가드너의 지능이론이 출제되었는데,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실마 세부 지능까지 물어보겠어?'라고 하고 잘 안 봤었어요. 그런데 11월에 이선화 선생님 강의 9주차인가에 가드너가 나왔었고, 선생님께서 적어도 EQ랑 관련 있는 '대인관계 지능'이랑 '개인내적 지능'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었고, 마지막 주에 주셨던 추가자료에 가드너 문제가 또 있어서 딱 그 두 개만 외웠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 자료에 신뢰도 문제까지 있어서 정말 운이 좋게 많이 맞았었던 거지, 순전히 제 실력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그 당시 교육학 공부를 생각해 보면, 딱히 효율적이지 않았습디다. 기본서를 혼자 읽 으면서 공부하다가 너무 양이 방대해서 막막했었던거든요. 그런데 5~6월에 구조화 특강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구조화 특강을 들으면서 구조를 잡으니까 어느 정도 교육학이 어떤 구조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디다. 그렇게 구조가 잡힌 다음부터는 스터디원들과 짝스터디를 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즉, 제대로 된 교육학 스터디는 6월쯤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8월에는 친구들과 3명의 강사분의 문제 풀이를 하면서 짝스터디를 하면서 암기를 했고요. 9~11월에는 이선화 선생님의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원들과는 다른 강사분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교육학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니, 확실히 내용들이 겹치면서 인출도 좀 더 잘 되고, 내용들이 기억에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에 일주일에 2개의 모의고사를 쓰고, 나머지는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쓰면 서로 바꾸어 첨삭을 해주었는데, 확실히 이거 덕분에 글이 정돈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친구랑 짝스터디하면서 9~11월 모고 내용을 복습하면서, 그 내용들을 무한히 반복해서 인출을 했구요. 아무래도 마이너한 부분까지 모두 챙길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꼼꼼히 봤던 것 같아요.

### 느낀 점

우선 저의 첫해의 교육학은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지만, 과정에서 보면 그다지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았 습니다. 5~6월에 구조화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진작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좀 더 효율 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9월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풀려고 보니, 모의고사를 써본 적이 없어서 글도 못 쓰고, 인출도 잘 안되더라고요. 교육학에서 구조화는 들어가 있어서 내용 영역들을 보면 기억이 나는데, 세부적인 암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한 문단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괴감도 많이 들었는데요, 복습하면서 겨우 채워 넣었던 것 같아요.

## ◆ 2020학년도

우선 발표날에 이선화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어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1~2월 혹은 3~4월 강의를 통해 개념을 한 번 정도 정리하고, 5~6월에 기출문제 강의를 듣고, 9~11월에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개념 공부(1~3월)** 재수 스테디는 1월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교육학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이 없으므로 1~2월 강의를 들었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강의 들으면서 형성평가 풀고, 강의에서 하는 것만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념 복습, 인출(4~11월)** 개념 강의 완강한 다음 4월부터는 스테디원들끼리 2~3명끼리 짝지어가면서 구조화를 복습했어요. 구조화를 중심으로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인출을 했어요. 혼자 하면 늘어지니까 같이 모여서 1시간 정도 빠르게 쓰고, 다 쓰면 같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주를 잡고 진행했습니다. 수교 인출도 같이 진행하다 보니 짝스텟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씩 만났습니다.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수이론을 인출할 때는 두 번에 나눠서 하고, 나머지는 한 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인출을 하니 6월 중순 정도 되었고, 7월 문풀 전까지 교수이론, 교육행정 이런 주요 영역들은 다시 한 번씩 인출을 했습니다. 이런 인출은 7~8월 스테디 하면서도 한 번 더 돌렸고, 9월부터는 처음에 4~5주에 한 번, 그다음에는 3주에 한 번 인출하고, 11월이 되었을 때는 10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인출했습니다. 마지막엔 2~3일에 전체를 다 돌렸던 거 같아요. 시험 전날 짝스텟을 한 형과 얘기할 때, 정말 지겹다고, 이렇게까지 인출했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차피 다들 모르는 내용일 거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 붙으면 누가 붙겠냐고 했던 기억도 나네요.^^

**기출 분석(5~6월)** 기출 분석은 재수 때 5~6월에 이선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했습니다. 기출은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개념 공부만 하다 보면, 개념을 어느 정도로 외워야 할지 감이 안 와서 불안하거든요. 그때 기출을 보면서 “아, 이 개념의 이 정도까지는 봐줘야 하는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기출을 다 보기엔 양이 너무 많고, 지엽적인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강의에서 어느 정도 골라주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할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 영역별로 기출을 풀면서 서브 노트를 통해 개념을 다시 보기 때문에, 복습의 효과도 더블이구요. 그리고 기출 선지들에 깔끔한 키워드들은 서브 노트에 추가해서 키워드로 외우기도 했습니다.

**문제 풀이(7~8월)** 문풀 저는 강의는 안 들었어요. 스테디원들과 함께 7~8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썼어요. 스테디원 중에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서 모의고사만 같이 풀었습니다. 7~8월 강의에는 4개의 모의고사가 있고, 여기에 3개의 공개 모의고사랑 다 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하나씩 쓰고, 스테디원들끼리 서로 첨삭을 해주었습니다. 첨삭을 해보면 정말 머리가 깨지는데요, 처음에는 맞춤법도 이상하고, 비문도 많아요. 그리고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맞다고 해야 할지, 틀렸다고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채점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여러 자료도 찾아보면서 공부도 해야 하니까

꽤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쓰려면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의고사(9~11월)** : 저는 이선화 선생님 모의고사는 직강을 들었습니다. 직강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①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 : 개념 공부할 때 이해가 헛갈리는 내용(예를 들어, 관찰학습, 모델링, 대리학습 이런 개념들)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카페가 있지만, 직접 여쭙보는 게 이해에도 좋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② 바로바로 제공되는 첨삭 : 인강으로 스캔해서 올리고 하는 것보다, 직강에서 바로바로 제공되는 첨삭이 좀 더 좋았어요. 그리고 강의 듣는데 별다른 큰 다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집중력도 인강보다 직강이 좋았어요.
- ③ 자료 프린트 : 이선화 선생님 강의는 자료가 엄청나요. 특히 개념적으로 어려워하거나 질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책을 찾아서 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부분이고, 다른 강사님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그 자료 프린트를 제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어요. 자잘한 이유이지만, 늘어지지 않는 게 좋아서 직강을 신청했습니다. 직강을 들으면서, 다른 스터디원들도 같이 모의고사를 풀어서 일주일에 3개씩 모의고사를 풀고, 서로 첨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개씩 첨삭하는 게 빠듯하려나 했는데, 익숙해져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글도 대부분 정돈되다 보니, 첨삭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어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르는 게 나와도 비비는 연습도 했고, 꽤 디테일한 부분까지 암기를 하고, 개념들도 많이 정리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건에 맞춰서 쓰는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기출문제에서 교육과정 부분에서 '중핵형 조직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물어본 것 같은 문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암튼 지금까지 저의 교육학 공부 히스토리를 구구절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정리 + 궁금해하시는 점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FAQ

### ※ 교육학 공부 어떻게 했나요? 암기는 어떻게 했나요?

#### ① 교육학에 대한 거부감 없애기(교육학에 기초가 없는 분들) / 1~2월의 공부

저도 처음 교육학을 맞이했을 때, 이 책을 다 외우라고? 하다 보면 외워진다고?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도 방대하다 보니,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기분도 들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교육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보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암기하려고 한다거나, 완벽한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한 바퀴 돌리는 데에 반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직 반도 못 봤는데 교육학을 포기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거부감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 암기는 교육학의 전체적인 구조만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더해 조금의 마음을 지우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실생활과 정말 동

떨어진 학문,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외우라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보자고요. 교육학이라는 게 조금만 이해해 보면 학교생활과 연계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실제 사례들과 연결지어 이해해 보면 쉬운 이해와 장기적 파지가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을 공부한다면, 교육과정 영역에 대해서 큰 제목들 위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일단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면 좋을 거 같아요. 만약 본인이 장독립형 학습자라면, 스스로 구조화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강의존형 학습자라면, 강의에서 해주는 구조화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예를 들어 교육사회학에서 갈등론을 공부할 때, 비싼 학원에 다니면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의 모습과 무기력하게 잠들어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공부해 본다면, 이해도 쉽고 기억에도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창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정도만 떠올려보도록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써 모든 개념에 관한 사례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 ※ 혹시 3학년인데, 교육학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저는 교육학 개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왜 이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4학년이 아니라 3학년 때부터 교육학을 공부 시작하신다면, 각각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육사회학이라는 영역은 왜 공부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만약 갈등론적인 관점을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거를 교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평가 같은 영역은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교육사회학이나 교육행정과 같은 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② 본격적인 인출(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제 한 바퀴를 돌렸다면, 처음에는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디테일한 복습을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책을 다시 보면서 꼼꼼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다만, 인출을 할 때는 구조화를 중심으로 자신이 기억나는 만큼 최대한 인출을 해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복습을 꼼꼼히 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8~10주 정도 넉넉하게 잡으면서 전체 영역을 복습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6월까지는 두 바퀴, 7~8월에 문풀을 하면서 또 한 바퀴를 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좀 더 많이, 세부적으로, 7~8월에 인출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인 것도 보고, 좀 더 키워드 중심으로 인출하는 내용을 정돈해 보고 하는 거예요. 9~11월은 제일 바쁘죠. 이제는 반복의 주기를 좀 더 줄여가야 합니다. 9월에 처음 볼 때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고 마이니한 부분까지 복습해 주세요. 예를 들면, 교육행정-기계문화, 교육평가와 교육연구-평정법, 사회성 측정법 등.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4~5주 동안 전체 내용을 한 번 봐주세요. 10월부터는 진짜 실전이에요. 3~4주간 한 번의 인출을 더 해주세요. 이때 인출할 때는 암기해야 하는 개념은 키워드가 드러나도록 깔끔하게 외워주세요. 당시에 짝스터디 하는 분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뭘때?’라는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맘때쯤에는 모르는 개념들은 없

는데, 정돈이 안 되다 보니 인출할 때 말이 길어져요. 보통 키워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런 게 없도록 인출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가능한 한 많이 인출해 주세요. 저의 경우는 8~10일에 한 번, 4~5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 전날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인출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모고도 복습했어요^^ 하면 다 되더라고요.

## 04

## 역사

## 2023학년도 경기

공부기간 동안 교육학은 넘어야 할 산임을 알고 있지만, 올라가기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19점 이상 받는 점수는 꿈의 점수였고, 19.33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교육학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공부를 해야 하는건 알지만 쉽게 교육학이 손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의 공부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 1. 들어가며

우선 저는 3수까지는 선화쌤의 강의를 듣지 않았고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 유명하신 강사분들의 강의를 돌아가면서 매해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었지만 강의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저의 전공이 많은 암기를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교육학까지 외우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강사분의 강의를 들어도 교육학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3수까지는 힘들지만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16점, 그냥 강의도 듣는등 마는등 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1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육학이라는 과목에 정이 안가던 찰나에 4번째 도전 때 이선화쌤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점수가 오를거라는 큰 기대없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강의만 듣는 수준으로 만족하며 수업을 들었는데 그 해 17점으로 임고 도전 후 처음으로 교육학 점수의 변동이 있고,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5번째의 시작에도 어떠한 고민없이 선화쌤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고, 노량진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1~2월은 직영상으로 듣고 3~11 직장 패키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2. 이선화쌤 수업을 선택한 이유

#### 1) 1년 커리큘럼 따라서 강의를 들으면 교육학 공부 양이 줄어든다.

다른 강사분들의 수업을 들어보았지만 2년 연속으로 이선화쌤 강의를 수강했고, 계속 성적이 올랐던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째 도전에는 전혀 열심히 듣지 않고, 교육학 강의 듣고 형성평가 푸는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1점이지만 점수가 올랐던 이유는 선생님의 강의 방식이 저와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은 양이 방대하고 외워야 할 내용도 많은데 어떤 것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다보면 다양한 강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선화쌤 수업이 많은 양에서도 점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공부해야 할 분량을 줄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육학 전반의 내용을 다 다뤄주시기 때문에 생소한 이론도 들어본적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이론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큰 노력을 들이며 공부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 2) 강의가 지루하지 않다.

강의는 다 똑같은거 아닌가? 강의가 교육학이 어떻게 안 지루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교육학 강의는 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미있다고 느끼고 지루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는 선생님께서 수업 중간중간에 해주시는 이야기들 덕분입니다. 교육학 이론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껴질 즈음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좋은 문구, 아이템 추천 등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지루함이 날아가서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도 다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 3) 공감력 만렙

매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항상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시고,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며 오늘은 어떤지 피곤하진 않은지.. 등등 이야기 해주실 때마다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매일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유독 힘든 날 쌤이 '피곤하시죠~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담스럽기만 하고 공부 집중 안되기도 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잘 하고 있어요!' 등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마음에 박히며 '나만 힘든거 아니지! 할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으로 시작해서 응원으로 끝나는 멘트를 들을 때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주간 시작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따뜻한 이야기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간혹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버터!!'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또 자극도 되고 좋았습니다.

## 4) 매 커리큘럼마다 모의고사 진행

선화쌤 수업 듣기 전까지 모의고사는 9월이 되어야 풀기 시작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화쌤은 1~2월부터 모의고사를 꾸준히 진행하셨고, 첨삭도 해주셨던 것이 좋았습니다. 모의고사를 초반부터 보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감을 잡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어떻게 논술로 풀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 부담감을 이기고 모의고사를 보면 9월에 본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 덜 부담스러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저에게는 친하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 선화쌤의 재밌는 강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졸았습니다.. 직강 들을 때 앞자리에서 계속 조니까.. 너무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집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정도로 저는 교육학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교육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선화쌤의 이러한 부분(그것 뿐 아니라 장점이 훨씬~ 더 많지만.. 간략하게 이 정도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3. 공부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공만으로도 할게 너무 많았을 뿐 아니라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집중해서 꾸

준히 공부하기였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최소한만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 1) 전체적인 공부 방법

월, 화 직강 수업 때 최대한 열심히 수업 듣고 당일 복습 실천하기. 모든 것을 외우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형성평가 80프로 맞겠다는 생각으로 수업 듣고 복습했습니다. 전공의 양이 너무 많아서 교육학에 더 투자하기 어려워서 월, 화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수~토에는 8시~9시까지 1시간씩 교육학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고 밀렸을 경우에는 진도를 우선으로 하여 당일 나간 진도에 대해 복습을 하고, 여유가 되면 밀린 부분에 대해 복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주차 수업을 듣지 못하여, 인강으로 5주차에 듣게 되었다면 5주차 수업 부분에 대해 먼저 복습을 하고 여유가 되면 4주차 분량 복습을 했고, 혹시나 복습을 못했다면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 먼저 형성평가가 틀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가 틀린 부분에 대해 이론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 이후 그날 나간 수업 진도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 공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 1~2월 공부

사실 5번째 도전을 하고, 작년에 선화쌤 수업을 들었다 보니 1~2월은 엄청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월, 화 수업 듣고 교재 복습한 것이 교육학 공부 끝이었습니다. 전공에 더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더러 수업 들었을 때 익숙한 내용을 외운 내용이라 착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업 듣고 수업 내용에 대해 교재 한번 읽는 것이 공부의 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꼼꼼하게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만 해도 이전보다 더 많이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열심히 보내지 않았기에 저는 9월이 되어 이 시기에 왜 열심히 살지 않았는지에 대한 후회가 매우 컸습니다. 이 시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끝까지 보지 않는 이론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배웠던 이론들 위주로만 교재를 읽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1~2월 수업을 듣고 복습할 때 한번쯤은 꼼꼼하게 중요한 이론이든 아닌 이론이든 한번 보고 넘어가야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수업 없는 날 내가 못 외운 이론에 대해 1시간 정도 투자해야 나중에 과거의 나를 탓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 3) 3~4월 공부

1~2월을 열심히 보내지 못했다면 이 시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에 열심히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3~4월에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월, 화 수업 당일>

3월부터 직강 수업을 듣게 되어 수업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전 시간 수업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하며 형성평가 대비 복습을 한번 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뒤 형성평가 때 틀린 내용을 교재로 한번 읽고, 체크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업 내용을 교재로 한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잇키 자료를 한번 읽었습니다.



### 〈수~토 교육학 공부〉

구조화 자료를 보고 내용을 간단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떠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잇기를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구조화를 보고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구조화 자료 읽기 후 바로 잇기 읽기를 했습니다. 월, 화 진도 분량을 4일로 나눠서 4일 동안 구조화 자료 보고 잇기 자료를 보았습니다. 만약 모의고사 보는 주간이 있었다면 진도 2일 동안 보고, 모의고사 4분야를 2분야씩 나눠서 2일 동안 보았습니다.

저는 전공이 해야 할게 많았기 때문에 수~토 시간에 교육학을 공부할 때 1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노력했고, 2시간은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 4) 5~6월 공부

3~4월을 알차게 보내고 나니 교육학에 대한 욕심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물론 교육학은 여전히 친해지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다보니 열심히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20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보자! 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짐은 3~4월부터 마음을 먹었지만 중간에 진짜 점수가 오를까 하면서 해이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3~4월에 교육학을 놓지 않고 공부했더니 5~6월에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컸던 만큼 슬럼프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분명 열심히 외웠고, 저번주에 봤던 내용인데 모의고사에서 전혀 기억이 안나고 쓰는데 힘든 이론을 보면서.. 대체 왜 안 외워지는 것인지 고민했고, 또 한번 잡힌 오개념은 쉽게 수정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기간입니다. 이 시점에 선화쌤에게 '외위도 자꾸 까먹고, 오개념은 수정이 되지 않아요.. 교육학이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하고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답답하고, 교육학 포기하고 싶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제자리걸음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안 외워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보면 분명 어느 순간 외워져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셨기에 의심하지 않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의 공부는 3~4월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푸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습-복습이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 〈월, 화 수업 당일〉

원래 2시간 전에 이전 시간 수업 복습을 했는데, 기출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리 풀어보는 것이 수업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되어서 미리 알려주신 분량만큼 풀었고, 이후 시간이 되면 수업 복습을 했습니다. 보통 문제 풀고 복습할 시간이 있어서 이전 시간에 어려웠거나 틀렸던 이론 위주로 확인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풀었는데 틀렸던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거나 외워두면 좋은 선지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에 형광펜 치고 그것을 요약노트에 필기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업에 대해서 수업 내용 복습 → 요약노트 읽기를 했습니다.

### 〈수~토 공부〉

이때부터는 요약노트를 중심으로 회독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수~토에는 회독 일정을 잡고 회독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2회독이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공부하다보

니 곁핳기식으로 읽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 1회독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업 진도에 맞춰서 요약노트 한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 암기펜을 활용했습니다. 중요하거나 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암기펜으로 밑줄치며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1시간 이내로 교육학 공부 가능해서 부담이 덜했습니다.

## 5) 7~8월

### 〈월, 화 수업 당일〉

이 시기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수업에서 선화쌤께서 문제를 주시면 개요 작성할 시간을 주셔서 예습은 따로 하지 않았고, 이전 수업 복습 위주로 했습니다. 학원에 일찍 가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너무 피곤해서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수업 때 졸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간단하게 이전 시간 내용 보고 남은 시간에 잤습니다 ^\_^ 그래서 수업에 덜.. 졸았어요 ㅋㅋㅋㅋ

당일 복습은 당일 나간 복습에서 개요를 원활하게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론을 요약노트 한번 읽고, 그날 나간 문제 중에서 1~2문제 정도 8분 시간을 재고 직접 글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가지고 3개씩 써보아야지! 했지만.. 점점 전공의 압박을 느끼며, 2개로 줄이고 8월이 되어서는 1개씩만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1개씩은 꼭 쓰는게 도움이 되어 1개는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 〈수~토 공부〉

이 시기에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만 하자.. 최소한으로 최대한 효율을 도전하며 요약노트 회독을 1회독 했습니다. 여유가 되면 더 많이 회독하는 것이 좋지만 전공의 압박으로 1회독하는 것으로 만족하자고 여겼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수~토 중에서 교육학을 못 보는 날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회독이 당시 저에게는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도 진도에 맞춰서 5~6월에 암기펜 쳐놓은 것을 바탕으로 암기판?으로 가리고 외웠는지 체크해보고, 모르면 암기판을 빼고 내용을 읽어보기를 진행했습니다.

## 6) 9~11월

### 〈월, 화 수업 당일〉

이 시점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제일 수업 부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 전에 이전 시간 수업 내용 한번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이론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하루에 2개의 모의고사를 볼 때 1개의 모의고사만 풀고, 자료만 가지고 해설은 듣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수업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수업 듣는 것보다 혼자 해설 읽고 전공을 더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수업을 듣지 않으면 교육학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안할거 같았고, 모의고사를 자꾸 미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복습 시간, 교육학 공부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설 때 이야기해주는 이론을 복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를 주시는데 저는 모의고사 풀고 해설을 읽어보니 그리 오래 기억에 안 남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수업을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듣고 보니 9~11월에는 당일 복습시간이 제일 적게 걸렸습니다.

당일 해설 자료 한번 읽어보고, 틀린 부분 이론을 요약노트 읽어보았습니다. 마무리 공부할 때 더 집중해서 볼 부분과 힘을 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틀린 내용을 스티커로 요약노트에 붙여두었습니다. 이때 요약노트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답안으로 작성하기 좋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 <수~토 공부>

저는 요약노트를 가지고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이때도 요약노트로 회독했습니다. 이때는 1달 1회독을 목표로 해서 요약노트 분량을 나누고 약 10~20페이지 사이로 매일 봤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공부를 했지만 교육학은 하지 않고 전공만 했기 때문에 저는 수~토 1시간씩 보는 것을 유지했습니다.

### 7) 수업이 없는 마무리 기간

저는 원래 스터디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때 스터디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학을 추가로 더 투자하고 싶지 않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혼자하는게 제일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스터디라는 강제성이 없으면 전공을 하느라 교육학을 아예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선화쌤의 마무리 특강을 기점으로 다음날부터 시험 전날까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 [스터디 일정]

15일: 모고 1회~4회 복습 + 원데이 특강 잇키 자료 1~10쪽

16일: 전공 보강으로 스터디 진행하지 않음

17일: 모고 5회~8회 복습 + 원데이 특강 잇키 자료 11~20쪽

18일: 모고 9회~12회 복습 + 원데이 특강 잇키 자료 21~30쪽

19일: 모고 13회~16회 복습 + 원데이 특강 잇키 자료 31~40쪽

20일: 모고 17회~20회 복습 + 원데이 특강 잇키 자료 41~50쪽

21일: 모고 21회~24회 복습 + 원데이 특강 잇키 자료 51~60쪽

22일: 모고 25회~28회 복습 + 원데이 특강 잇키 자료 61~70쪽

23일 모고 29회~33회(추가문제) 개요쓰기 & 복습 + 원데이 특강 잇키 자료 71~74쪽

1시~3시까지 2시간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때는 해당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고 외웠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인출 스터디 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암기카드를 만들어 암기카드에 적어두었고, 이것을 시험 당일 아침에 보았습니다. (모의고사에 관료제가 나왔고, 끝까지 관료제 부분이 외워지지 않아 암기카드를 당일날 봤는데 바로 관료제가 나와서 빠르게 쓸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위해서 스터디 준비 시간이 필요했는데, 당시 저는 전공도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전공 외우기 바쁘다는 생각이 들어 준비 시간도 1시간 이내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스터디 내용 읽고, 못 외운 내용은 암기카드에 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시험문제가 다 나와서 마지막에 복습했던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통 모의고사 때 서론 작성할 때 10~12분 정도 걸렸고, 4번의 시험에서는 서론 작성할 때 15분이 걸리거나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복습이 잘 되어있었다보니 10분만에 서론 작성을 다 했기 때문에 논술 작성할 때 시간의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4. 2차 준비

1차 합격한 뒤 선화쌤께 연락을 드렸고, 영상을 촬영해서 메일을 보냈더니 선화쌤께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수업 내용과 조건, 교과서 내용과 일치한지 등의 부분만 점검했기 때문에 정의적인 부분에 대해 고치거나 볼 여력이 되지 않았는데 선화쌤께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동, 정의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2차에서 크게 감점되지 않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합격하신 분들 꼭 피드백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 나가며

이렇게 적고 보니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보이지만 수업 때 줄기도 많이 줄았고,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공부했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한 날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수~토에 교육학 1시간 공부하기! 이게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전공하다보니 교육학은 교육학 수업 내용 복습만으로 힘들었던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전공이 밀린 날이면 교육학은 뒷전이 되어 월, 화 수업을 듣고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복습도 대충 하고 넘어갔던 날도 많았습니다. 교육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저는 열심히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교육학을 놓치지 않고 했던 이유는 '선화쌤이 좋아서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좋아한다는 말에 걸맞게 교육학을 좋아하진 못했지만 선화쌤이 좋았고, 수업이 재밌어서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학을 해야 하지만 이전에 저의 전적을 보면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전공해야 하나까..'하며 흐린 눈 하면서 넘어갈 확률이 높는데 선화쌤이 좋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19.33점이라는 저에게는 꿈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을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수업 열심히 듣고 추가적인 공부로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수업 복습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 05 도덕 윤리

### 2023학년도 서울 초수 합격 교육학 20점

#### <공부 시작할 때 상황>

- 오랫동안 기간제로 사립 지원하면서 일하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임용 준비했습니다.
- 2021년에 이선화 선생님 1~2월 강의 수강으로 듣고, 12월에 사립 준비하느라 암기 벼락치기를 한번 해서 2022년에 본격 임용 시작할 때는 완전 노베이스는 아니고, '희미하게 이해가 되는 것도 같은 기분, 설명 들으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말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대학교에서 교육학 잘 들으신 분들과 비슷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 <기본 사항>

- 이선화 선생님 1년 강의 쪽 따라가면서 교육학 준비했습니다. (1, 2월 수강 / 나머지 직강)
- 스터디는 3~4월에 잠깐 인출스터디를 했는데, 저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후로는 혼자 수기로 인출 연습했습니다.
- 노트 정리하는 것이 적성이라, 서브 노트 정리 + 암기 인출용 노트 정리했습니다.

## <합격 후기>

- 공부했던 흐름 대강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4월 :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화하기 위해 서브노트 만들기 / 강의 복습 위주 암기
- 5~6월 : 기출 사례 확인하면서 임용 유형에 적용하고 감 익히기 / 전공에 치여서 암기를 제대로 못했던 시기입니다. TTT
- 7~11월 : 인출노트로 본격 암기 / 문풀과 모고로 실전 연습 / 문제의 의도에 맞게 인출하고 내용 쓰는 연습 정말 별 것 없지만.. 초반에 내용 이해에 공을 많이 들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제가 공부한 것에 별다른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합격 수기를 쓰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 교육학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① 꼼꼼하고 정확하게 내용 이해 ② 문제와 제시문의 요구사항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 >>> ③ 암기’ 인 것 같습니다.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①, ②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암기만 시작하는 것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① 꼼꼼하고 정확하게 내용 이해하기

①의 경우, 저는 선생님 교재와 설명, 필기한 내용들 바탕으로 제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말로 정리하고, 흩어진 개념들을 제가 기억하기 편하게 순서를 바꾸거나 표로 정리하거나 하는 등 서브 노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이해되는 것 같지만, 막상 이걸 다시 정리하려고 하면 내가 모르고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항상 발견되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재를 다시 꼼꼼하게 읽거나 다른 교육학 교재를 찾아보거나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7~8월 쯤에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문풀과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그때그때 교정해 나갔습니다.)

일단 이해가 선행되고 나니, 암기에 들이는 노력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서브노트 정리는 ①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구요, 4월까지의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② 문제와 제시문의 요구사항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

②는 기간제 하면서 모의고사 지문 주구장창 읽고 분석하고 수업하고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②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시험장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그리고 5~6월 사례 분석 수업에 들어가면서는 ②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파악이 정확히 안되어서 틀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면, 시간 내에 쓰는 연습보다 제시문과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의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제 파악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니 좀 막막한 것 같기도 한데요. TTT
- 수험생이 제시문을 읽고 ‘아 이게 ~~영역에 나오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문에는 반드시 힌트가 될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을 읽고도 키워드가 보이지 않거나, 내가 공부한 것들 중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다시 정확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점 부분에 나와있는 문제(‘논술의 내용’ 부분)와 제시문은 대개 서로 대응되는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시문에 논술 조건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제시문에 답안의 방향성이 암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제시문과 문제에서 묻는 것을 반드시 대응시켜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③ 암기

효율적인 암기 방법도 자기 공부 스타일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저는 형성평가를 만들어서 혼자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전체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출용 정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 〈교육과정〉

교육과정 의 의미	교육과정의 층위 (교육과정의 다의성)를 쓰세요	계화면 / 전개면 / 실현면 (문서 / 실천 / 성과) 학습자, 사회, 교육
교육과정 의 이해	교육과정 결정의 3요소와, 그것을 중점 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안을 각각 쓰세요	〈학습자〉: 경험 중심 / 인간 중심 / 구성주의 / 인지주의 교육과정 〈사회〉: 생력 / 직업 준비 / 생활 준비 / 사회적 조. 교육과정 〈국가〉: 학문 중심 / 선형적인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의 이해	장제적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에 반대 ( )를 통해 배우게 되며, 보다 ( )을 지닌다. 장제적 교육과정에는 공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 들도 포함되며, 장제적 교육과정은 주로 ( ) 영역과 관련된 것들이고, 교사 의 ( ) 측면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 는다.	→ 장기적으로 변화함으로써 → 장 구성 → 생력성 (제도, 등가 등) → 인격적
교육과정 의 의미	핵심과 드러본의 장제적 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모두 쓰세요	역순: 공명, 상강, 평가 / 드러본: 독립성, 생력성, 모순성, 독창성
교육과정 의 의미	영 교육과정의 개념을 두 측면에서 쓰 세요.	(구성 측면) 교육적 가치가 있고, 교육 목적이 부합하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으면서도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내 용 (→ 무기, 학생, 외국 부속)
교육과정 의 의미	브버트는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이성적인 어른의 세계를 분석하고, 이 를 기초로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현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봄 → 브버트 주장의 의의 2가 지 쓰세요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 높은 교육을 추구해 → 교육의 실용성, 사회적 효율성 up → 학생들의 동기 up
교육과정 의 의미	피아제의 주제에 방법론의 단계를 쓰세 요.	회기 → 전환 → 분석 → 종합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 기억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 혹시나 싶으니 봐 두라고 하신 부분  
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잘 안외워지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출노트 만  
들어서 전체를 4주 내에 돌릴 수 있게 1/n 해서, 매일 인출 연습을 했습니다. (여름까지는 주요 영역만  
돌렸습니다) 시험 가까워지면서는 3주 내에 한 번, 2주 내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점 양을 늘려나갔구  
요. 몇 번 반복하니 가을쯤부터는 교육학은 하루에 1시간~1시간 반만 투자해도 기억이 웬만큼 유지가  
되었습니다.

## <기타>

- 의심 없이 이선화 선생님 믿고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TTT 킹갓선화쌤..
- 운동 반드시 하시면서 체력 관리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TTT 저는 안그래도 좋지 않은 체력인데 운동하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해서, 10월부터는 거의 사람이 아닌 상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에 병원가서 침 맞고 링거 맞고 누워있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니까 건강과 체력 관리는 초반부터 꼭 해 나가세요.
- 일주일 벼락치기 하는 공부 가 아니니 휴식도 꼭 필요합니다. 공부와 휴식이 루틴하게 돌아갈 수 있게 계획 세우시구요, 쉬는 날에는 죄책감 없이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현타가 오거나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아예 2~3일 자기에게 휴가도 주세요. 저도 여름에 2박 제주도 갔다왔는데.. 그 힘으로 10월까지 간 것 같아요.
- 전공도 그렇지만 교육학도 처음 보면 이걸 다 언제 외우나 싶어 아득하기만 한데요,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해해 나가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머리에 박혀 있게 되어서 시험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이선화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 06

## 지리

## 2021 서울 초수 합격수기

서울지역 초수로 합격하였고, 전공은 지리입니다.

### 1. 점수

교육학은 17점 받았고, 전공은 73점이었습니다. 사실 가채점을 했을 때에는 교육학이 워낙 열린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 같아서 가채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3점이 감점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위를 보니 교육학에서 점수를 잘 받은 편인 것 같았습니다. 또 2차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감점되어서, 1차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놓은 것이 합격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 2. 1차 준비 (교육학)

#### 1) 생활 + 컨디션 관리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말하자면, 저는 복수전공을 하였기 때문에 4학년 1학기에도 21학점을 들었고 졸업시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지리 임용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이라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다음날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시간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공부하는 시간에라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고,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라도 알게 되었으면 잘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 관리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운동과 휴식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3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시간 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집에서/기숙사에서 최소 30분은 코어운동과 스쿼트를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 꾸준히 조금이라도 운동을 한 것이 체력적인 기반이 되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신념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푹 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온전히 쉬었습니다.

## 2) 교육학

### ① 체계 잡기

교육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3학년 2학기입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 다른 강사의 강의도 들 어보긴 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교육학 체계도 잡혀있지 않다보니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선화 교수님 강의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았고, 3학년 2학기 때 2020년도 1~2월 강의를 들으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육학 강의를 들었을 때에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았고, ‘이게 다 사람의 머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암기를 하진 않았고, 강의를 따라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 이선화 교수님 강의에서 제공되는 구조도를 외우고, 영역별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구조도를 외울 때도 물론 생소한 용어는 많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구조를 먼저 잡고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무턱대고 구조도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외우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구조도를 먼저 외우면서 어느 정도의 체계를 잡는 작업을 하였고, 영역별로 강의자료를 보면서 강조되었던 부분 위주로 직접 쓰며 단권화를 했습니다. 교육학은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보면 익숙해지는 느낌이 크게 드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구조도 암기와 단권화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잡은 후 3월부터 11월까지 이선화 교육학 인강 커리를 따라가며 공부하였습니다.

### ② 인강 커리

인강을 들으며 했던 공부는 이선화 교수님이 강의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매 강의 제공되는 형성평가와 짧은 글쓰기를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구조도도 같이 참고하며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강 커리를 따라가면 형성평가도 반복적으로 복습할 수 있고 진단평가도 있어서 제공되는 문제만 성실히 풀면서 따라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성평가는 그날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을 누적해서 확인해 가면서 암기를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 저는 공부에 있어서 반복과 인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주시는 잇기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번 반복하며 인출하면서 저의 약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 ③ 교육학 스터디

교육학 스터디는 코로나로 인해 전화스터디로 진행하였습니다. 전화스터디는 두 개를 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명이 하는 전화스터디와, 8월~11월에 모든 일과 후 인출 짝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세 명이 하는 전화스터디는 세 명이 각각 다른 교육학 강사의 인강을 듣고 있었기에 각 강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서 공부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는 영역별로 각자 인강에서 강조한 부분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모든 영역을 다룬 후 6~7월에는 영역별로 각자 10~20 문제를 만들어와서 풀고, 그 문제를 인출카드로 만들어 돌아가면서 말로 인출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인출할 수 있을 때인 8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재어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1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모의고사 역시 다양한 강사가 출제한 모의고사를 번갈아가며 풀었습니다. 매일 진행했던 전화 짝스터디는 8월부터 하였고, 밤마다 30분 교육학 인출, 30분 전공 인출을 하며 진행했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질문하고 인출하는 식으로 하였고, 질문할 때에는 이선화 교육학 교재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저의 수험생활을 돌아볼 때, 전화스터디를 통한 구두 인출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구두 인출을 하면서 가장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인출이 안 되는 내용은 노트북 메모장에 계속 누적하여 적어두면서 매일 인출하였습니다.

#### ④ 혼자 공부

인강이나 스터디 외에 혼자 공부한 것은 짧은 글쓰기, 모의고사 풀이입니다. 하루에 한 주제씩 짧게 글을 써볼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와있는 자료를 통해 외운 내용을 문장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였고, 모의고사를 써보기 전 글쓰는 연습하기에 좋았습니다. 하루에 두 주제씩 써보고, 모범답안을 확인하고 다시 써보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매일 한 시간씩 시간을 재어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선배들 자료에 있는 문제와 일주일에 3~4개 정도 올라오는 이선화 교수님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였고, 시간이 없을 때는 개요쓰기 정도만이라도 꼭 하였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인출스터디를 하면서 막혔던 부분들이나 암기가 잘 안되었던 부분을 따로 정리하고 암기하면서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교육학 오답노트 활용) 그리고 저는 교육학 내용 중 정말 외워지지 않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포스트잇에 써서 방이나 침대 옆, 문 등 곳곳에 붙여두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추천해 주신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붙여두면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3. 2차 준비

2차 준비 역시 이선화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활용하여 기출문제를 공부하였고, 또 주요 주제를 정리해 주신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요 주제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할 수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지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2차에서 심층면접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마지막 답변만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서 1점 정도 감점되고 나머지 면접 답변에 대해서는 감점되지 않은 듯 합니다.

저는 이선화 교수님 강의를 계속 인강으로만 들었고, 직접적인 상담이나 첨삭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인강에서도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어렵지 않게 교육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재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주시는 자료가 마지막까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료 중에서 더 강조되는 내용이나 최근 주목되는 주제 등을 표시해두고 계속 확인하는 것 역시 교육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저희를 진심으로 위해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큰 힘이 되었고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선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큰 시험을 치른 후 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므로 늘 몸과 마음의 건강에 가장 유의하면서 수험 생활이라는 시간 역시 의미있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07

## 화학

## 서울 화학 자석

(교육학 점수 : 초수 - 17점, 재수 - 19점)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를 졸업하였고, 재수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 때 이선화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교육학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기대를 주셨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교육학 수강 방법

저는 재수 때 이선화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초수 때 2차에서 떨어진 이후 교수님의 카페로 교수님께 강의에 대한 문의를 드린 후 3월부터 직강을 들었습니다. 3월이 시작되기 전에는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한번 훑어 보는 마음으로 정리하였고, 3월부터 11월까지 교수님의 강의만 따라갔습니다.

### 2. 복습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복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복습했습니다. 직강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바로 복습자는 마음으로 학원에서 자습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너무 피곤한 날은 집에 일찍 간 적도 있었지만 무조건 수요일 이내로 복습을 끝냈습니다. 교수님께서 화요일에 해주시는 특강 또한 빼먹지 않고 모두 복습했습니다. 교수님의 구조화 특강은 꼭 추천합니다. 복습시간은 대체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만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학원을 가지 않는 날에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했는데 9시에서 10시 사이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공부 시작은 꼭 교육학으로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교육학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9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9시부터 10시 또는 10시 30분까지는 교육학을 보는 것입니다. 되도록 매일 아침에 교육학을 보았습니다. 아침에만 교육학을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공에 집중했습니다.

이선화 교수님께서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매우 공감하였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는 날에 보는 교육학은 전에 배웠던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6월부터는 교수님의 서브노트를 활용하여 주로 복습했는데 학원을 가지 않는 날에 2가지 주제씩 봤었습니다. 교육의 이해, 교육사, 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수-학습, 교육 공학, 교육 평가,

교육 행정, 교육 사회의 9가지 주제 중에서 2가지의 주제를 골라서 봤었습니다. 어느 요일에 어떤 주제를 볼 것인지는 매주 월요일에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계획을 일주일씩 미리 짜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주 동안 교육학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 3. 스터디

저는 재수 때에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학원에서 교수님께 여쭙봤습니다. 초수 때는 짝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키워드에 대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키워드를 쓴 종이를 뽑아서 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인출하는 스터디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4. 단권화

저는 주로 교수님의 서브노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의 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브노트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주로 포스트잇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서브노트를 내 단권화 노트로 만들자는 마음으로 서브노트에 필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 5. 교수님의 강점

첫 번째로, 교수님의 상담입니다. 상담할 때 항상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든 점들을 털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험 생활에서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의 첨삭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을 해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삭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자료들입니다.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통해 내 실력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강 때 주셨던 STEAM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 등의 자료들로 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교육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교수님! 교수님의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꼭 좋은 교사가 되어서 다시 찾아 뵙고 싶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_^

08

미술

2023학년도 서울 초수 차석 교육학 20점

1년 동안 이선화쌤 강의 따라가면서 공부했고 교육학 캐리밭이 최합했습니다. 초수여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고 수월하게,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강의력도 강의력이지만 선생님 특유의 위트와 힘내라는 메시지에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차석이라는 감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적어보려 하나... 정말 별 게 없기 때문에 약간 민망하네요TTT

## 1. 공부 방법

저는 1~11월 직장 패키지를 신청해서 다녔습니다. 저는 인강에 집중을 잘 못하고 집에 있으면 늘어서는 게으름뱅이에 의지박약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1~6월까지의는 무조건 인출했습니다. 매일 영역을 정해 두고 빈칸 잇기자료를 펴 두고 노트에 해당 내용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인출 후 꼭! 반드시! 인출내용을 채점했습니다. 인출 채점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평가 점수가 점차 오르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수기인출로 진행했는데, 교육학 시험은 결국 눈술이다보니 손으로 써야 시험장에서도 쓰는 것이 익숙할거라 생각해서 수기인출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7~11월에는 인출을 간략화하고 회독에 주력했습니다. 이 시기에 모의고사 점수가 널뛰기를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하시던 방식 고수하시면서 해 나가시면 문제 없이 고득점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극하반기인 11월에 급 공부에 싫증을 느껴서 꽤나 애를 먹었는데 하기 싫어도 무조건!! 독서실에는 나가자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공부했습니다. 직장은 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따로 풀라고 주신 모의고사까지 전부 풀었고, 성실하게 커리큘럼 따라갔습니다.

## 2. 단권화 / 요약노트

단권화를 따로 하거나 요약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약교재를 구매하기는 했으나 저는 기본서를 끝까지 봤습니다. 잇기자료는 인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인출 후 채점은 기본서 보면서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거나 기출문제집을 풀고 나서 추가 내용 역시 기본서에 모두 필기했고 끝까지 기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 3. 스터디

저는 1월부터 직장에 나갔기 때문에 직장생 대상으로 구성해 주시는 스터디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끝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았으나 스터디 유지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초반에는 수업이 끝나면 주 1회 배운 범위 내에서 문제를 만들어 푸는 수기인출 방식으로 진행했고, 후반부터는 매 수업시간 전에 구두인출, 수업시간 후에 배운 내용 번갈아가며 설명하면서 복습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같이 하는 쌤들과 대화하면서 공부가 덜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너무나 외로운 것이니 스터디 구성하셔서 같이 어려웠던 점도 이야기 나누시고 의견도 공유하시면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가 덜 쌓이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진 사람을 좋아하는 제 경우라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마 선생님들이 선호하시는 방식과 성향에 따라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2차는 면접 강의까지만 듣고 수업실연, 면접 스터디를 개인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때는 정말 스터디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미술이다보니 실기까지 병행하느라 정말...ㅠㅠ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꼈는데 어찌저찌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ㅠㅠ.. 다시 돌아가서 하려면 못할 정도로 후회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1년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교육학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좋은 결과 얻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힘낼 수 있게 도와 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09

음악

2022학년도 서울 초수 교육학 면접

안녕하세요!

올해 초수로 서울지역 음악교과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교육학은 감사하게도 20점 만점 받았습니다! 1차는 정말 교육학 덕분이었어요... ㅎㅎ

### 1. 교육학

1~2월은 유튜브 강의 듣다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할 것 같아서 3월부터는 이선화 선생님 인강 패키지로 들었습니다. 교육학은 무조건 이해 기반 달달 외워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오픈형 문제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조건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암기가 중요하게 아니라 암기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5월은 강의듣고 이해하느라 바빴고 6월부터는 주 6회 교육학 백지쓰기 스티디로 범위를 짜서 백지 하루에 한장쓰기 인장으로 꾸준히 3회독 돌렸습니다. 저같은 장의존형에게 매우 도움 많이 되었어요.

9월부터는 모의고사 하루에 한 개씩은 꼭 풀었고 써보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개요만 쓰기보다는 서론, 결론을 갖춰서 전체적으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청킹이랑은 잘 안맞아서 정말 죽어도 안 외워지는 것 빼고는 그냥 외웠습니다!

마지막 11월쯤에는 잇키자료로 주로 공부했습니다. 죽어도 안 외워지는건 따로 노트에 적어서 매일 암기했고 그외에는 잇키로 전체적으로 공부했어요. (이전에 세부적인 암기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교육학은 무엇보다 꾸준히 공부하시는게 중요해요. 미루다가 나중에 큰일나요!! 저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강의포함 5시간 정도 거의 매일 공부했습니다. (주 5~6회)

### 2. 면접

#### \*1차 발표 전

면접은 1차 끝나자마자 한마음에서 구했어요. 다만 초수라서 안 끼워주는 스티디가 많아서 일주일은 고생했어요..... 댓글을 10개는 단 것 같은데 다 연락이 안오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째 되는 날 연락오셔서 같이 스티디 진행했는데 다들 재수 이상이셔서 1차전부터 엄청 빠르게 했어요. 저는 이 면접 스티디 없었으면 못했을거예요... 정말 너무나무 좋고 성실한 선생님들 만났어요!!! 운이 이렇게나 좋았습니다. ㅎㅎ

#### ✓ 면접레시피 1회독

스티디는 온라인으로 했어요! 첫날부터 서울 면접 문제 유형대로 구상형 2문제, 즉답형 1문제, 추가질문 2문제 각자 만들어서 바로 시작했어요. 주 3회 아침 9~12 3시간으로 면접레시피 1회독(단원 8개

기반으로 문제 출제해서 총 8회) + 기출 서울, 경기, 평가원 지역 2019, 2020, 2021 3회 + 시책 회독으로 1차 발표 전까지 총 11회 스터디 했어요.

#### ✓ 시책 정리

시책은 따로 중요한 부분이나 어려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책을 면접답안에 녹여내려고 노력했어요. (이번에 청진기, 꿈NUM꿈,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등등 활용했어요) 저는 평소에 말은 잘하지만 논리적으로 말하는게 부족해서 처음엔 엄청 어버버거리고 논점도 흐렸는데 스터디 뽕뽕하게 하다보니까 엄청 늘었습니다.

#### ✓ 행복한교육 요약 스터디

그 외에도 행복한 교육 월마다 나눠서 요약하는 스터디 들었어요! 사실 1차 발표전에는 잘 보진 못했고 발표 후에 훑었어요.

### \* 1차 발표 후

#### ✓ 오프라인 스터디

저희는 감사하게도 4명 모두 1차 합격해서 같은 팀원으로 오프라인 스터디 시작했어요! 똑같이 주 3회 했고 면접레시피 실전문제들로 총 4회 + 신년사 기반 문제 출제 3회 + 2022 초등문제 1회 진행했습니다. 저는 신년사 분석 기반 문제 출제한 게 정말 많이 도움되었어요. 이번에 저희끼리 생태전환교육 나올거야 하고 예측했는데 구상형 1번부터 나와서 너무 소름이었어요!! 구체적인 방안 말하라 할 때 '생글생글' (생태 + 그린교육) 동아리 만들어서 하겠다~ 라는 등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 ✓ 면접노트 만들기

1차 발표 후는 본격적으로 면접노트를 만들었어요. 면접레시피랑 신년사 기반으로 항목을 나눠서 (예를 들어 원격수업, AI기반 수업, 수준별학습, 생태교육, 학교폭력, 학생 중심 수업 등등) 각 항목에 맞는 시책내용이랑 개인적인 아이디어, 팀원들이랑 나누는 아이디어 등을 표로 작성해서 면접노트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학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이선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ㅎㅎ 모의면접 때도 "면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해주셔서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ITT 피드백도 꼼꼼히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 10

## 체육

###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

#### 1) 임용 시작 전 나의 마음가짐

초수에 커트로 1차를 합격하고 최종에서 떨어진 후 다시 준비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 최종에서 떨어진 후에 우울하거나 심리적인 타격은 없었지만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발표에서 탈락을 하자마자 지난 1년 동안 부족했던 점을 되돌아보았고 바로 이선화 선생

님의 교육학 패키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월부터 바로 교육학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시작하였고 전공은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정리하며 3월에 전공을 시작할 때를 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 2) 초심 유지하는 방법

### 1. 리프레쉬

저는 재수인 만큼 긴 마라톤을 한 번 더 이어가야 하므로 초반부터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지치지 않고 서서히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에 2~4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쉬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리프레쉬를 하는 시간을 가져 최대한 슬럼프가 오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후를 바라보며 공부하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살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토요일 저녁 전까지 공부를 하고 저녁 6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는 하고 싶은 운동이나 친구들과 만나면서 죽을 때까지 놀았습니다. 이래야만 다음 토요일까지 놀고 싶은 마음이 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에 새로운 일주일을 위한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웠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저녁 시간만을 위해 또 공부를 하며 일주일만 살았던 것이 긴 시간을 버티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2. 사고

수험생 입장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1년을 버틸 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믿고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친구 등을 떠올리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자신만의 힘이 되는 사고를 함으로써 집중력을 높이고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시험 당일 마음 조절하는 방법

시험일 2주일 전부터 시험 당일 시간표와 유사하게 생활하였으며 시험 전 3일은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시험 전날에는 9시에 취침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험 당일을 위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루틴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저의 루틴이었습니다.

대신 시험 당일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시험 시작 전까지 되뇌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 분배를 잘하자, 실수는 하지 말자, 아는 것만 제대로 맞추자, 한 번 봤을 때 바로 떠오르지 않는 문제는 바로 넘어가고 그 후에 다시 보자 등이 있었습니다.

## <합격을 위한 시간 관리하기>

### 3~8월

3~7월 동안만 강사 주 1회 3시간을 하였고 그만두었습니다. 2학기에는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수목은 하루 종일 일반교육학 공부, 월화금토는 전공 공부만 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쉬는 시간이었고 10월부터는 쉬는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지는 전공 영역별로 하루에 2~3과목, 과목별 2시간 정도씩 공부하였습니다.

## 9~11월

9월부터는 8시부터 11시까지 무조건 일반교육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혹시 늦잠을 자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 공부 시작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도 스케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못한 공부를 채우려 한다면 오후와 저녁에 세운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간에 하지 못한 공부는 과감히 버렸으며 그래야 다음번에 '아 내가 시간을 지키지 않으니 일반교육학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구나'하며 스케줄을 보다 잘 지키려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일에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골고루 풀어야하기 때문에 9월부터는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최대한 많은 영역을 공부하려 했습니다.

- 8~11시 : 일반교육학
- 12~13시 : 문서(총론 + 각론)
- 13~17시 : 전공 교육학
- 18~23시 : 전공 내용학

나름대로 출제 비중에 따라 시간을 분배하였고 전공 교육학이 30~35%를 차지하는 만큼 매일 투자하였습니다.

## 11월 스케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	일반교육학	문서	행정학	로스쿨	교육학	교육과정	역학	생리학	건강+TR	체육학	사회학	스포츠 심리	윤리+영어	재정	정책(윤리)	보건의사	가을	
2	11월1일목요일	구1234전반	교수학습	14-1440	1450-1520	1520-16	1620-1650	19-1930	1950-2030									
3	11월2일금요일	02, 03, 04, C	평가	14-1440	1450-1520	1520-1540	1630-1625							1945-2015	2020-2050	2050-2120		~조근
4	11월3일토요일	01		지도사	지도사	지도사								지도사	지도사	지도사		지도사
5	11월4일일요일	이1, 02, 03																조급함
6	11월5일월요일	구4, 전1011	심각, 복음	1315-14	1415-1440	1440-1520	1530-16	지156/	교육계/	1950-2015	SEM/							~공책이후
7	11월6일화요일	구7, 전12	내용체계	1410-1455	15-1530	1530-16	1630-1640		내용체계					1910-1950	20-2030	2030-21		~공책이후
8	11월7일수요일	이1, 구-11, 전1	교과	1410-1455				1915-1955	순환계196/	2005-2020	교과지195/							가을1/
9	11월8일목요일	이1, 구12	평가	1315-14	1505-1520	1520-16	1605-1640		순환계115/					19-1940	1950-2015	2015-2040		가을2/
10	11월9일금요일	요2, 이1, 전14	교수학습	1330-1355	1355-1425	1435-1510	1530-1540	지184/	순환계122/	19-1940	준7/							가을 End
11	11월10일토요일	구11, 전15, 16	평가					지End	순환계 End									김정규님
12	11월11일일요일	구11, 전17, 18	총론, 내적															지도, 14
13	11월12일월요일	C	교과내용학	14-1440	1450-1520	1520-16	1630-1640		가을	18-1830	재료상	재료상	재료상	재료상				
14	11월13일화요일	교수, 전19, 20	제철유체	1410-1450	1450-1510	1520-16	16-1630	17-1730	교육계13/	1945-2005	2010-2040							
15	11월14일수요일	02, 평가	심학내재	1340-1410	1420-1440	1440-1505	1545-1605							1920-20	20-2015	책이 대다,		~조근
16	11월15일목요일	평가, 전21, 22	심학기준	1405-1440		15-1545	1630-1640	1640-1720	교육계 End	20-2020	2020-2030							~공책이후
17	11월16일금요일	요2, 이1, 행정	교수학습	1410-1450	15-1520	1520-1620	1630-1650		내용체계					1650-1845	1955-2030	2030-21		영미
18	11월17일토요일	추기1, 영지심	평가	1345-1430	1435-1455	15-1540		133/	196/	19-1950	20-2030							형병사
19	11월18일일요일	요2																조급함
20	11월19일월요일	추기2, 3, 4, 5																이강준
21	11월20일화요일	추기4, 전23, 24	이강준, 내적	1부	1부	1455-1545	16-1630		216/					1910-1950	20-2040	2040-2115		이강준, 안국
22	11월21일수요일	전24, 0910	교과, 영유	영계				1640-1720	19-1925	1935-2005	2005-2035	한자용	소속					이강준, 서명
23	11월22일목요일	11213	교재															이강준
24	11월23일금요일	전해		부호, 부호	부호도	부호도	부호도							부호도	부호도	부호도	부호도	부호도
25	11월24일토요일																	부호도

엑셀로 스케줄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기본적으로 교육학과 전공의 공부 방법의 큰 틀은 유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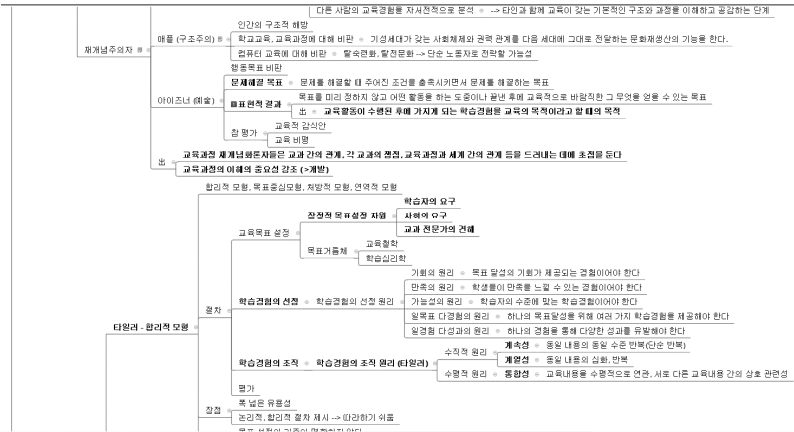
교육학과 전공 모두 서브노트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브노트가 저와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판단하여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서브노트, 교재 단권화, 컴퓨터를 이용한 정리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야 시험이 다가올수록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학 공부 방법

3~8월은 수목 이틀만 교육학 공부를 하였고 9월부터는 8~11시 3시간만 공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줌 인 줌 아웃을 할 수 있도록 이산화 선생님의 교재와 강의를 기반으로 저만의 목차를 마인드맵 프로그램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볼드 처리를 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기출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출문장과 키워드는 모두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ex) 2019 교육학 기출 문제 - 학습경험의 선정 원리

## 마치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 내용 자체가 어려워져서 죽어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해야 할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1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세운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를 떠올리고 초심을 다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특수

2020년 서울 특수 중등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특수 중등에 합격하게 된 선화쌤의 열성팬입니다. (재수)

## 1. 선화쌤 선택 동기

주변의 추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 합격자분들의 대부분이 선화쌤의 강의를 수강했었던다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해위주로 적지도 그렇게도 너무 많지도 않은 양(실은 너무 많지는 않은거지.. 적당히 많긴 많더라고요...^^)을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2주에 1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마다 첨삭을 다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첨삭을 통해서 교정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재수 때는 선화쌤 3~11월 패키지를 끊었습니다.

## 2. 공부 방향(철저한 직장생의 입장입니다.)

[1~2월] 초수 때 1차 탈락 이후 원없이 놀았습니다.

[3~4월] 월화에 교육학 강의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선화쌤 강의를 들을 때 선화쌤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여 들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즈너의 예술적 접근모형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교재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따로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따로 서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암기는 부가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교육학 공부는 강의가 있는 월화에 강의듣고 나서 복습하기까지 했는데 3~4월은 대략 저녁 먹기 전까지 교육학을 충실히 했습니다. (특수 교과시면 3~4월에는 교육학 조금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전공의 양을 잘 몰라서 TTTT)

[5~6월] 선화쌤의 객관식 기출문제 강의 역시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객관식 기출문제 교재와 함께 서브노트 교재를 구매해 단권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러의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 관련 정답지, 문제 지문 등을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교재와 함께 서브노트에 단권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교육학 2회독을 하였습니다.

[7~8월] 이때부터 실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들어섬에 따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히 사용하자라는 마인드로 교육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단권화를 완성한 노트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교육학을 월화에 많이 한다는 느낌보다는 월화수목금 고르게 하루에 1~2시간 정도 교육학을 보았습니다.

[9~11월] 선화쌤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모의고사반 엄청나게 치열해요... 직장 마감 7초 컷이었던 기억이 나요.. 실화예요) 이때 월화에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서브노트에 따로 정리했던 식으로 계속 공부했어요. 공부시간은 학원가는 날은 모의고사 보고 그날 끼 복습하고 교육학 쳐다보지도 않고 전공 공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수목금토일 중 3일 정도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자가 모의고사를 보고 이후에 12시까지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공에 올인했습니다.

## 3. 스터디 방향

스터디는 선화쌤 수업에서 짜준 모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 1회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매주 1개의 영역을 정해서 종이뽑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양이 적은 생활지도 상담이나 교육의 이해 이런 파트들은 2개를 한번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방식은 종이뽑기입니다.

## 4. 총평

선화쌤을 만나 교육학은 걱정 없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선화쌤 너무 감사했습니다.

21년 보건 임용 합격생입니다. 저는 기간제로 일하면서 업무에 적응하며 여유가 생긴 시점에서 '임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한번 익혀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보건 임용 인원이 확대되면서 운 좋게 초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은 대략 (방학 제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다섯 시간 공부'를 목표로 1월부터 꾸준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교육학에 대해 제가 공부했던 소소한 팁을 솔직하게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임용에 합격한 친구의 추천을 바탕으로 이선화 교수님 강의를 1년간 수강하였습니다. 추천 받은 타 교수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선화 교수님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서글서글한 미소(?)에 이끌려 일 년 패키지를 결제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선택이 올해 합격으로 이끌어주었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의 선택을 참 대견해하고 있습니다.

(1차 전공 점수는 몹시 낮았으나, 교육학 18점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은 학부 때 지식이 완전하게 증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암기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교육학은 대학교 교직 이수 당시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조차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아주아주 두려움이 컸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았던 논술이라는 시험 형태에 대한 걱정 또한 많아 임용 공부 시작에 상당히 망설임이 컸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듯 저 또한 시작이 참 어려웠습니다. 또한 작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학교 업무에 몰두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많이 보이는 열정적인 진화스터디나 밴드 활동을 하기에는 그조차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다짐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수강하는 교육학 1년 커리큘럼을 믿고 성실하게 따라가자.' 올해 교육학을 단단히 다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공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기에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약속이 있어도 밀리지 않고 화, 수 인강을 성실하게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밀리는 순간 공부량이 쌓이고 미루게 되며, 공부가 하기 싫어질 수 있기에 하루 공부량을 정해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2월은 방학 기간이라 시간에 여유가 있었으므로 교육학 공부에 하루 5시간 이상 투자하였습니다.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은 '와 진짜 내용이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였습니다. III 단문 암기와 같이 답이 떨어지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공부였기 때문에 1, 2월 공부가 몹시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반에 다치지 않으면 '일년 내내 교육학에 끌려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본 및 심화 이론 강의(1~4월) 동안 어려운 부분은 녹음을 해 반복하여 다시 듣고 확인하였으며, 노트에 내가 이해한 기본 내용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단순 정리 목적이라면 워드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저는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스스로 좀 더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정리하기 위해 펜을 잡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 것으로 흡수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서브 노트 만들기에 양이 많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교육학은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립니다.

1, 2월에 크게 크게 내용을 이해했다면 3, 4월은 심화 이론 강의가 시작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 2월에 펜으로 노트를 정리했다면 3, 4월 강의가 시작되면서 단원별로 워드로 눈에 보기 쉽게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그림 및 표 정리 추가). + 후반기까지 강의가 이어지면서 추가 프린트물을 통해 추가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하여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만든 워드 정리 자료만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모의고사와 짧은 글 쓰기 연습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놓치지 않고 매 제공되는 자료를 놓치지 않고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반에는 짧은 글쓰기조차 부담스러웠는데, 연습이 되니 추후 매주 몇 개씩 쓰는 모의고사 또한 단련이 되어 거부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꾸준히 공부해 온 공부 분야가 아닌 만큼 교육학 공부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잘 다져놓아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공 공부에 시간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1~4월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본기를 다져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 6, 7, 8월 강의부터는 부교재를 활용한 문제집 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초반에 공부한 이론개념이 잘 잡혀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보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문제 풀이가 진행되면서 답을 쓰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으며, 교육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녹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양도 많고 암기량도 많은 교수학습이론, 심리, 행정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외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 10, 11월 강의는 실전과 같은 다양한 모의고사 연습으로 구성되어 글쓰기 마스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쓰던 모의고사에서 매 강의 뽀뽀한 모의고사 연습으로 늘어나 초반에는 허덕허덕이며 겨우 썼는데, 반복적 연습을 통해 시간 분배 및 글쓰기가 점점 깔끔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험장에 가서 보는 교육학 시험이다 생각하고 시간 지켜서 (55분)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보다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서 긴장한 탓에 연습했던 것보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55분 잡고 연습하시는거 추천드려요.

\* 구조화 연습하기 : 제공된 구조화 자료 혼자 그려보면서 큰 틀, 구조 이해하기

\* 짧은 글쓰기 연습 놓치지 않고 꼭 써보기

\* 모의고사 눈술 써보고 부족한 부분은 예시 답안 보고 다시 한번 써보기  
(확인받기 위한 글쓰기 말고 내 실력 향상 위해 글쓰기)

\* 후반기 교육학 공부 시간을 줄이더라도 꾸준히 주요 단원 틈틈이 복습하기

\* 밀리지 않고 인강 듣기(저는 술을 먹고 회식을 하더라도 집에 와서 들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공 공부에 몰두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교육학 강의 듣는 시간은 제게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TT 전공은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지겹고, 하기 싫고, 자꾸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환기하는 느낌으로 저는 교육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즈음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1년 동안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용 공부하는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공부 방법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즐거운 명강의 해주신 이선화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수 / 교직이수 / 학부병행 / 직강)

안녕하세요! 2022 경기 초등 전문상담교사로 최종합격해서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범대가 아니었고 교직이수로 임용을 준비하면서 학교의 선배나 동기가 별로 없어 지의 길잡이는 합격수기들이었습니다. 교육학 합격수기, 특히 전공 합격수기들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수기를 2~3개 정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점검할 때, 그리고 힘들 때 두고두고 읽으며 1년을 따라갔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하면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이대로만 따라가자!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기들을 읽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들 중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제 수기를 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내시고 1년 동안 든든하게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면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 점수

양주시립 2022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양주시립(일반) 교과 전문상담(초등)						
<p>&gt; 합격자 확인</p> <p>꼭자면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p>						
1차시험성적	80					
2차시험성적	90.57					
1차위업가산점	0					
2차위업가산점	0					
총성적	170.57					
석차	28					
과목	점수	가산점	합산점	과목점수	과목여부	검시
교육학	18	0	18	8		
전공	62	0	62	32		
계별면업	90.57	0	90.57	0		

1차 : 교육학 18 전공 62 = 80점  
 2차 : 90.57  
 총점 : 170.57

경기 전문상담 초등  
 1차 컷 : 62.67  
 최종 컷 : 157.80  
 총 선발 : 148명

### 상황, 준비

저는 심리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 2학기부터 교직이수를 했고 전문상담 교과로 임용에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기는 **초수, 교직이수, 상담교과, 비교과 선생님**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최대 학점을 들었고, 4학년 때는 1학기에 교생실습, 최소 학점을 들으며 임용공부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1학기를 마친 후 졸업하고 7월부터는 임용공부에 올인했습니다.

- 3학년 : 한국사, 교육봉사 끝내기, 졸업요건 준비
- 4학년 1학기 : 교생실습, 온라인 강의 위주로 수강신청

4학년 때 조기졸업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일찍 끝내기가 대 학생들에 대한 아쉬움, 졸업을 미리 해버린다면 대학생 신분이란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조기졸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학기에 학교를 끝내니까 2학기에 노랑진에서 살면서 임용고시에 올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직강, 스터디 학원선택

교육학 전공 모두 노량진 직강으로 다녔습니다. 직강과 인강에 있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학원에 가자고 생각했고, 교육학 전공 모두 한 선생님의 풀 커리큘럼을 다 따라갔습니다. 교육학은 이선화교수님 1년 커리, 전공은 희소학원 교수님 커리큘럼을 다 따라갔고 저는 직강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터디는 1년 동안 교육학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전공은 1년 동안 매번 했습니다. 이선화교수님 말씀처럼 1차 시험 때 스터디는 개인의 성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힘이 나는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스터디를 하고자 했습니다. 직강을 다니거나 강의를 듣는 상황이라면 교육학 스터디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 과목이 좋거나 그 과목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좋거나 둘 중 하나는 있어야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에게 교육학은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좋았고 전공은 과목이 좋았습니다. ㅎㅎ

## 월별 공부 진행 (교육학 위주)

### 1~2월

- 교재 : 기본서
- 공부방법 : 수업내용을 듣고 기본서, 구조도 참고하여 공책에 나름대로 정리, 정리하면서 이해와 복습, 정리본을 바탕으로 암기하여 형성평가 준비

1~2월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교육학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공과 다르게 교육학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흥미도 재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교육학 공부는 1~2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소하니까 자꾸 까먹고 잘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형성평가 문제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그냥 꾸역꾸역 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목표는 매 수업 전에 있는 형성평가를 잘 보는 것이었습니다. 7시 반 정도에 학원에 도착하여 9시 전까지 형성평가 범위를 공부했습니다.

### 월, 화

- 직강 전에 형성평가 공부
- 직강 듣고 집에 가면 3시쯤 되었고 점심 먹고 책상에 앉으면 4시 정도 되었습니다. 앉아서 그날 배운 내용들을 종이에 써가면서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교육학 서브노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공책에 그날 배운 내용을 나름대로 위계나 내용별로 정리를 하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하면서 이해가 되고 내용이 익숙해져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공책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정리한 내용을 직강 시작 전에 형성평가를 맞추기 위해 암기하려 노력했습니다.
- 구조도 참고하면서 공부하려고 했고 짧은 글쓰기는 매일하진 못했고 그냥 월요일, 화요일에 틈틈이 써봤습니다.
-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 공부만 했습니다. 집에서 4~5시간 교육학 복습하고 공부했습니다.

수, 목, 금	- 전공 공부만 했습니다. - 전공 역시 이때는 배운 진도를 쓰면서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전공 역시 형성평가 맞추는 것이 최대목표였습니다.
토	- 전공강의는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공강의를 들었습니다. - 시작 전 형성평가 공부를 하고 강의가 끝나고 자료정리를 하면 밤이 되었습니다.
일	- 휴식

### 3~4월

- 교재 : 기본서 한 번 더
- 공부방법 : 기본서 읽기

이제 기본서 한 바퀴를 돌리고 3~4월이 되었습니다. 이선화교수님 말씀대로 한번 일단 보고 다시 보니까 신기하게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1~2월이 끝나고 다 까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공부하고 암기하니까 이제 제가 정리한 공책이 아니라 책 그대로를 봤을 때 책만 봐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2월에 책을 봤을 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하고 암기했다면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3~4월에는 기본서를 보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형성평가 준비를 했습니다.

3월	월, 화	- 교육학 공부만 했습니다. - 직강 전에 형성평가 공부 - 집에 와서 기본서를 읽으면서 복습, 이해, 암기했습니다.
	수, 목, 금	- 전공 공부만 했습니다. - 전공은 아직 진도를 나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배운 진도를 쓰면서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전공 역시 형성평가가 맞추는 것이 최대목표였습니다.
	토	- 하루 종일 전공강의를 들었습니다. 10시 전공강의 시작 전에 7시 반 정도에 도착하여 형성평가 범위를 암기했고, 전공강의가 6시쯤 끝나면 전공 스터디 1~2시간하고 집에 가면 밤이었습니다.
	일	- 학교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교 강의 온라인 위주로 신청해서 강의와 과제를 몰아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쉬었습니다.
4월	4월 한달 동안 교생실습을 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실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생각 없이 교생실습 학교를 대학교 근처로 신청하여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3시간 넘게 전철로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9시까지 가야 했고 5시에 끝나 전철 출퇴근 시간이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놀랍게도 이 시기가 가장 체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이 웃고,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학 공부는 거의 못했고 직강도 인강으로 전환하여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전공공부 진도만 겨우 따라갔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 학교에 7시 반 정도 도착하여 아침 시간에 1시간 정도 전공 공부하였고 밤에 2~3시간 정도 전공 공부했습니다.  
 토 : 전공강의 시작 전에 형성평가 잘 보기 위해 아침에 미리 가서 2~3시간 베타 치기하였고 전공강의 하루 종일 듣고 스테디하고 집에 가면 밤이었습니다.  
 일 : 교육학 강의 인강으로 몰아서 들었습니다. 복습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냥 진도를 따라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학교 강의도 몰아서 들었습니다.

## 5~6월

- 교재 : 기출문제집, 요약노트
  - 공부방법 : 기출문제집 숙제가 있으면 숙제하고 기출문제집 복습하며 형성평가 준비했습니다. 요약 노트를 보며 기본서 내용을 옮겨 적고 요약노트에 단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제 생각에는 5월이 첫 번째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교생실습 때는 정말 친구들, 같이 실습하던 쌤들, 급식 등등 정말 행복했고 금방이라도 이제 선생님이 될 것 같았는데 5월에 독서실에 다시 앉았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꿈에서 깬 것 같고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아 외로웠어요. 전공 기출 진도가 밀려있었고 학교과제랑 졸업시험 등등 학교에 신경 쓸 것들이 많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6월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 준비로 마음이 바빴습니다. 학교 성적에 대한 욕심이 마지막까지도 컸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월,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전에 기출문제집 복습하며 형성평가 공부</li> <li>- 직장 듣고 집에 가면 3시쯤 되었고 점심 먹고 책상에 앉으면 4시 정도 되었습니다. 앉아서 요약노트에 기본서 내용들을 옮겨 적으며 단권화했습니다.</li> <li>-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 공부를 주로 했습니다. 집에서 3~4시간 교육학 복습하고 공부했습니다.</li> <li>- 저녁~밤 시간에는 전공 기출강의 밀린 것을 들었습니다.</li> </ul>
수, 목,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공부만 했습니다.</li> <li>- 전공은 아직도 진도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공 양이 많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전공은 쓰면서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밀린 기출강의를 들었습니다.</li> </ul>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종일 전공강의를 들었습니다.</li> <li>- 시작 전 형성평가 공부를 하고 강의가 끝나고 스테디하고 집에 오면 밤이 되었습니다.</li> </ul>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li> </ul>

## 7~8월

- 교재 : 문제풀이 프린트, 요약노트
  - 공부방법 : 요약노트에 본격적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며 내용을 단권화하며 공부했고 직장 시작 전에도 요약노트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 드디어 졸업을 하고 임용에만 올인하게 되면서 7월부터는 노랑진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노랑진에 있으니 전철 통학시간이 줄어들어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



고사 때 범위를 물어봐도 좋다고 하셔서 저는 이때까지도 교수님께 모의고사 범위를 여쭙보며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만 시작 전까지 저는 계속 범위를 여쭙보았고 그 범위를 체크해 두었다가 벼락치기 하듯이 전날 아침에 그 범위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쌓이다보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시기까지 모의고사 범위 여쭙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 공부시기가 확 줄어드는 것이 하반기부터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숙지되기 시작했고 모의고사도 부담스럽지만 성취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화	- 직장 전에 요약노트 공부, 형성평가 공부 - 여전히 교육학 공부를 주로 했지만 이제 드디어 복습시간이 2~3시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복습할 때는 문제풀이에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다르게 표현된 것들을 요약노트에 옮겨 적으며 요약노트에 단권화했습니다. - 저녁~밤 시간에는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수, 목, 금	- 전공 공부만 했습니다.
토	- 하루 종일 전공강의를 들었습니다.
일	- 오전에는 전공강의 들은 내용에 대해 자료 단권화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교육학 공부를 1~2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부터는 쉬었습니다.

## 9~10월

- 교재 : 모의고사, 요약노트
- 공부방법 : 단권화된 요약노트를 계속 보았습니다. 문제풀이 때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요약노트에 메모하며 단권화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체력적으로도 지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노량진에 걸어 다니는 비둘기도 너무 무서웠고 그냥 모든 것들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디테이가 다가온다는 게 실감이 났고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 문득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공부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원래 공부시간 재지 않고 분량을 끝내면 쉬고 끝났다! 했는데 이 시기부터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독서실에 있는 시간을 공부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래 오늘도 잘했다는 느낌을 주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스톱워치로 딱딱하게 재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에 아침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9시 반에 짐을 정리했으면 점심, 저녁시간 빼고 13시간 공부했다. 이런식으로요 ㅎㅎ 그리고 이 시기에는 눈을 뜨자마자 마스크 쓰고 학원에 짐을 내려두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모의고사 보는 게 무서워서요.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에 전날 짐을 다 싸두고 아침에 눈뜨자마자 그냥 학원으로 갔습니다. 아무생각 없을 때 짐을 놔두고 오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가야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모의고사 쓰는데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짐 놔두고 다시 집에와 아침 먹고 준비하고 학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오전에 교육학 공부를 하고 전공공부를 하고 이 분배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까지도 그냥 월요일 화요일에 교육학 강의 듣고, 오후부터 전공공부하고 수목금토는 교육학 공부를 안 하고 전공에 몰빵했습니다. 뭔가 전공이 모의고사 등수 매기고 범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목금토에는 전공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월, 화	- 월요일 직강 전에 단권화해놓은 요약노트를 처음부터 쪽 읽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교육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했고, 화요일 아침에는 교육과정, 행정, 평가, 교수이론처럼 주요과목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 모의고사 풀고 해설강의 듣고 집에 가서는 바로 계속 전공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과 복습은 집에 와서 잠들기 전 1시간 정도 하고 잠들었습니다.
수, 목, 금	- 전공 공부만 했습니다.
토	- 하루 종일 전공강의를 들었습니다.
일	- 오전과 오후에는 전공 모의고사 들은 내용에 대해 단권화를 하며 공부했습니다. - 저녁시간에 교육학공부를 2~3시간 정도 했습니다. 주로 추가로 나누어주신 프린트나 구조도, 잇키 등을 가볍게 읽으면서 요약노트 외에 다른 나누어주신 자료들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1월

- 교재 : 요약노트
- 공부방법 : 요약노트만 계속 회독하였습니다.

11월은 진짜 그냥 빨리 시험을 보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 싶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으면 서도 안 된 것 같고 시험을 빨리 보러 가고 싶으면서도 시험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외운 것 같은데 맞나?! 싶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비타민과 커피로 돌려막기하며 보냈습니다.

11월이 되어서야 매일매일 교육학과 전공공부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역시 이선화교수님 모의고사 풀고 최근 기술을 원본을 그대로 보면서 모의고사 풀듯이 풀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4번은 찢던 것 같습니다.

월	- 직강 전에 요약노트 전 범위 1회독 - 직강 듣고 계속 전공공부, 교육학은 잠자기 전 1시간 정도 피드백
화	- 직강 전에 요약노트 주요과목 1회독 - 직강 듣고 계속 전공공부, 교육학은 잠자기 전 1시간 정도 피드백
수, 목, 금	- 아침에 1시간 정도 교육학 모고 풀고 피드백
토, 일	- 전공만 했습니다.

## 시험 날

시험이 토요일이어서 시험이 있는 주에는 아침에 2시간 정도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 개씩 풀고 요약노트를 3부분으로 나누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요약노트를 절반으로 나누어 마지막으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웬지 나올 것 같은 것을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시험장에서 아침에 포스트잇 부분을 가볍게 읽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가방을 다 싸두고 잠들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저는 진짜 1년 내내 잘 잤기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시험 전날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잠들려고 누웠는데 생전 처음으로 어떻게 잠들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을 받았습니.. ㅠ 10시에 누웠는데 2시 넘어서 잠든 것 같아요. 어찌어찌 3시간 정도 자고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리미리 약국이나 병원의 힘을 빌려 잠에 대한 대비를 해놓을 것을 후회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수능 볼 때랑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종이 치고 교육학 시험문제를 보는데 일단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연습 때보다 분량을 가장 길게, 시간을 가장 늦게까지 채워서 썼습니다. 퇴고 못했고 그냥 다 쓰니까 2~3분 남은 것 같아서 이름이랑 다 썼는지만 확인하고 제출했습니다. 정신없는 교육학 시험이 끝나고 쉬는시간 분위기는 와.. 헐.. 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 초콜릿 먹으면서 일단 전공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때 느낌은 확실히 연습 때보다 더 떨리고 간절하다 보니 구구절절 쓴 것 같아서 시험 끝나고 나올 때 점수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 2차

저는 2차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저는 1차 시험 전까지 1차 시험만 생각해서 2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2차 시험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대학교 때 팀플 때도 발표 빼고 다 할게요 이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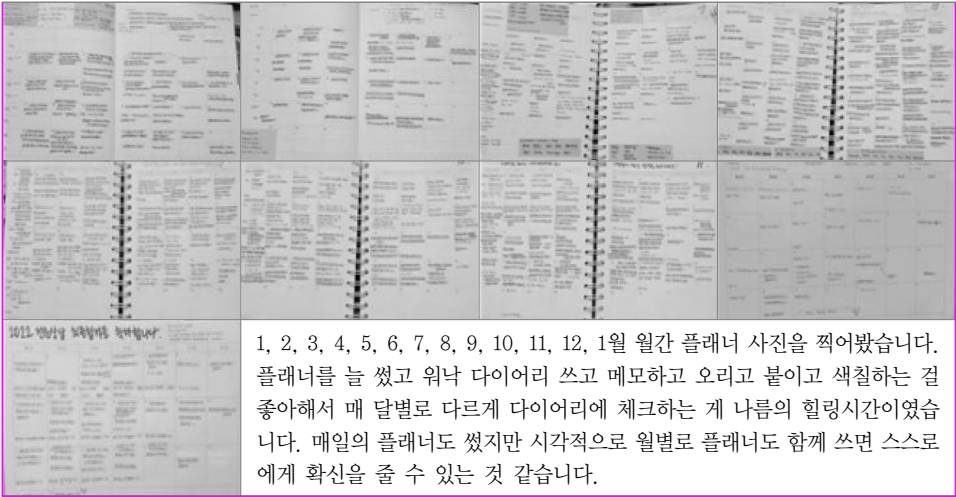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평균만 하자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험 끝난 직후는 정말 후련했고 나를 잘 봤다고 생각했으나 점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 면접에 대한 수기는 다른 선생님들 수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핫...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과 스터디 : 사이다를 중심으로 비교과 스터디를 했습니다. 줌으로만 진행하였고 사이다 1회독을 하였습니다.</li> <li>- 청소년상담사 스터디 : 자격증 면접이 있어서 대면으로 전공쌤들과 스터디를 했습니다. 임용과 방향이나 성격은 달랐지만 일단 말을 해본다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li> </ul>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과 스터디 : 12월에 하던 비교과 스터디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대면으로 사이다를 중심으로 했습니다.</li> <li>- 전공 스터디 : 일주일에 3번 대면으로 마인드 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li> <li>- 전공 스터디 : 일주일에 2번 대면으로 사이다 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li> <li>- 짝 스터디 : 상담 중등쌤과 매일매일 즉답형만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공 스터디 쌤이었기 때문에 전공 스터디가 있는 날은 스터디 끝난 후에 즉답형만 2세트 했고, 전공 스터디 없는 날은 줌으로 1세트씩 했습니다. 짝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답형만 하기 때문에 1세트 돌리면 30분, 2세트 돌리면 1시간이어서 효율적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li> <li>- 상담 아이디어 스터디 : 밴드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다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틈새시간에 효과적인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li> </ul>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교재 : 사이다 - 경기도에 잘 맞는 책이라고 해서 보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임용면접의 마인드 - 비교과에 맞는 책이라고 해서 보았고 좋았습니다. 2030경기미래교육, 2021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2022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li> <li>- 참고교재 : 면접레시피, 면접백신</li> <li>- 참고영상 : EBS 미래교육플러스</li> </ul>
시험 날	<p>시험 날 8시 반까지였고 7시 반이 조금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교실은 추웠고 긴장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순번 추첨 후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여서 앞번호 추첨되기만을 바랬지만 13번이어서 2시가 다 되어 면접을 보았습니다. 9시부터 2시 다 될 때까지 정말 시곗바늘만 바라보면서 물 마시고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시험 날 또 1차 때처럼 초콜릿 빵 등등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계속 뭘 먹으면 덜 심심하겠지 했는데 정해진 점심시간 이외에는 물과 음료밖에 못 먹는다고 해서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p> <p>다행히 면접관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살면서 가장 긴장되고 막막한 몇 시간을 보내고 밖에 나오니 이제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후련했습니다.</p>
면접을 잘 못 본 이유 ㅠ	<p>나름대로 면접을 잘 못 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올해 경기도는 개별면접을 만 보았고 10분 동안 3문제 구상, 10분 동안 구상형 3문항 답변, 10분 동안 즉답형 4문항 답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상형에서 점수가 깎였던 것 같아요. 구상형에 전공 연계해 잘 못 본 지역연계해라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았는데 제 상담전공과 명확하게 연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답형에도 조건이 전공연계, 지역연계가 있어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전공, 지역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도움이 된 공부방법 \*단권화\*

요약노트에 모든 걸 다 넣어서 요약노트만 본 게 저는 좋았습니다.  
 1~4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검정색으로, 이론강의 때 설명해주신 부분은 파란색으로  
 5~6월 기출강의를 들을 때는 초록색으로 필요한 기출표현을 옮겨 적고  
 7~8월 문제풀이 때는 추가내용을 주황색으로 옮겨 적고  
 9~11월 모의고사 때는 분홍색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월간 플래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플래너를 늘 썼고 워낙 다이어리 쓰고 메모하고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는 걸 좋아해서 매 달별로 다르게 다이어리에 체크하는 게 나름의 힐링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의 플래너도 썼지만 시각적으로 월별로 플래너도 함께 쓰면 스스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기화펜으로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선화교수님이 기화펜 소개해 주셔서 그때 처음 기화펜을 알게 되어 땀샘 사서 일년 동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밑줄 치고 읽는 게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라 기화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되었던 말들

저는 플래너에 오글거리지만 명언이나 힘이 되는 말들을 잔뜩 써두고 힘들 때 들여다보았고 합격수기에 쌤들이 써두신 말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들을 모아봤어요.

-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하세요. 후회 없게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 과거 : 해야만 한다, 현재 : 할 수 있다, 미래 : 해냈다
- 순간변화율의 평균값이 평균변화율, 순간변화율을 벗어나는 이변의 평균변화율은 없다.
-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 성실함을 재능삼아 열심히 합시다.
-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면 편안히 주무셔도 됩니다.
-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파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꾸 육안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마지막까지 했어요.
- 선천적으로 눈이나 위가 약한 사람이 있듯 마음이 특별히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 사람도 있는 법

## 느낀 점

공부를 시작한 초반에는 교육학이 낯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교생실습과 학교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공 양이 너무 많고 외위도 외위도 까먹고 체력적으로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 전에는 내가 시험장에 가야한다는 사실이 그냥 무서웠어요.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시험 전까지가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1차 시험을 정말 못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확실함을 견디는 게 너무 어려웠고 발표 전에는 정말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1차 시험 발표 나고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매일매일 긴장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최종발표날 때까지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수기들을 읽으면 힘든 부분보다는 뿌듯함 보람 많이 느꼈다고 하셔서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시험 준비한 1년이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몰랐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기 때문에 1년을 걸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선화 교수님!! 정말 선화쌤이 매 시기별로 해주시는 말씀들을 또 플래너에 적어두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 등 선화쌤의 말씀들, 그리고 직장 자체가 큰 동기부여와 원동력이었습니다.
- 전공 스터디 쌤들. 같이 1차, 2차 스터디 한 쌤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 맛있는 음식들. 1년 동안 정말 잘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단 음식 많이 먹었어요. 물론 살찌는 스트레스도 나름대로 컸지만 맛있는 음식들 먹는 행복이 저에게는 정말 컸어요.
- 합격수기.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일기를 보는 것처럼 두고두고 봤어요.
-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 동기부여 영상들 밥 먹을 때 많이 봤어요. 유튜브로 동기부여 영상이나 스포츠 장면 하이라이트 등을 봤습니다. 스포츠 보면 뭔가 피가 끓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하이라이트 영상들 많이 봤어요.
- 제일 큰 원동력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안함이 가장 크다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책을 보고 오늘의 계획을 수행하고 달성하고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마감하고,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잘 했듯이 내일의 나도 잘할 것이고 시험장에 이렇게 가면 된다는 그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사람들마다 공부방법이 모두 다 다르고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방법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제가 따라간 수기들에서는 교육학, 전공 모두 한 교수님 커리큘럼만 들었고 그것을 온전하게 다 보기 위해 노력했더니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두 한 교수님 커리큘럼만 모두 다 따라갔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초수인 저에게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교육학은 20점 중 18~19점에 대해서는 배운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전공은 80점 중 60점 정도 배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점수를 채우려고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놓치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임용시험을 위해서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덜 체감되었는데, (왜냐하면 교육학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전공은 시험을 위한 공부라는 것이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정말 심리학 공부하는 것이 좋았는데 임용 공부는 키워드 채점이라고 해서 문장 그대로를 암기하고, 기출 답이 납득되지 않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임용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과정중심평가, 피드백 등을 강조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그래 우리는 과정중심평가로 가야 해 피드백 잘해야 해 배우면서 우리가 치는 이 시험은 정말 정반대의 성격의 시험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결과 중심평가의 끝판왕인 것 같고요. 1차, 2차 시험 모두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지어 2차는 매우 주관적인... 그래서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확실함과 압박감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렇게 치열하게 오늘을 마감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다보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수기를 읽고 계신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단하실 텐데 그러한 하루, 또 하루가 합격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전 힘들었던 수많은 하루들을 버릴 수 있게 해준 모든 응원들에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걸어가실 올 한 해의 걸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14

영양

2022 합격

작년 1년간 직강커리 탔던 초수생입니다!

18점으로 교육학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샘플강의 듣고 교수님 강의가 더 스타일에 맞아 기본구조를 탄탄히 가르쳐 주시는 스타일이 좋아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석대로 가르쳐 주셔서 믿음이 갔던 거 같습니다!

또 매주마다 보는 형성평가 덕분에 하기 싫을 때도 복습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고 평가를 하면서 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니까 더없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 때도 열정이 느껴져서 더 집중했습니다. ㅠ.ㅠ

1~2월 듣고 3~4월에도 강의를 들어야 교육학 꾸준히 공부할 거 같아서 연달아 들었고 하반기에 5~6월 강의, 7~8월 강의가 특히 좋았어요.

특히 7~8월 자료 문제 풀면서 오픈형 문제에 연습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수업시작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하루도 힘내라고 직강 강의실 아니어도 직영상 강의실도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ㅠㅠ 수험생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시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ㅠㅠ 기본개념에 충실한 수업 덕분에 오픈형으로 나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고 기본을 아니까 확장하는 건 너무 재밌었어요 ㅎㅎ

감사드립니다!!♡

진강하세요!!

이선화 교육학  
합격 가이드

081

2025학년도 대비  
이선화 교육학  
연간 계획서



# 2025학년도 대비 이선화 교육학 연간 계획서

“이해가 힘이다!”



이선화 교육학은 이론의 이해와 활용,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더 중요해진 유형에 맞추어 확실한 『이해와 활용』을 추구합니다.

- \* 복잡하고 광범위한 교육학의 다양한 영역을 전체 구조의 파악과 기본 원리의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학 전반과 새로운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 \* 단순한 개념의 전달과 암기 중심이 아닌 핵심 원리의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교육학을 쉽고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놓치는 부분 없이 영역 전체에 대한 확실한 구조화와 세부적 확인을 통해 **어떠한 시험 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 기본을 지키고, 기초를 세우며, 확실한 이해를 추구하는 수업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개념 정리**를 추구합니다. 기본 개념의 토대 위에 **실제적인 활용과 응용도 함께 준비**합니다.
- \* **이론 활용, 오픈형 문항**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교육학 논술의 새로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글쓰기부터 논리적 답안 작성 연습**이 가능하여 이론과 실전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가능합니다.

## 수업의 특징

1. 구조화부터 시작하는 기초 탄탄 교육학
2. 놓치는 부분 없는 세심한 교육학
3. 깊은 이해가 가능한 쉽고 재미있는 교육학
4. 실전 같은 모의고사로 든든한 교육학

※ 수강 신청생 대상으로 교육학 논술 작성법 및 구조화 특강 제공 예정

## 연간 강의 계획 - 상반기

강의 (일정)	주요 내용	교재
<b>이선화</b> <b>교육학 논술</b> - 기본 이론반 (1~2월)	<p><b>강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리적 글쓰기의 기본과 교육학 이론의 개념적 틀을 잡습니다. 기초적 틀을 확고히 잡아 학습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li> <li>• 교육학 전체 영역에 대한 ‘구조화’를 가장 큰 목표로 잡습니다. 큰 구조, 이론들의 관계,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구조화에 집중합니다.</li> <li>• 교육학 논술 작성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FAQ까지 총망라하여 논술 쓰기의 모든 것을 함께 확인합니다.</li> </ul> <p><b>주요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 자료 제공,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li> <li>• 교육학 논술 초보를 위한 논술 작성법 Perfect Guide</li> <li>• 스터디 운영</li> <li>• 실전모의고사 2회 실시</li> <li>• 개별 첨삭 실시</li> <li>• 개인 상담</li> </ul>	<p><b>주교재</b></p> 이선화 교육학 이론서 (미래가치, 2025학년도 대비 신간 출간 예정) <p><b>부교재</b></p> 구조화 자료 제공
<b>이선화</b> <b>교육학 논술</b> - 심화 이론 및 활용반 (3~4월)	<p><b>강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개념을 토대로, <b>중요 개념과 핵심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 현장 중심적 사고능력 향상</b>을 추구합니다.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개념을 다루고, 보다 상세하고 심화된 탐구가 이루어집니다.</li> <li>• 주요 이론과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세밀하고 세심한 확인과 정리, 암기 확인을 합니다. 기초반에서 구조를 잡고, 심화반에서 디테일을 완성합니다.</li> <li>• <b>출제 가능한 실제 상황과 이론을 연계하여 확인</b>하고, 주요 이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글쓰기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론의 심화와 심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적용 및 활용 연습이 시작되는 강의입니다.</li> </ul> <p><b>주요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 자료 제공,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li> <li>• 이론 활용 연습 글쓰기</li> <li>• 스터디 운영</li> <li>• 실전모의고사 2회 실시</li> <li>• 개별 첨삭 실시</li> <li>• 개인 상담</li> </ul>	<p><b>주교재</b></p> 이선화 교육학 이론서 (미래가치, 2025학년도 대비 신간 출간 예정) <p><b>부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학 핵심 키워드 인출자료(It-Key, 잇키 연계) 제공</li> <li>• 프린트 자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이선화 교육학 논술 - 기출사례 연습반 (5~6월)</b></p>	<p><b>강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학의 전 영역과 전 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과 개념을 완성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연습과 풀이가 진행됩니다. 기초와 심화를 통해 확보된 지식을 커다란 틀을 통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 과정입니다.</li> <li>• <b>중등 임용 논술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중등, 초등)와 서술형 기출문제(5급 행정고시) 중심의 확실한 정리</b></li> <li>• 기출문제를 통한 이론 적용 연습과 주요 이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글쓰기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론의 심화와 심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적용 및 활용 연습을 병행합니다.</li> </ul> <p><b>주요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 자료 제공,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li> <li>• 실전모의고사 4회 실시</li> <li>• 개별 첨삭 실시</li> <li>• 스터디 운영 / 개인 상담</li> </ul>	<p><b>주교재</b></p> <p>이선화 교육학 기특한 문제집(미래가치, 2025학년도 대비 신간 출간 예정)</p> <p><b>부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선화 교육학 완벽한 요약노트(미래가치, 2025학년도 대비 신간 출간 예정)</li> <li>• 교육학 핵심 키워드 인출자료(It-Key, 잇키 연계) 제공</li> </ul>
--	--	--

## 연간 강의 계획 - 하반기

강의 (일정)	주요 내용	교재
<b>이선화</b> <b>교육학 논술</b> - 영역별 실전문제반 (7~8월)	<p><b>강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예상문제 중심으로 각 영역별 실질적인 문제 풀이와 대비법을 집중 연습</b>하는 과정입니다. 예상문제와 직결된 핵심이론에 대한 최종적 점검이 함께 이루어집니다.</li> <li>• 2024년 실시되는 각종 교육학 서술형 시험의 즉각적 풀이 자료 제공</li> </ul> <p><b>주요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각 영역별 인출 및 활용형 실전문제 매주 연습/풀이</b></li> <li>• <b>실전모의고사 4회 실시</b></li> <li>• <b>개별 첨삭 실시</b></li> <li>• <b>스터디 운영</b></li> </ul>	<p><b>주교재</b></p> <p>이선화 교육학 논술완성 실전문제집(미래가치, 2025학년도 대비 신간 출간 예정)</p> <p><b>부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선화 교육학 완벽한 요약노트(미래가치, 2025학년도 대비 신간 출간 예정)</li> <li>• 교육학 핵심 키워드 인출자료(It-Key, 잇키 연계) 제공</li> <li>• 프린트 자료</li> </ul>
<b>이선화</b> <b>교육학 논술</b> -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반 (9~11월)	<p><b>강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전 예상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 대비를 합니다. 예상되는 형태와 유형, 영역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구성된 <b>실전모의고사 연습을 통해 합격을 쟁취</b>합니다.</li> </ul> <p><b>주요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제별 정리</b></li> <li>• <b>매 강의 실전모의고사 실시(모고 총 30회 이상 제공)</b></li> <li>• <b>영역별 키워드 문장 암기 및 인출자료 제공</b></li> <li>• <b>개별 첨삭 실시</b></li> <li>• <b>스터디 운영</b></li> </ul>	<p><b>주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 자료</li> <li>• 요약정리 자료</li> </ul> <p><b>부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선화 교육학 완벽한 요약노트(미래가치, 2025학년도 대비 신간 출간 예정)</li> <li>• 프린트 자료</li> </ul>

- ※ 4월, 8월에는 공개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 ※ 전체 강의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이선화 교육학 수강생 특전

### 「대면 모의면접 진행」

최종 합격을 위한, 실제 면접과 유사한 상황의 모의면접 무료 제공!!!

- **일정** : 매년 1월 중순
- **대상** : 2024년 9~11월 이선화 교육학 수강생 중 1차 합격자  
(연간 패키지, 3~11월 패키지, 하반기 패키지 수강생 포함)
- **면접위원** : 2인 구성
  - ① 이선화
  - ② 이선화 외 추가 면접위원 1인 배석  
(서울대 교육학과 학/석사, 대기업 인사팀 면접/역량 평가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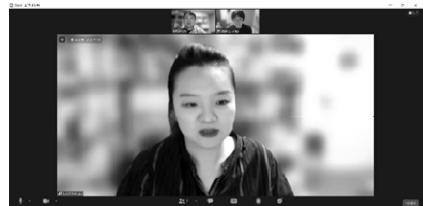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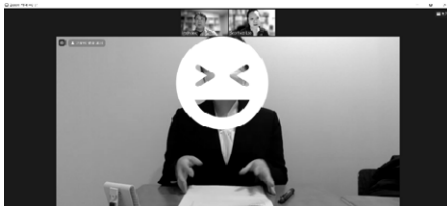
#### 참고

##### 모의면접 진행사항(2019 ~ 2022학년도)

- 대면 모의면접 : 2019 ~ 2020학년도 진행
- 비대면 모의면접 : 2021 ~ 2022학년도 진행

##### 〈2022학년도 비대면 모의면접〉

- 비대면 화상회의 툴 활용
- 2022.01.13 ~ 01.15



<b>이산화 교육학 논술</b> 기본 이론반 - <b>주교재</b> 이산화 교육학 이론서 (신간) <b>부교재</b> 구조화 자료 제공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리적 글쓰기의 기본과 교육학 이론의 개념적 틀을 잡음</li> <li>기초적 틀을 확고히 잡아 학습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li> <li>교육학 전체 영역에 대한 '구조화'를 가장 큰 목표로 잡고 큰 구조, 이론들의 관계,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구조화에 집중</li> <li>교육학 논술 작성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FAQ까지 총망라하여 논술 쓰기의 모든 것을 함께 확인</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화 자료 제공,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li> <li>교육학 논술 초보를 위한 논술 작성법 Perfect Guide</li> <li>스터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전모의고사 2회 실시</li> </ul> </li> <li>개별 첨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상담</li> </ul> </li> </ul>
<b>이산화 교육학 논술</b> 심화 이론 및 활용반 - <b>주교재</b> 이산화 교육학 이론서 (신간) <b>부교재</b> • 교육학 핵심 키워드 암기자료(It-Key, 잇키) 제공 • 프린트 자료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개념을 토대로, <b>중요 개념과 핵심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 현장 중심적 사고능력 향상</b>을 추구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개념을 다루고, 보다 상세하고 심화된 탐구가 이루어짐</li> <li>주요 이론과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세밀하고 세심한 확인과 정리, 암기 확인, 기초반에서 구조를 잡고, 심화반에서 디테일을 완성</li> <li><b>출제 가능한 실제 상황과 이론을 연계하여 확인</b>하고, 주요 이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글쓰기 연습이 이루어짐</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론의 심화와 심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적용 및 활용 연습이 시작되는 강의</li> <li>구조화 자료 제공,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론 활용 연습 글쓰기</li> </ul> </li> <li>스터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전모의고사 2회 실시</li> </ul> </li> <li>개별 첨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상담</li> </ul> </li> </ul>
<b>이산화 교육학 논술</b> 기술사례 연습반 - <b>주교재</b> 이산화 교육학 기특한 문제집(신간) <b>부교재</b> • 이산화 교육학 완벽한 요약노트(신간) • 교육학 핵심 키워드 암기자료(It-Key, 잇키) 제공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학의 전 영역과 전 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과 개념을 완성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연습과 풀이가 진행됨. 기초와 심화를 통해 확보된 지식을 커다란 틀을 통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 과정임</li> <li><b>중등 임용 논술 기술문제, 객관식 기술문제(중등, 초등)와 서술형 기술문제(5급 행정고사) 중심의 확실한 정리</b></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문제를 통한 이론 적용 연습과 주요 이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글쓰기 연습이 이루어짐</li> <li>이론의 심화와 심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적용 및 활용 연습을 병행함</li> <li>구조화 자료 제공,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전모의고사 4회 실시</li> </ul> </li> <li>개별 첨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터디 운영 / 개인 상담</li> </ul> </li> </ul>
<b>이산화 교육학 논술</b> 영역별 실전문제반 - <b>주교재</b> 이산화 교육학 논술완성 실전문제집(신간) <b>부교재</b> • 이산화 교육학 완벽한 요약노트(신간) • 교육학 핵심 키워드 암기자료(It-Key, 잇키) 제공 • 프린트 자료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예상문제 중심으로 각 영역별 실질적인 문제 풀이와 대비법을 집중</b> 연습하는 과정</li> <li>예상문제와 직결된 핵심 이론에 대한 최종적 점검이 함께 이루어짐</li> <li>2024년 실시되는 각종 교육학 서술형 시험의 즉각적 풀이 자료 제공</li> <li><b>각 영역별 인출 및 활용형 실전문제 매주 연습 / 풀이</b></li> <li>실전모의고사 4회 실시</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첨삭 실시</li> <li>스터디 운영</li> </ul>
<b>이산화 교육학 논술</b> 파일널 적응 모의고사반 - <b>주교재</b> •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 자료, 요약정리 자료 <b>부교재</b> • 이산화 교육학 완벽한 요약노트(신간) • 프린트 자료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전 예상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 대비를 함. 예상되는 형태와 유형, 영역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구성된 <b>실전모의고사 연습</b>을 통해 <b>합격을 쟁취</b>함</li> <li>주제별 정리</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 강의 실전모의고사 실시(모고 총 30회 이상 제공)</li> <li>영역별 키워드 문장 암기 및 인출자료 제공</li> <li>개별 첨삭 실시</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터디 운영</li> </ul>

\* 4월, 8월에는 공개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 전체 강의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